

하느님 아버지의 저항할 수 없는 크신 사랑으로 죄에 묶인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해주시고 자유를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이 땅에 사는 동안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 갈라디아서 5장 1절

# 미주크리스천신문

##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주후 2015년 8월 15일 (토) 제 1546호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 광복70주년...이젠 일본의 역사인정으로 시작돼야

#### BBC뉴스, 역사 부정 수정주의자 득세하는 일본 사회 모습 보도

서울대학교 백낙청 명예교수는 광복 70주년을 맞는 감회를 다음과 같이 전한다. "어둡고 괴로워라 밤이 길더니/삼천리 이 강산에 먼동이 났다." 8·15 직후 부르던 "독립행진곡"의 첫머리다. 돌아켜보면 일본의 식민지통치 35년은 분단 70년의 절반에 불과했지만, 어둡고 괴롭고 치욕스러운 남의 나라 종살이였기에 해방의 환희와 감격이 그만큼 벅찼다. 그런데 70년이 지난 오늘도 이 노래가 가슴을 울리는 것은 환희의 기억이 생생해서라기보다 어둡고 괴로운 세월이 여전히 끝나지 않았고 아-아, 자유의, 자유의 종이 울리고 해방의, 해방의 깃발 날리는 날에 대한 목마름이 간절하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1945년 8월 15일은 확실히 한반도가 다시 빛을 되찾은 광복(光復)이었다. 따라서 일제통치를 끝내기 위해 헌신했던 선열들을 기리고, 해방을 위해 타는 목마름으로 멀게는 만주에서 그리고 한반도에서 독립을 위해 힘썼던 분들에게 경의를 표해야 한다.

세계 2차 대전이 있는지 70년이 지난 올해, 일본 역사 수정주의자들의 목소리는 한층 높아지고 있으며 주류에 가까워져 가고 있다. 특히 전쟁 중 일본 군사들을 위해 강압적으로 성노예가 된 위안부 여성들에 대한 그들의 목소리는 한층 커져가고 있다.

이러한 역사 수정주의자들의 목소리들 중 가장 유창한 언변은 다모가미 도시오에게서 나온다.

다모가미는 교육도 잘 받았고, 지식도 많은 편으로, 인터뷰를 진행할 때 굉장히 예의가 바르다는 느낌을 전해주었다 한다.

일본 공군의 전 간부였던 그는 세계의 다른 국가들과는 다소 다른 일본의 역사를 믿고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역사관은 중국과 한국에 사과를 해야 된다는



한국교회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분단된 조국의 치유와 화해를 위한 디딤돌로 삼겠다는 의지가 실천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식민지 역사를 왜곡시키며, 역사 수정을 시도하고 있다.

지속적인 요구에 지친 젊은 일본인들 사이에서 크게 인기를 얻고 있다.

작년에 다모가미 씨는 도쿄의 시장으로서 출마했다. 그는 6만표를

얻으며 4번째로 선거를 마감했다. 또 놀라운 건, 20-30대에는 1/4이 넘는 득표율을 가졌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패전국으로써 우리는 승전국들이 전해준 역사만을 가르

칩니다. 또 다시 한 번 자주 국가가 되려면 우리는 우리에게 쓰여진 역사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찬란하고 자랑스러운 우리의 진짜 역사를 되찾아야 합니다."

그가 말하는 20세기의 "진짜" 역사에서 일본은 침략자가 아닌 해방자이다. 여기서 일본 군인들은 아시아 인들을 200년동안이나 지배했던 백색 제국주의자들을 몰아내기 위해 힘겹게 싸운 것이라 설명한다.

이 역사관은 일본이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유럽의 탄압을 벗어내려 노력하고, 벗어날 수 있었던 자랑스러운 국가이다. 이러한 역사관에 서는 또한 일본이 다른 아시아인들에게 잔혹한 만행을 저질렀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다.

다모가미 씨는 일본이 한반도를 침략한 것이 아니며, "오히려 한국과 대만, 만주 땅에 투자를 한 것"이라 말한다. 인터뷰를 통해 1937년 중국 침략과 난징 시민 대학살에 대해 그에게 물었다. 침략으로 확연히 보이는 이 사건에 관해서다.

"저는 난징 시민 대학살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라고 그가 운을 떼었습니다. 그는 이어 일본 군인들이 중국 시민들을 살해하는 것을 목격한 "목격자와 증인"이 없다고 말한다.

또한 인터뷰에서 다모가미 씨는 가장 공분을 크게 사고 있는 한국 위안부 문제에 관해 물었다. 그는 이것 또한 "또 다른 조작"이라고 확신했다. 그는 이어 "이게 정말 사실이면, 어떻게 그 많은 군인들이 이 여성들을 강제로 움직이는 데에 쓰였어야 합니까?"

(3면으로 계속)

### 부모 집에 얹혀사는 부메랑세대 증가

#### WSJ, 밀레니엄세대 4명 중 1명...미국 사회 새롭게 등장

고용시장이 개선되고 있다. 밀레니얼 세대, 특히 대졸 학력인 밀레니얼 세대 근로자의 임금은 침체기 전 수준에 가깝다. 하지만 침체기가 닥치면서 부모 집으로 회귀한 '부메랑' 밀레니얼들은 일자리와 임금이 부모 그늘을 벗어날 만큼 충분치 않다고 느껴서, 부모 집에 얹혀사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보도한다('Boomerang' Millennials Get Cozy at Home).

#### 실업률 하락 불구 2010년 24%서 올 1분기 26%

#### 결혼률 감소, 주택 임대료 상승, 학자금 부채 탓

퓨리서치센터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고용시장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1981년 혹은 그 이후 출생한 밀레니얼 가운데 부모와 함께 사는 비율이 2010년보다 증가했다.

회복세가 시작됐던 2010년에는 24%, 침체기 전인 2007년에는 22%였던 것이 올 1분기에는 26%로 늘어났다. 부모 집에 얹혀사는 젊은이 수가 2007년에는 1,340만 명이었던 데 반해 올해는 1,630만 명이 된 것이다.

5년 전에는 12.4%에 달했던 18-34세 젊은층의 실업률이 7.7%로 떨어졌는데도 말이다. 임금도 주당 임금 중간값이 2012년 547달러에서 올 1분기엔 574달러로 올랐다.

물론 다수, 정확히는 4,220만 명의 밀레니얼들은 독립해서 살고 있다. 하지만 이 수치는 2007년의 4,270만 명보다 약간 감소한 것이다.

리처드 프라이 퓨리서치센터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이 같은 추세는 광의의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주택시장, 건설업체, 부동산업체, 집주인, 케이블 회사 뿐 아니라 홈디포 같은 주택 관련 용품 판매업체들까지 모두 영향권에 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부메랑 세대가 부모 집에 머무는 이유는 뭘까? 독립 하우징 이코노미스트 제드 콜코는 두 가지를 지적했다. 바로 결혼률 감소와 주택 임대료 상승이다. 주택 임대료 상승률은 미국 내 많은 지역에서 임금 상승률을 앞질렀다.

뉴욕, 마이애미, 샌프란시스코 등 사람들이 선호하는 도시의 임대료는 해당 지역 소득 중간값의 41% 이상을 차지한다. 덴버나 오스틴 같은 신흥 도시 역시 최근 몇 년 사이 임대료가 많이 올랐다.

연준이사회 연구가 지적한 또 다른 요인은 학자금 부채다. 퓨리서치센터는 대침체가 젊은이들을 대학으로 내몰았다고 밝힌다. "침체를 건너내기 위한 방편으로 대학에 진학하기도 하고, 스펠을 더 쌓기 위해 대학으로 돌아가기도 했다."

(2면으로 계속)

ATS 정회원 월드미션대학교 온라인 프로그램  
**온라인(Online) 기독교상담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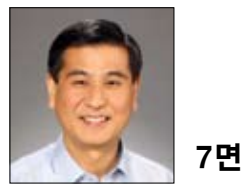
- 1. 학사: 성서학(BABS), 기독교상담학(BACC)
- 2. 석사: 목회학(M.Div), 신학(MAT), 기독교상담학(MACC)
- 3. 박사: 목회학(D.Min)
- 4. 세계 모든 곳에서 통신과 온라인으로 학위 취득 가능
- 5. ATS 인가 학위로 미국 주류 기독교 대학과 학점 인정 및 편입학
- 6. 연방정부 학비 지원, 선교사 장학금, 목회자 장학금, 부부 장학금

미국 대학교 인준기관  
ABHE 정회원, ats 정회원, TRACS 정회원

500 Shatto Place, Suite 600, Los Angeles, CA 90020  
www.wmu.edu / admissions@wmu.edu (213) 388-1000



2면  
IS, 이젠 지리 대량 매설 통해  
공포심 조정!



7면  
교회 역사를 보면 성경이...  
조진모 목사



8면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  
윤병이 목사



16면  
특별기고  
이기홍 목사



# Grace Mission University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미주한인 신학교 최초 유일의 D.Miss. (선교학 박사) 과정!!

### 학위과정

박사	선교학 박사 (D.Miss) 42학점
석사	목회학 석사 (M.Div) 105학점 기독교 교육학 석사 (MA CE) 69학점 선교학 석사 (MA ICS) 48학점 100%온라인가능
학사	신학사 (BA) 100%온라인가능

우수한 교수진  
한인신학교 최대규모의 도서관  
저렴한 교육비

전과정 유학생 SEVIS I-20 발급  
미 연방정부 장학금 및 그랜트 지원  
미 국방부 학비 지원(TA)  
미 군복 장교 지원  
GMU 학교 장학금 수여

온라인 과정: 수시모집 (온라인 원서 접수 www.gm.edu)  
English Track (전과정을 영어로 강의)  
LA Extension Class: 주님의 영광교회내 (Tel: 213-479-4500)

## 가을학기 원서접수 마감: 2015년 8월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 714-525-0088(대표), 515-5885(고객지원)  
Email: admissions@gm.edu 웹사이트: www.gm.edu







# 시론

## 사슴나무골에서(20): 광복 70주년의 의미



박동서 목사 (엘크그로브 가스펠교회)

올해는 대한민국이 일제 식민 통치로부터 해방된 지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70년이면 인생으로는 노년에 접어든 나이이지만 한 국가나 민족이 자립하기는 아직 이른 년수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는 미국이 민주주의 정치제도로 세계에서 가장 앞선 나라라고 하지만 240년의 역사를 거쳐 이룩된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신구약 성경에는 수많은 실존했던 역사상의 민족과 국가들이 등장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을 항상 곤경에 처하게 한 막강한 바벨론제국은 유대왕국을 결국 몰락시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남겨둔 채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가고 무려 70여 년을 노예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며 타락한 이스라엘을 돌이키시려고 사용했던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망하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은 이스라엘 유민들을 귀환시켜서 이스라엘의 재건을 돕습니다. 이때 에스라와 스룹바벨 같은 영적 지도자들이 경제적 재건과 아울러 하나님 중심의 영적 회복에 앞장섭니다.

바벨론에서 지내는 동안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은 새로운 환경에 따라 어쩔 수 없이 회당 중심의 신앙생활로 정립되는 계기가 됩니다. 바벨론의 발전된 문서 기록 기술도 한 몫 해서 당시 보존된 구약 성경 사본을 새로 건립하는 회당마다 복사 사필본을 만들어 대량 보급하는 눈부신 업적을 이룩합니다. 바벨론 포로기간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칫 소멸될 수도 있는 성경말씀을 계속해서 대대로 전파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드십니다. 또한 성전 내에서만 가능한 제사 중심의 신앙생활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서 회당 단위의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로 발전시켜 주십니다. 결국 이 회당 중심의 신앙생활이 오순절 초대 신약교회의 원형이 된 것입니다.

알렉산더의 마케도니아 그리스 제국의 헬라 문화와 로마제국의 정복적 통일은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교가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전에 고속도로를 깔아놓는 준비 단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 최고의 신학자들과 언어학자들 70여명은 아이로니컬하게도 헬라로마문명의 지적을 과시하기 위해 건설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 모여 역사적인 70인역 성경(히브리어로 쓰여지고 전수되어 온 구약 성경을 당시 세계 공용어였던 헬라어로 번역한 대역작)을 발간하기에 이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참으로 신묘마축합니다.

제정 러시아가 볼셰비키 공산 혁명에 패망하고 전 세계는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의 이데올로기 방전의 시대를 맞습니다. 70여 년 동안 공산주의 압제 밑에서 구조권, 동구권 유럽, 중국과 북한, 등 수많은 민족과 국가들이 고통을 받다가 소련 공산당 서기장 고르바초프의 결단으로 공산주의 철의 장막이 무너지고 탐니다. 동유럽과 북 스칸디나비아, 중앙아시아 등의 위성 국가들이 독립을 맞게 됩니다. 중국은 위기를 느끼고 수정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앞세운 사회주의 국가로 한발짝 물러섭니다. 막스 레닌의 유물론 계급투쟁으로 시작된 공산주의 사상이 지구상에서 가장 접근하기 힘든 광범위한 구조권과 중공을 포함한 유럽과 아시아 지역을 각각 단일 언어와 문화가 지배하는 국가로 만들어 놓습니다. 오늘날 구조권과 중공은 기독교가 가장 왕성하게 보급되고 전파되는 지역이 되었습니다. 압제와 암흑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속사는 빛을 발합니다.

오직 북한만이 지구상에서 가장 고립된 공산주의 체제를 3대째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수백만명이 기아와 고문 속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광복은 사실 아직은 반쪽짜리 광복이요 독립입니다. 남한과 북한이 하나님의 은혜로 통일이 되어서 진정한 광복의 영광을 누리는 날이 가까와지도록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해봅니다.

# IS, 이젠 지뢰 대량 매설 통해 공포심 조장!

## 뉴스위크, 시리아, 이라크 기독교도의 주택, 농장, 고대 유적지에 매설 보도

시리아 동북부 카부르는 아시리아 기독교 주민이 다수인 도시다. 수니파 급진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에 점령 당했다가 지난달 쿠르드-시리아 민병대가 탈환했다. 몇 달 동안 피난해있던 파티마(가명)가 최근 카부르의 집으로 돌아갔을 때 문 앞에는 'IS 재산'이라는 표지판이 붙어 있었다. 그처럼 피난했다가 카부르의 집으로 돌아가는 주민은 IS의 점령을 상기시키는 그런 흔적을 보고 섬뜩해한다.

더욱이 퇴각한 IS는 시리아와 이라크의 점령지 전역에 지뢰를 매설했다는 보도가 서방 언론들을 통해, 일제히 보도되었다(Islamic State crisis: 'Mines planted in Syria's Palmyra'). 바로 민간인 가옥, 농장, 들판, 고대 유적지에 도 지뢰를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티마가 냉장고 문을 열자 채소 보관 선반에 폭파되지 않은 지뢰가 들어 있었다.

다행히 뇌관이 손상돼 지뢰가 터지지 않았다. 파티마는 즉시 아시리아기독교민병대(MFS)에 신고했다. 그들이 도착해 냉장고 속의 지뢰를 해체하고 집안을 살살이 뒤졌다. 화장실과 침실에서 지뢰가 발견됐다.

이 지역의 아시리아인, 칼데아인, 시리아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비정부 기구 '행동 요구'의 다이애나 야코 흥 보실장은 "IS는 점령지를 잃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거의 모든 전투 지역에 지뢰를 설치한다"고 말했다.

IS는 그 지뢰를 이용해 점령지에서 쫓겨난 뒤에도 주민을 계속 공포에 떨게 만든다. IS가 도시나 마을에 진입하면 주민은 대개 인근 지역으로 피신한다. IS는 주민이 돌아오지 못하도록 민간인 거주지에 지뢰를 매설한다. 자전거나 어린이의 발걸음에도 지하에 매설된 지뢰가 터질 수 있다.

비정부기구 국제지뢰금지운동(ICBL)은 IS가 사용하는 것 같은 지뢰를 "잠재적 피해자를 노리고 잠복해 있는 폭탄"이라고 부른다. "그런 지뢰는 전쟁이 끝난 후에도 오랫동안 주민을 살상하고 불구로 만든다. 지역사회에 공포를 조장하며 개발에 치명적인 장애물이다."

MFS의 카부르 대표 유하는 가브리엘은 "IS는 카부르에서 민간인을 최대한 살상할 수 있는 곳에 지뢰를 설치했다"고 말했다. 그는 카부르에 설치된 지뢰의 65-70%가 해제된 것으로 추정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주민이나 작물 수확을 재개하려는 카부르의 농민은 먼저 민병대에 지뢰 수색을 의뢰한다. 이 같은 예방 조치에도 파티마의 냉장고 속에 설치된 지뢰처럼 많은 폭탄이 뜻밖의 장소



## 4일 한국 DMZ에 북한 설치 추정 지뢰 폭발로 2명 부상

에서 발견된다. 가브리엘 대표는 "지뢰 대부분은 주민이 다시 정착하려고 마을로 돌아가거나 옛집에서 가재도구를 가져가려고 할 때 발견된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지뢰처리 경험 부족으로 우리 대원이 다치는 경우가 많다."

지뢰의 위치를 전부 확인해도 시리아 민병대는 지뢰해체 장비가 거의 없다. 카부르에서 MFS는 쿠르드족 인민수비대(YPG)의 도움을 받는다. 그들은 시리아의 다른 지역에서 IS가 설치하고 떠난 지뢰를 해체한 경험이 많다. 카부르의 지뢰 제거 과정에서 지금까지 최소한 15명이 사망했다. 대부분은 YPG 대원이었다. MFS

와 '행동 요구'는 외부의 도움을 촉구했다.

지난 6월 YPG는 IS의 거점인 라카 북쪽 지역에서 IS를 몰아낸 뒤 지뢰가 들어 있는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그 이래 시리아인권관측소(SOHR)는 라카-하세케-데이트 엘조르 등 시리아 북부 5개 주에서 지뢰 폭발 사고가 최소한 8차례 있었다고 발표했다. 또 IS는 고대 유적지 팔미라 부근에도 급조폭발물(IED)과 지뢰를 매설했다고 알려졌다.

지뢰는 새로운 무기가 아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지뢰는 엄청난 피해를 불렀다. ICBL에 따르면 그 후 50여 개국이 다양한 형태의 지뢰를

생산 했다. 1997년 162개국이 "대인 지뢰의 사용·비축·생산·이전을 금한다"는 유엔 대인지뢰금지협약에 서명했다. 시리아는 그 협약에 조인하지 않았다. 시리아 정부는 4년 전 내전이 시작된 이래 민간인 지역에 지뢰를 매설한 것으로 보인다.

지뢰 생산을 중단한다고 해서 위험이 완전히 제거되진 않는다. 캄보디아는 그 협약에 조인했지만 현재 지뢰로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다. 캄보디아는 30여 년에 걸친 내전 후 10여 년이 지났지만 비정부기구 캄보디아 지뢰제거행동(CMAC)에 따르면 아직 제거되지 않은 지뢰가 400만-600만 개나 남아 있다.

IS가 지뢰 매설 지점이나 수량을 기록하고 있는지도 알 수 없다. 그런 정보가 없으면 매설된 지뢰를 전부 찾는 일이 거의 불가능하다. 시리아인은 앞으로 오랫동안 지뢰의 위협을 안고 살아가야 할지 모른다.

한편, 지난 4일 한국 경기도 파주시 군내면 방곡리 보병 1사단 11연대 DMZ 구역에서 지뢰 매설로 두 차례

의 폭발이 일어났다. 최전방 지역인 추진철책 통문(폭 1.5m) 바닥에 북측의 목함지뢰 3개가 매설돼 있다가 잇따라 터진 것이다. 통문을 지나려던 하모(21) 하사가 두 다리를 잘렸고, 하 하사를 구해 후송하려던 김모(23) 하사도 지뢰를 밟아 오른쪽 발목을 잃었다.

합동조사단은 목함지뢰 매설 전문 북한군 요원이 지난달 25일 북한군 GP 병력이 교대할 때 이 GP로 투입돼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1일 사이 추진철책 통문 근처에 매설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부모 집에 얹혀사는 부메랑세대 증가

〈1면에서 계속〉 하지만 대학 교육에는 값비싼 대가를 치러야 했다. 연준이사회 이코노미스트인 리사 데틀링과 조앤 쉬는 미국 젊은이들의 학자금 부채 중간값이 2005년 초 5,300달러에서 지난해 초 1만2,000달러로 늘었다고 밝혔다. 개인별 크레딧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학자금 부채가 1만 달러 증가할 때마다 부모 집으로 들어가는 비율은 4.6% 정도 높아진다.

이들은 실사 대학 교육을 통한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이 가능하다 해도 "학자금 부채를 늘려 얻게 되는 소득

증가효과와 학자금 부채 때문에 부모 집으로 들어가게 되는 행동효과에 가려진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학자금 부채는 대출인구 전반에 고르게 분포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또한 상황에 따라, 늘어난 학자금 대출 잔액은 대출자가 대출받을 여력과 리스크 감수 성향이 커졌음을 의미할 수도 있는 반면 대출 외엔 다른 방도가 없는 절박한 상황을 뜻할 수도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임대료 상승은 인구 전반에 고르게 타격을 입혔다.

힐러리 호인스 UC버클리 경제학과

교수는 "이전 침체기 때와 다른 점 하나는 임대료 면에서 지역별로 상당한 불균형이 존재한다는 것"이라며 "주

요 도시들의 높은 주거비용은 많은 이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발행인 겸 편집인: 정영춘**  
**■ 편집국장서리: 유원정**

<p><b>· L.A. Office</b>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Tel: (323) 665-0099 (대 표) (323) 665-9025 (광고국) Fax: (323) 665-0056 (편집국) (323) 665-0046 (광고국) E-mail: la@chpress.net</p>	<p><b>· N.Y. Office</b>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 (718) 886-4400 (대표) (718) 886-4424 (편집국) Fax: (718) 886-0074 (대표) E-mail: ny@chpress.net</p>
--	---

The Korean Christian Press (USPS 746-070) is Published Weekly (every Saturday) 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 2015년 가을학기 학생모집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1. On Campus 강의: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 발행
2. On-Line 방법으로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학위취득 가능
3. Blended 강의: 소집강의와 On-Line 교육을 병행하면서 학점취득 가능

**본교는 미국대학학력인가기관(CHEA), 미연방정부교육부(USED), ABHE로부터 학사, 석사, 박사 학위과정을 인가받은 대학교입니다.**

미국 대학 학력인정기관 Accreditation (CHEA) www.chea.org  
미연방정부 교육부 (USED) OPE ID: O3528300,  
www.ope.ed.gov/accreditation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ESL Program**

**Bachelor Degree Programs**

- BA in Business Administration 경영학
- BA in Music 음악
- BA in Theology 신학, 기독교교육
- Biblical Studies, Christian Education

**Master Degree Programs**

- MA in Counseling 상담학석사
- MA in Education 교육학석사
- MA in Music 음악석사
- MA in TESOL 영어교육석사
- M.Div 신학석사

**Doctoral Degree Programs**

- Doctor of Ministry 목회학박사
- Christian Counseling, Christian Education, Mission Studies, Pastoral Theology
- Doctor of Music 음악박사
- Doctor of Leadership 리더십박사

문의: 전화 (636) 327-4645, 이메일 usa@midwest.edu

## Midwest University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636) 327-4645 / Fax: (636) 327-4715  
E-mail: usa@midwest.edu

**Washington DC Campus**  
5103-A Backlick Rd. #24, Annandale, VA 22003  
Tel: (571) 730-4750 / Fax: (571) 730-4751  
E-mail: wdc@midwest.edu



# 이슬람 급진 무장단체의 합종연횡

## 뉴스위크, 전세계 민간인 공포로 몰아넣는 그들의 정체 보도

보코하람과 이슬람국가(IS), 누스라 전선과 알샤바브를 구별할 수 있는가? 급진 무장단체의 세계에서 누가 누구인지 알기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무장단체 간의 합종연횡이 빈번하기 때문이다. 현재 난립하는 무장단체의 이름과 특징을 알아본다.

**보코하람**  
아프리카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이제리아를 아수라장으로 만든 테러단체다. 6년 전부터 폭탄 테러, 암살, 납치를 자행해왔다. 지난 7월 17일엔 나이제리아 북동부에서 이슬람 성월 라마단 종료를 기념하는 축제를 기습적으로 폭탄테러로 수십 명이 숨졌다. 보코하람은 '서양식 교육을 금지한다'는 뜻이다. 지난해 어린 여학생 수백 명을 납치했다. 최근 들어 보코하람은 IS에 충성을 맹세하고 'IS 서아프리카' 주로 개명했다. 지난 3월 IS 대변인은 보코하람의 충성 서약을 받아들였으며 서아프리카 '지하디 동지'의 합류를 환영했다.



중심부까지 넓은 지역을 장악하고 아프리카까지 손을 뻗치면서 지난해 6월 '이슬람국가(IS)'로 다시 개명했다. 알카에다는 몇 달 동안 IS와 불화 끝에 지난해 2월 관계 단절을 선언했다. 알카에다 대변인은 "IS는 알카에다 지부가 아니고 조직적 관계가 전혀 없다"며 "IS의 행동은 알카에다의 책임이 아니다"고 말했다.

**알카에다**  
이슬람주의 테러단체의 원조다. 1980년대 오사마 빈 라덴이 결성했다. 2001년 미국 본토를 겨냥한 9·11 테러가 알카에다 소행이다. 그들의 목표는 중동 전역에 걸쳐 독립적인 이슬람국가를 건설하는 것이다.

서방 사회와 관련 있는 모든 정치적·사회적 활동을 거부한다. IS가 이슬람주의

테러단체의 핵심으로 급부상한 이래 알카에다는 중동 지역 각 지부의 활동에 조정을 맞추고 있다.

**누스라 전선**  
알카에다 연계 조직으로 '알누스라'로도 불린다. 바샤르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을 무너뜨리기 위해 결성됐다. 지금도 시리아 내전에서 바샤르 정부군에 맞서 싸운다.

**AQAP**  
알카에다 아리바반도지부의 약자다. 예멘과 사우디를 기반으로 하는 AQAP는 지난 1월 파리에서 발생한 폭자 주간지 사들리 엡도 사무실 테러 공격을 감행했다고 주장한다. 그 이래 예멘의 내전에 전념한다.

**AQIM**  
알카에다 북아프리카지부인 '이슬람 마그레브 알카에다'의 약자다. 아프리카 사헬(북쪽으로 사하라 사막에서부터 남쪽으로 수단에 이르는 지역)을 거점으로 한다. 1990년대 알제리 내전으로 결성됐다. 마약 밀매와 인신매매로 자금을 확보한다.

**알샤바브**  
알카에다의 소말리아지부다. 국제적으로 승인 받은 소말리아 정부에 맞서 잔혹한 테러를 일삼는다. 2013년 케냐 나이로비 쇼핑몰 공격으로 한국인 1명을 포함해 약 70명의 목숨을 앗아간 테러단체이다. 기독교인을 주 표적으로 삼는다.

**이슬람국가(IS)**  
가장 악명 높고 사악한 이슬람주의 무장단체다. 10여 년 전 이라크에서 알카에다 분파로 결성됐다. 처음엔 '알카에다 이라크지부(AQI)'로 부르다가 2006년 '이라크·시리아 이슬람국가(ISIS)'로 개명했다. 그 후 9년 동안 시리아 북부부터 이라크

## 광복70주년...이젠 일본의 역사인정으로 시작돼야

(1면에서 계속)  
또한 한국 남성들이 그저 여자들이 강압적으로 끌려간 것을 바라보기만 했다는 것입니까? 모든 한국 남성들이 겁쟁이었을까요?라고 말했다.  
비록 모든 이가 다모가미 씨처럼 이렇게 과감하고 직설적이게 말하지는 않지만 이러한 역사관이 바로 일본의 국가주의자들이 믿는 역사관이다.  
조금 일찍 이번 해에 있었던 미국의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워싱턴 DC에 방문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세계 2차 대전 때 일본에 의해 일어난 아픔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아베 총리는 중국과 서부 동아시아 전선 근처에 있던 한국 위안부 여성들의 존재를 인정치 않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그는 지속적으로 이러한 여성들이 강요받았거나, 일본 군인들이 그들의 소집과 감금에 참여한 적이 있다는 증거는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이러한 여성들은 매춘부라는 뜻이 된다.  
이 부분은 굉장히 흐린 부분이다. 어려운 형편에서 자란 여자들은 매춘부로 일본과 한국, 중국으로 몇 세기 동안 팔려나갔으며, 이러한 행태는 1930년대에서부터

1940년대까지 진행됐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본 군대의 책임이 회피되는 것은 아니다. 다모가미 씨와 같은 역사 수정주의자들은 실제로 위안부로 끌려간 이옥선 씨 같은 분들이 모두 이야기를 꾸며내고 있다고 말한다. 그들은 이러한 주장들이 한국 정부에서 일본을 모욕하고 돈을 더 갈취하려는 속셈으로 나온 것이라고 말한다.  
위안부 여성 문제가 정치적 이유로 한국 정부에서 나온 것은 확실하다. 하지만 일본 군대가 위안부 여성들의 강제 연행을 조직했다는 다른 증거들은 많으며, 최소 중국에서 소재하던 일본 제국 군대에 있던 이들의 입에서 나온 증거들이 그것들이다.  
마츠모토 마사요시 씨는 현재 93세로 그들의 딸들과 함께 도쿄 끝자락에서 살고 있다. 20세의 나이에 그는 자신이 위생병으로 중국에 근무할 당시 "(자신의) 부대에 6명의 위안부가 있었다"고 말했다. "한 달에 한 번 나는 위안부들의 성명 검사를 맡았습니다."  
그는 이어 "한국 위안부 여성들은 대부분 장교들을 위한 것이었으며, 그렇기에 일개 군인들은 현지 마을들을 습격해 '어

디 좋은 여자들 여기에 없냐고 물으며 강간, 절도, 살해 등을 일삼았다"고 말했다.  
이 중 불잡힌 여성들은 마츠모토 씨의 부대로 옮겨져 위안부 여성으로써 살았다고 말했다. 전쟁 후 마츠모토 씨는 자신의 속죄를 위해 성직자가 됐다. 그는 이어 "웃기는 일이야... 아베 총리는 마치 자신이 목격한 것인 양 말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지. 목격한 건 나야"라고 말했다.  
"누군가 나에게 말을 해줬어요. '과거를 돌아보고 인지하지 못한 자는 같은 과오를 반복한다'고. 하지만 아베 총리는 일본이 했던 모든 나쁜 것을 지우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해야 한다고 한다. 그게 제가 그를 용서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는 이렇게 덧붙였다.  
그는 인터뷰 중 의자에 깔개 등을 대고 앉으며 웃었다.  
"하루는 우파들이 와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한 것에 대해 해코지를 할 겁니다." 자신의 목에 손가락을 대며 이렇게 말했다. 물론 이러한 일이 일어날 확률은 낮지만, 마츠모토나 다른 생존자들은 이제 모두 80-90대의 연령층이다. 곧 있으면 그들은 또한 세상을 떠날 것이다. 현재 역사를 부정하는 목소리는 한층 커지고 세지고 있는 와중에도...

## 원로칼럼



박종순 목사 (충신교회 원로)

### 원로로 살아가기(1)

성경 안에 정년을 명시한 곳은 없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민족 통치의 사역을 넘겨준 것처럼 지도력의 물려줌은 있지만 법으로 때를 정하고 그 법 때문에 물러난 경우는 없다. 그러니까 정년이니 은퇴니 하는 것은 사람들이 훗날 정한 법이고 규정일 뿐이다.  
그렇다고 자기 자리를 100년까지 하겠다는 것은 과욕이고 노욕이다. 필자로서 은퇴 제도가 좋은 제도라고 생각한다. 은퇴 후 일거리와 먹거리 걱정을 안 할 경우라면 더욱 그렇다.  
모든 지도자는 은퇴 후 앉았던 자리가 서 있던 자리가 청결하고 청결해야 한다. 그것은 늙을수록 자기 몸관리, 정신관리, 신앙관리를 잘해야 하는 이치와 같다. 떠난 자리에 정신적 비움이 수북이 쌓여 있거나 영적 쓰레기가 나뭇구멍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노인 일수록 자기관리가 철저해야 한다.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인 김일순 박사가 쓴 글 가운데 "숨겨야 할 노인본색 여덟 가지"라는 글이 있다. "예전에는 안 그러더니 요즘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라는 말을 들으면 '아 내가 늙기 시작했구나'라고 생각하게 된다면서 젊은이들에게 노인취급 당하지 않으려면 나이를 숨길 게 하나라 노인본색부터 숨겨야 한다는 것이다.  
①얼굴이 무표정해진다. 화난 듯 무표정한 얼굴은 상대방에게 호감을 얻지 못한다. 얼굴에 주름과 검버섯이 가득해도 미소나 웃음은 상대방에게 나이를 잊게 만드는 효력이 있다. ②불만이 많아지고 잔소리가 심해진다. 나이가 들면 사회가 돌아가는 모습이나 젊은이들의 행동 등 모든 것이 못마땅하다. 하지만 실제로 현재가 과거보다 낫다. 단지 우리와 다를 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자. ③사소한 일에도 화를 잘 낸다. 화를 잘 내는 것도 노화현상이다. 화를 내면 상대방 뿐 아니라 화를 낸 자신의 건강에도 해롭다. 화를 다스리는 법만 익혀도 수명을 크게 늘릴 수 있다. ④감사하다는 말에 인색해진다. ⑤몸에서 냄새가 난다. 노화로 인해 피부대사가 불완전해져 자칫 냄새가 날 수 있다. 항상 목을 깨끗이 하고 내복 등 옷을 자주 갈아입자. ⑥주위가 지저분해진다. ⑦옷 색깔이 칙칙해진다. 나이가 들면 밝고 화려한 색깔의 옷을 기피하게 된다. 밝고 화려한 색깔은 활기가 보일 뿐만 아니라 정신건강에도 좋다. ⑧허리가 구부정해진다. 운동을 하지 않아 척추가 굳어지기 때문이다. 나이에 맞는 체조 등으로 체형을 반듯하게 유지하도록 하자.  
김 교수가 지적한 노인본색이 드러난다면 어느 누가 그를 반길 것인가? 여기저기서 따돌림받고 사람들이 곁을 떠난다면 얼마나 슬픈 노후인가?  
필자에게도 청춘 시절이 있었다. 나팔바지도 입어 보았고 장발도 해보았다. 그리고 은퇴니 원로니 하는 것들이 나와는 상관없는 먼 나라 이야기라고 여겼다. 그러나 누가 가고 오는 세월을 막으 수 있는가? 누구는 늙고, 누구는 젊다는 공식은 없다. 지금 한창 사역현장에서 기업을 토하는 아무 아무개도 머슴은 날 은퇴군에 설 것이다.  
원로목회자가 지켜야 할 덕목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목회하던 B목사님 이야기가 떠오른다. 오래전 고인이 되셨지만 40대 초반에 담임목사가 되었고, 신학교 강의, 부흥회 인도, 총회장 사역까지 화려하고 분주한 날들을 보냈다.  
50대 초반이던 어느 주일 낮 설교시간에 "저는 65세에 은퇴하겠습니다"라고 선포했다. 65세가 가까워지자 당회원들 사이에 목사님 은퇴 준비 이야기가 술술 나돌기 시작했다. 총회가 정한 정년이 70세인데 왜 은퇴를 해야 하느냐는 사람들과 목사님이 공언하신 사안이니까 65세에 은퇴를 해야 한다는 사람들로 양분화 현상이 일면서 교회가 시끄러워지기 시작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던 B목사님은 약속대로 65세 되는 해 12월은 은퇴하겠다고 선언하고 교회 내분을 수습했다. 그리고 65세 되는 해 12월말 교회를 떠났다. 은퇴 후 3년이 지난 어느 날 B목사님이 필자에게 남긴 말은 "절대로 조기 은퇴한다는 말 하지 마시오"였다.  
은퇴나 정년은 '오너라, 오지 마라' 하는 것과 상관없이 빠른 템포로 다가온다. 그러면 서 나는 예외겠거니 하는 착시현상을 일으킨다. 목회란 지금 잘나간다고 빼길 필요도 없고, 잘 안된다고 자학할 필요도 없다. 젊다고 기고만장할 이유도 없고, 은퇴가 내일모레라고 절망할 필요도 없다.  
평소 필자가 생각하고 지키는 원로의 설 자리에 대해 몇 가지 나누면 다음과 같다. (계속)

# 2015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전

해외한인 크리스천들이 양질의 신앙도서를 읽고 믿음과 삶, 그리고 사역이 보다 더 영적으로 건강하게 되길 바라는 취지에서 본 협회는 아래와 같이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전을 실시합니다.

- 1. 대상 : 한국을 제외한 해외 거주 한인 평신도 및 목회자, 선교사, 사모 등
- 2. 방법 : 추천도서 6권중 한권을 선택하여 읽은 후 독후감을 제출하되 분량은 Letter 또는 A4 size 3페이지(글자크기 10포인트, 줄간격 160%)며, 제출마감일은 2015년 10월 15일 미서부시간 오후 5시까지입니다.
- 3. 제출처 : 이메일 wkcmmailbox@gmail.com로 제출하되 응모자의 이름, 직분, 출석교회, 전화번호, 거주지 주소를 꼭 명시해 주십시오.
- 4. 시상 : 심사위원회를 거쳐 선정된 최우수상 1명, 우수상 2명, 장려상 3명을 11월 1일 경 발표합니다. 이들에게는 상장과 함께 각각 US \$500, \$300, \$200씩의 부상이 전달되며 선정된 독후감은 본 협회 회원사들의 지면 및 인터넷 신문과 방송을 통해 발표됩니다. 시상식은 12월 초에 로스엔젤레스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주최 : 세계한인기독언론협회(회장 박재호 목사)  
World Korean Christian Media Association



남미복음신문(상파울, 브라질)  
미주기독신문(시애틀, 미국)  
미주기독교방송(로스엔젤레스, 미국)  
미주복음방송(로스엔젤레스, 미국)  
미주크리스천신문(NY, LA 미국)

아멘넷(뉴욕, 미국)  
유럽크리스천신문(프랑크푸르트, 독일)  
크리스찬 미디어(시애틀, 미국)  
크리스찬 월드(토론토, 캐나다)  
크리스찬 리뷰(시드니, 호주)

크리스찬 포스트(토론토, 캐나다)  
크리스찬 타임스(샌프란시스코, 미국)  
크리스찬 투데이(로스엔젤레스, 미국)  
크리스천 위클리(로스엔젤레스, 미국)  
크리스천 헤럴드(로스엔젤레스, 미국)

### 후원 \*도서구입처

기독교서적 323-737-7699 www.koramdeo.com  
두란노서원 213-382-5400 www.duranno.us  
말씀사 714-530-2211 www.lifebook.co.kr  
베델서적 949-854-9191 bethelbook@hotmail.com

### 추천도서



임영가족, 흥성사



데이빗 플랫 저, 두란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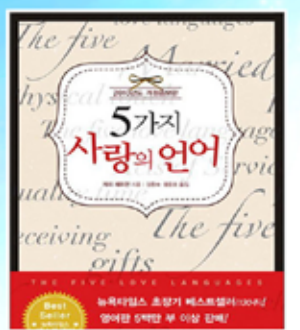
일리스터 맥그래스, 성서유니온



김미진 저, 규장



데이비스 케넌 저, 국제제자훈련원



게리 채프만, 생명의말씀사



# 빛과 소금으로...



염규서 목사  
(월서크리스천교회)

## 다시 한번

두 주일 전 2년에 한번 씩 열리는 교단 전국 총회에 참석하였습니다. 올해는 오하이오 주에 있는 콜럼버스 주도에서 열렸습니다. 총회 장소까지 차를 타고 가게 되었습니다. 서부를 지나 록키 산맥을 가로질러 가는 여정이었습니다. 서부를 벗어나 중부로 가는 길에는 신앙의 보수적인 면모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거대한 십자가를 세워 놓

은 곳, 커다란 광고판에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는 구세주입니다.” 언덕위에 세 개의 십자가 등 곳곳마다 믿음의 흔적을 볼 수 있었습니다. 총회 오프닝 예배는 수천 명이 필립스 컨벤션센터에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모든 인종들을 존중 여기는 교단특성에 걸맞게 찬양대가 한국어로 찬송을 불러주는

모습은 인상 깊었습니다. 헌금 시간도 되어 헌금 위원들이 줄지어 헌금바구니를 들고 입장하였습니다. 헌금 위원들은 모두 평균연령이 60세 이상 인 듯 보였습니다. 순간 주변을 둘러보니 그 넓은 컨벤션 센터에 가득 모인 분들이 모두 연세들이 지긋한 분들이었습니다. 물론 청년들과 학생들, 영 유아부들은 각기 다른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지만 젊은 장년들은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더욱 마음을 무겁게 누르는 것은 헌금 시간에 화면을 통해 수 없이 많은 이름들이 기록된 영상이 상영되고 있는데 그 이름들은 지난 2년 전 총회 후 하나님 결로 가신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명단이라는 것입니다.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저리 많으니 평신도님들은 얼마나 더 많을까 생각하니 한숨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위기와 긴장감에 손에 힘이 주어졌습니다. 총회를 뒤로하고 마지막 방문지인 시카고로 향했습니다. 시카고로

가는 길에도 곳곳마다 커다란 간판과 십자가로 위로는 받았습니다. 시카고에 거의 도착할 무렵 타이어를 체크하라는 신호가 떠올랐습니다. 정비공장을 찾기 위해 가까운 마을로 갔습니다. 마을 중심에 이르자 큰 예배당이 부락마다 세워져 있었습니다. 대리석으로 잘 지어진 예배당은 그 규모가 웅장했습니다. 순간 조수석에 타고 있던 아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보 이 예배당들이 폐허된 것 같아!” 차를 세우고 자세히 보니 예배당 아래는 멀쩡했지만 위를 보니 창문이 깨져 있고 관리가 전혀 되어있지 않아보였습니다. 예배당 건축이 1874년인 것으로 보아 무디가 시카고를 순회하며 집회를 했을 무렵으로 보였습니다. 무디는 1868년부터 영국의 소년 선교사인 무어하우스와 함께 시카고에서 순회집회를 하였고 1870년에는 유명한 음악가 생키(Ira D.Sankey)와 합류하여 시카고 화제 전 후 지역 복음화에 앞장섰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동안 거리에서 보았던 커다란 입간판과 십자가로 인해 용기와 힘을 얻었던 것이 한순간 사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시카고에 당도하니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1871년에 대 화재로 인해 폐허가 되었던 시카고는 아름다운 건물들로 가득했습니다. 시민공원에서는 가족들을 위해 무료 영화를 상영하였고 커다란 벽에 영상이나 사람얼굴을 비추고 그 사람이 입에서 나오는 분수는 신기하게 가 짝이 없었습니다. 스텐으로 만든 도너츠 모양의 조형물은 비추는 각도에 따라 사람의 모습이 달라 보였습니다. 특히 110층으로 이루어져 있는 Sears Tower는 3년 동안 7만6000톤의 철재와 1만6000명의 인부를 동원해 1973년에 완성되었다고 합니다. 건물에 입장을 하자 간단히 시카고를 소개하는 슬라이드를 감상하고 103층 스카이트 전당대로 올라갔습니다. 시속 33km의 초고속 엘리베이터가 55초 만에 운행된다고 합니다. 말처럼 정말 빠른 속도로 전망대에 도착했습니다.

몇 해 전 고국 방문길에 남산타워를 올랐었습니다. 남산과위에서 바라본 서울의 야경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더욱 마음이 흐뭇했던 기억은 짝짝이는 불빛 사이로 수많은 십자가의 불빛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카고의 야경은 그저 짝짝이는 건물의 현란한 불빛 뿐 서울야경에서 느꼈던 감동은 없었습니다. 불길같이 일어났던 복음의 열정들이 사라진 도시를 바라보며 또한 전국총회에서 보았던 연로한 성도들과 낡고 폐허된 예배당의 모습이 떠올라 마음을 무겁게 하였습니다. 또 다시 성령의 뜨거운 바람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건물 유리벽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바람 같은 성령, 불같은 성령이 쇠퇴기로 있는 미국 땅에 '다시 한 번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소서' 간절히 기도해봅니다.

# 푸 / 른 / 초 / 장

이규섭 목사  
(퀸즈한인교회)



절대 절명의 위기를 경험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긴 한숨과 함께 '이젠 끝이다. 절망이야'라는 고백을 해보셨습니까? 그것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의 느낌이었습니까. 우리도 때로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앞에서 홍해를 갈라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마치 성난 바다처럼 여러분을 집어삼키려고 위협하는 것들이 오려 여러분의 탈출로가 될 것입니다.

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법칙은 모두 10가지입니다. 법칙 1/하나님은 당신과 늘 함께 하신다. 법칙 2/나의 안전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라. 법칙 3/적을 인식하되 두 눈

알았지만 모세는 기적을 보기 이전에 그 믿음이 있었다. 법칙 14/홍해가 바로 그들의 탈출구였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막다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우리 인생 가

다. 그래서 그들 앞에서 바로왕과 그의 군대가 얼마나 허약한 존재인지 보여주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는 눈앞에서 수장을 시키는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한나디로 그들은 별 볼일 없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서 주제를 찾으면 4. 18절에 언급된 '나를 여호와인줄 알리라'로 말할 수 있습니다. 홍해 사건은 하나님께 하나님 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방법이었습니까. 믿는 사람들에게 왜 위기가 오

는 일에 실제로 사용된 것은 모세의 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홍해바다를 가르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손을 뻗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섰으면, 홍해 바다를 향하여 믿음의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아무리 좋은 말씀이 많아도 순종하는 행위가 없으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고, 치료가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홍해가 도도히 흐르고 있습니다. 광야는 우리를 함정에 빠트리려 합니다. 원수가 바로 뒤까지 우리를 바짝 쫓고 있습니다.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고 미래는 불투명합니다. 그야말로 진퇴양난입니다. 그러나 바로 이때,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하더라도 믿음을 가진 당신의 자녀들을 그냥 방치하지 않습니다. 그 자녀들을 위해, 홍해를 가르려는 한이 있더라도 반드시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 홍해의 법칙 (출애굽기 14:15-16)

출애굽 사건은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사건입니다. 도대체 어떤 민족이 430년간의 종살이에서 해방된 민족이 있습니까? 그야말로 이스라엘민족은 해방을 위한 아무런 준비도, 계획도 없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로버트 모건이 쓴 '홍해의 법칙'이란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머리말에는 '인생의 위기를 한 번에 역전시킬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매력적인 표현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정말 그 말대로 인생의 위기를 한 방에 역전시킬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법칙'이라는 표현처럼 마치 방정식과 같이 말씀 속에 '나'를 대입하면 그

은 주님을 주시하라. 법칙 4/기도하라. 법칙 5/잠잠히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라. 법칙 6/확신이 서지 않으면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으라. 법칙 7/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마음속에 그려보라. 법칙 8/하나님 자신의 독특한 방법으로 구원하실 것을 믿어라. 법칙 9/현재 위기를 장대 믿음 성장을 위한 디딤돌로 받아들여라. 법칙 10/하나님 찬양하는 것을 잊지 말라. 여기에 제가 몇 가지를 추가해 보았습니다. 법칙 11/하나님께서 원망과 있는 동안에도 그들 위에는 구름기둥이 있었음을 기억하라. 법칙 12/모세는 하나님의 방법을 몰랐을 뿐,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고 있었다. 법칙 13/사람들은 애굽 군대의 수물을 보고야 여호와를 믿고

운데도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 왜 하나님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까요? 이스라엘은 430년간 종살이 생활을 하면서, 바로가 얼마나 두려운 존재인지, 뼈에 사무칠 정도로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본문에 자주 등장하는 '바로왕과 그의 군대'라는 말만 들어도 그들은 오금을 퍼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노예근성으로 가득 찬 이들이었습니다. 마치 일제 강점기 때에 한국에서는 '일본 순사'를 그렇게 무서워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당시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했던 그들이었지만 해방을 경험했다면 그 두려운 마음이 사라져야 마땅한 것처럼 바로왕을 두려워하던 노예근성이 사라져야 할 텐데 그것이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두려움과 노예근성을 말끔히 씻어주시기 원하셨습니

다. 말씀대로 사는데 왜 막다른 골목에 갇히게 됩니까? 진퇴양난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과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됨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모세가 막다른 상황 속에서 '홍해바다를 통과해야겠다'는 기상천외한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모세는 그런 계획을 감히 상상도 못했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홍해바다를 가르고 앞으로 전진하는 하늘의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문제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마마보이가 되길 원치 않습니다.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하는 기적의 사람들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이라는 믿음이 분명히 있었습니까. 그래서 13절에서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담대히 선언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구원해주시는 것이라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구원해주시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기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16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16절부터 27절까지 읽어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의 손'입니다. 홍해바다를 가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홍해바다가 갈라

지는 일에 실제로 사용된 것은 모세의 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홍해바다를 가르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손을 뻗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섰으면, 홍해 바다를 향하여 믿음의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아무리 좋은 말씀이 많아도 순종하는 행위가 없으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고, 치료가 될 줄 믿습니다.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 GRACE THEOLOGICAL SEMINARY

1. 76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2.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복음주의 신학교(ATS 정회원)
3. 미국에서 유일한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한국어 프로그램 (Online 강의, On Field, On Campus 강의로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음)
4. 특전 (1) SEVIS I-20 Form 발행, (2) FAFSA(연방정부학자금) 지원가능(영주권자 이상), (3) 각종 장학금 제도

모집 ● 문화교류학 박사과정(D.Ics)  
과정 ● 목회학 박사과정(D.Min.)

### On Campus Courses 2015 가을학기 강의 안내

- Sept 28-Oct 2(9월 28 -10월 2일)  
DI 8170 Methods of Social Research/Research Design  
(사회조사방법론/리서치디자인)  
For D.Ic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Tom Stalter & Dr. Stephen Park
- Oct 5-9 (10월 5-9일)  
DI 8150 Contextualization for Meaningful Ministry  
(의미있는 사역을 위한 상황화)  
Oct 8(10월 8일) 특강: Dr. Scott Moreau  
For D.Ic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필수과목)  
Dr. Thomas Stalter
- DI 8220 Cultures of the Old Testament (구약에서의 문화)  
For D.Ic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Tiberius Rata

\* 한국어로 취득할수있는 ATS승인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는 본교에만 있습니다 \*

## 그레이스 대학/신학대학원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http://www.grace.edu

총장: Dr. William J. Katip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대표전화: 574-372-5100 (Ext.: 6335), 574-377-2619(한국어)  
E-mail: parkrc@grace.edu, gtskoreanstudies@gmail.com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 “Personal Privacy Protection Act” 긴급서명운동

자녀들의 “성적 & 개인적 사생활 자유 보호”를 다시 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 - 끝까지 놓치지 마세요 “AB1266 폐지운동”, 지금이 끝낼 수 있는 기회입니다.

2013년 AB1266이라는 사악한 법안이 시민들과 학생들의 의견도 묻지 않은 채 자유주의 민주당 정치인들 사이에서 제출되어 통과된 후, Jerry Brown CA주지사가 단숨에 서명함으로써 2013년 여름에 통과되어 버렸습니다. 미처 시민들이 아무런 행동(action)을 취할 수 없을만큼 빠른 시간에 통과되었던 AB1266 법안을 폐지시키기 위해 “Privacy for Students”라는 연합 기독교 단체가 형성되었고, 한인교회들뿐 아니라 수많은 미국교회들까지

화장실과 탈의실을 남자와 여자 학생들이 같은 공간, 같은 장소에서 함께 혼용으로 사용하게 허락하는 상황할 수 없이 사악한 법안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AB1266에는 학생들이 느끼는 그들의 “성적 감정, 기분” 외에는 어떤 기준과 원칙이 없기에, 선생님들은 아이들의 말에만 의존하여 남녀 혼용을 허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위험한 것은 학생들이 원하지 않는데 선생님들이 의무적으로 학생들에게 혼용을 권할 수도 있게 됩니다.

AB1266이 지금 캘리포니아 학교들만에 법적으로 허락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미 이 법안을 시행하고 있는 학교에 다니는 여학생들과 남학생들은 집에 와서 학교화장실, 탈

Personal Privacy Protection Act(PPPA) 서명운동에 꼭 참여해야 하는 이유

첫째, 새로운 법안(PPPA)이 정식으로 법안이 된다면 우리 자녀들이 공립학교에서 더 이상 남학생, 여학생들이 “같은” 시간에, “같은”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까지 “동시에 함께” 써야하는 매우 불편하고 위험한 시간들과 상황들을 법적으로 피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지금 오바마정부와 캘리포니아 민주당이 이제는 우리 어른들만들까지 정부기간 빌딩에서는 남녀 혼용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을 사용하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기에 거기에 대해 어른들도 보호받을 수

이미 캘리포니아에는 몇년전부터 “소아성애자의 권리를 인정하고 정상적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법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다행히 아직 통과는 안되고 있지만 민주당 자유주의 정치인들은 기회만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순진한 우리 자녀들의 가치관을 먼저 혼돈시킴으로 그들이 성적정체성을 잃고 혼돈하여 “소아성애자”도 정상이고 좋은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믿도록 공립학교에서는 계속 세뇌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 여학생들의 나이가 줄어든 유럽

유럽의 나라들 중 동성결혼이 합

### PPPA 법안에 서명(11월 20일까지 50만명)해야 하는 이유:

#### 남녀학생이 동시에 같은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사용 반대

지 “AB1266 폐지 서명운동”을 열정적으로 펼쳤습니다.

그 결과, Privacy for Students 연합 기독교단체는 캘리포니아 주정부 부가 요구한 숫자의 서명보다 훨씬 더 많은 시민들의 서명을 주정부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캘리포니아 국무장관(Secretary of State of California)이었던 Debra Bowen에 의해 불분명한 이유로 엄청난 숫자들의 서명들이 무효화 되고, 무효화 된 서명들에 대해 전혀 동의할 수 없었던 Privacy for All Students 기독교연합단체는 범정부 쟁을 지난 2년간 치열하게 논쟁해왔습니다. 결국 2014년에 새롭게 뽑힌 캘리포니아 국무장관 및 관련자들과 Privacy For All Students 팀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협상하여 이번에 새로운 법안인 Personal Privacy Protection Act 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2013년에 통과되었던 AB1266 가 얼마나 위험한 법안인가?

AB1266은 캘리포니아 유치원생들부터 고등학생들까지 남녀의 생리적인 성향(biological sexual orientation)이 아닌, 학생들이 그날 그날 느끼는 (감정적) 성향으로 초중고등학생들은 샤워실, 탈의실, 화장실까지 같은 공간, 같은 장소에서 남녀 혼용을 허락하며, 유치원생들은

부실하게 가는 것이 매우 불편하다고 부모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쁜 마음을 가진 남학생이나 여학생들에 의해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같은 곳은 강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으며, 공공연하게 학생들 사이에서 오픈 섹스, 그룹 섹스까지도 가질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는 심각한 위험이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이런 문란한 성행위들은 대학교 학생들 사이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 학부모와 교회교역자들이 모르고 있으면 안될 것입니다.

“Personal Privacy Protection Act 법안”을 이끄는 단체는 누구인가?

2015년 8월부터 새롭게 시작된 “Personal Privacy Protection Act 법안”을 이끌어가기 위해 탄생된 기독교연합 단체 이름은 “Privacy for ALL”입니다. 이 단체는 Privacy for All Students를 이끌던 똑같은 대표 단체들(한인대표-Tvnext를 포함) 외에 몇몇의 기독교 단체들이 더 모여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단체 이름을 바꾼 이유는 지금의 새로운 법안(Personal Privacy Protection Act 법안)은 학생들 뿐 아니라 어른들의 사생활 자유까지 함께 지키고 보호해 줄 수 있는 법안이기 때문입니다.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법안인 Personal Privacy Protection Act가 정식 법안이 되려면 아래와 같은 긴급 액션(Action)을 저와 여러분이 취해야 합니다.

1. 이번 11월 15일까지 Personal Privacy Protection Act 서명운동에 적어도 365,880명의 “유혹서명”을 받아서 11월 20일까지 새크라멘토 사무실에 모든 서명들이 도착해야 합니다.
2. 무효화 될 수 있는 서명들을 고려하여 저희들은 적어도 500,000명의 서명을 받고자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3. 이렇게 11월 20일까지 보내진 서명들이 합격하면 그다음 절차는 바로 2016년 시민투표에 올려질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4. 2016년 시민투표를 통해서 충분한 국민들의 투표가 있으면 이 법안은 정식으로 법안으로 통과되고, 우리 자녀들과 시민들은 AB1266 악몽에서 더 이상 법적으로 준수할 필요도 없고, 우리 자녀들도 어른들도 개인적 성적 프라이버시에 대한 자유를 다시 누릴 수 있게 됩니다.
5. 만일 캘리포니아가 계속 이원식으로 학생들의 성별을 혼돈시키고 세뇌교육 시킨다면 유럽처럼 아이들이 어른과 성관계 가질 수 있는 나이를 낮추는 것도 시간문제일 수 있습니다.

법화된 나라들은 몇 년 안가서 어린 아이들이 어른들과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 나이를 18세에서 16세, 또는 16세에서 이제는 12세까지 내린 곳(Spain은 7월 2015년에 다시 16세로 올림)들이 생각하고 있는 실정이며 미국은 이런 유럽을 고스란히 따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미국, 유럽, 한국은 사탄이 주는 사자와 같이 바로 우리들의 소중한 자녀들, 다음세대를 삼키고자 밤잠도 자지 않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부모들, 교회들이 깨어 기도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싸우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은 더 이상 설자리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서명하는 방법과 더 자세한 내용은 Tvnext.org로 가시면 보실 수 있으며 저희가 각 교회 교역자님들과 교회회회들을 통해서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카톡, 이메일을 통해서도 소식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귀한 자녀들의 프라이버시와 자유를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꼭 서명운동에 동참해 주세요! 질문, 후원, 동참은 tvnext.org@gmail.com으로 해주세요.

###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E-Mail: tispoc0316@gmail.com

Q: 우리가 사는 이 화려하고 찬란한 현 세상의 문화는 점점 약해져가고 반 기독교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현 세상 문화의 종말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경고하고 있는지요? 성경적인 근거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A: 오늘날의 물질문명과 찬란한 세속 문화를 상징하는 이 세상은 장차 어떻게 될까요? 그것에 대한 해답은 계시록 18장에서 나옵니다. 이 세상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어느 시점에 급작스런 종말과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고대의 물질문명의 화려한 도성의 상징이었던 “바벨론”으로 묘사했습니다. 이 세상은 바벨론이 하루에 망한 것처럼 그렇게 갑자기 망한다는 것입니다. 고대 바벨론이 어떤 나라입니까? 선민이었던 유대나라를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이 제국은 엄청난 군사적인 힘과 경제적인 힘과 찬란한

#### 세상 문화는 어느 시점에 급작스런 종말과 끝이 와

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기에 누가 도전하기 힘든 신성불가침의 제국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 어떻게 망했습니까? 다니엘서 5장을 보면 벨사살 왕 때에 하루는 귀인 1000명을 초대하여 술잔치를 벌이면서 그 부친 느부갓네살 때에 예루살렘 침공 때 가져온 예루살렘 성전 은 금 그릇 등 기물들을 가져오게 하고는 그것을 술잔삼아 술을 마시며 자기들의 신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그 때 사람의 손 하나가 갑자기 나타나 벽에다 글을 썼습니다. “메네 메네 데렐 우바르신”이란 글을 썼습니다. 그 뜻은 “당신이 하늘의 주재인 하나님을 거역하여 교만하게 행하였으므로 왕의 나라를 끝내게 하겠는데 그 이유는 “왕이 하나님의 저울에 달려서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갑자기 메데파사 군대가 침략하여 바벨론제국은 하루 밤에 망하게 되었습니다. 전혀 말할 것 같던 나라가 너무나 어처구니없이 하루 밤에 망하였습니다.

사도요한 당시에 제2의 바벨론 같은 나라가 당시 로마제국이었습니다. 로마제국은 이탈리아 반도 및 지중해 전체를 지배했던 고대 서양의 최대의 제국입니다. 고대 바벨론 제국처럼 정치 군사력 힘과 부와 찬란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침몰하지 않는 군함 같은 신성 로마제국이 누구에게 망했습니까? 주후410년 야만족이라 할 수 있는 고트 족에게 로마는 어처구니없이 점령당하고 망하게 된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계시록 17장에서는 음녀로 표현했고 18장에서는 바벨론으로 표현했습니다. 이 세상문화는 사치와 음행을 가지고 믿는 성도들을 유혹하여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기에 음녀라고 표현했고 이 세상을 바벨론이라고 부른 이유는 고대 바벨론이 우상숭배를 하며 성도를 핍박한 것처럼 이 세상도 짐승의 하수인이 되어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며 성도를 핍박하는 적그리스도의 편에 설 것이기 때문에 바벨론으로 표현했습니다. 그것이 계 18장에 네 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8절, 10절, 17절, 19절에 보면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러니, 일 시간에 심판이 이르렀다, 일 시간에 망하였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 미주합동대학교·신학대학원 학생모집

Miju Hapdong University & Theological Seminary

본 교는 1976년 Los Angeles 장로회 신학교로 처음 개교하였습니다. 1980년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총회의 결의로 미주대회 신학대학으로, 그리고 1991년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총회의 결의로 미주총신으로 세워져 정통적인 보수신학을 가르치는 신학교로 발전하였습니다. 2013년 제34회 미주합동총회의 결의로 미주합동총회의 직영신학교로 지나온 역사와 전통을 이어받아 세워진 신학교입니다. 본 교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로부터 비영리 기독교 교육기관으로 정식 인가를 받았으며, 이 시대를 복음으로 이끌어갈 충성된 사역자 양성을 목표로 세워진 하나님의 선지학교입니다.

학생모집 학위	수업연한	입학자격
신학사 (B.A.Th.)	4년	고졸 및 동등 자격
종교학석사(M.A.R.)	2년	대졸 및 동등 자격자
목회학석사(M.Div.)	3년	대졸 및 동등 자격자
목회학 박사(D.min)	2년	M.div 학위를 가진 목회자

- 공개강좌: 강사 : **이중식 박사** (총장, 뉴욕 베이스사이드교회 담임목사)
- 2015년 8월 18일(화) 오전 10:00-12:30
- 개강예배: 2015년 9월 8일(화) 오전 11:00
- 장 소: **L.A 언약교회**(고귀남 목사 시무)
- 준비사항: 점심식사 제공함
- 111 N, Virgil Ave Los Angeles, CA 90004
- 연락처 (213)500-1468 e-mail : cap7shin@gmail.com

### 미주합동대학교 · 신학대학원

이사장 최순길 박사 총장 이중식 박사 교무처장 신상원 박사

## 구독신청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 1년 구독료	미국 .....	\$100	유럽 .....	\$190
	캐나다 .....	\$110	남미 .....	\$190
	한국및 동남아시아 .....	\$190	아프리카 .....	\$190

신청 유형	<input type="checkbox"/> 본인구독	<input type="checkbox"/>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냄
구독자 이름 (혹은 후원자이름)	한글 : _____	목사 <input type="checkbox"/>
	영어 : _____	평신도 <input type="checkbox"/>
배달 주소	_____	
전화/Fax	( ) ( )	
★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내는 경우에는 받는 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받는분 이름	한글	영어
전화번호/Fax	( ) ( )	( ) ( )
배달 주소	_____	
교회/기관명	_____	

▶ E-mail로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E-mail : ny@chpress.net

신청일자: 20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_\_\_\_\_

★ 저희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A: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46 E-mail : la@chpress.net

· N.Y: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증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인도네시아의 레장(REJANG)



레장족은 수마트라(Sumatra)섬의 바리산(Barisan) 산봉우리들을 따라 펼쳐지는 열대다우림 지역에 산다. 수마트라섬은 인도네시아 군도 중에서 가장 큰 섬으로 주민들은 5개 주요 지역별 집단으로 나누어진다. 드장레본(Djang Lebon)족이 고지대의 기름진 땅에 살고 있으며, 무시

(Musi) 계곡에 드장 무사이(Djang Musai)족이 살고 있고, 인도양 해변가에 드장 레이(Djang Lai)족이 살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 두 집단은 산악 지방에 사는 드장 베클라우(Djang Bekulau)족과 드장 아베우스(Djang Abeus)족이다. 사테위스(sadeuis)라 불리는 레장족의 마을은 적게는 15가구 정도, 많게는 900가구 정도의 규모로 다양하게 형성되었다. 관계수로가 가능한 지역의 마을에는 400명 이상의 사람도 살기도 한다. 각 사테위(마을, sadeuis)의 기원을 찾아가다보면 그들이 다른 마을 하위 씨족의 후손임을 확실히

된다. 레장족은 수 세기 동안 외부 세계로부터 고립되었다. 그들은 자신의 역사를 상당히 존중하며 지켜왔고 다른 외부 문화에 대해서는 예민하게 경계했다. 이러한 이유로 그들은 매우 의심이 많고 외부인에 대해 닫혀진 마음을 갖게 됐다.

삶의 모습

수마트라는 열대의 섬으로 덥고 습한 기후를 나타낸다. 쌀, 차, 커피, 야자 기름, 흑단, 경질 목재, 고무 등이 모두 생산된다. 레장족은 직업에 있어 여러 다양한 기회를 가진다. 일부는 식품가공공장에서 일하기도 하고 제조나 운송 장비 부분에서 종사하기도 한다. 또 어떤 이들은 나무, 금속, 가죽, 종이 등을 잘 다루는 장인으로 일하기도 한다. 전통적인 레장족의 집에는 손님

을 맞이 위해 "입구방(front room)"으로 알려진 열린 공간이 있다. 그들의 집 외부는 복잡하게 조각된 수평모양의 들보와 장식들, 화려한 화판들로 장식된다.

레장족의 주식은 쌀, 과일, 야채다. 여가 시간에는 음악과 시를 즐기며, 마을 회관에서 때때로 춤이 어우러진 축제를 연다. 사회 구조는 최근 그들의 이웃인 자바족 영향을 받았다. 각 마을 공동체를 이끄는 수령(headman)은 투표에 의해 선출되고, 모든 마을에는 "알레위(aleui)"라 불리는 긴 회관이 있어서 그곳에서 축제를 개최한다. 혼례 때 자녀가 어머니나 아버지의 가문과 씨족 중 어디에 속할 것인지 결정하게 된다. 과거에 일부다처제도가 일반적이었지만 현재는 더 이상 실행되지 않는다.

그들의 언어인 "레장 레본(Rejang-lebon)"어는 인도어에서 유

래됐다. 이는 아랍 문자가 인도네시아에 처음 소개됐던 아주 오래된 전 일로 레장레본어는 말레이어로 불리는 또 다른 인도네시아어와도 밀접히 연관돼있다.

레장족 남성과 여성은 모두 전통적으로 "싸롱(sarong)" 또는 "카인(kain)"이라 불리는 화려한 치마를 두른다. 싸롱은 몸을 감는 긴 천 조각이고, 반면 카인은 그와 비슷하지만 양 끝단을 함께 꿰매어 놓은 것이다. 남성은 바지나 싸롱에 셔츠를 입고 여성은 보통 싸롱이나 카인에 긴 소매가 달린 블라우스를 입는다.

신앙

예전에 레장족은 정령숭배를 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무슬림(이슬람을 믿는 사람들)과 수마트라섬 사람들과의 교역으로 인해 이슬람교가 13세기 말에 수마트라

지역 속으로 유입돼 오늘날 레장족의 이슬람교에는 정령숭배 의식을 혼합하게 섞여있다. 다른 이웃의 북부의 무슬림들보다 신앙적으로 이슬람교에 덜 헌신적이다.

필요로 하는 것들

1952년 영국 선교사들이 수마트라로 이주하는 것이 허락돼 레장족 가운데 사역해왔다. 그들의 열매 일부가 남아 있어 레장족 크리스천 소수그룹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다. 작은 기독교 교회가 레장족이 사는 지역 바로 북쪽에 세워져 있다. 그러나 레장어로 된 성경은 아직 없고 기독교 라디오나 텔레비전 방송도 없다. 일부 소수 선교 단체들이 레장족을 위해 사역하고 있지만 거의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현재 레장족 크리스천이 약 128명 정도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미 공화당 첫 토론 승자는... 트럼프 · 루비오 · 카시치

지난 6일 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열린 공화당 대선후보 경선 첫 TV 토론의 주인공은 단연 거침없는 발언을 쏟아낸 지지율 1위 도널드 트럼프였다. 미



미 공화당 대선후보 경선 첫 TV 토론의 주인공은 단연 거침없는 발언을 쏟아낸 지지율 1위 도널드 트럼프였다.

국 언론들은 내년 대선에의 서막을 알리는 이번 토론회 관전평에서 후보들을 승자와 패자로 나눴다. 트럼프는 토론회 시작부터 최종 경선 결과에 승복하지 않는 후보는 손을 들라는 진행자의 요청에 유일하게 손을 들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트럼프에 대해 "정상적인 정치적 예측을 뛰어넘은 사람"이라며 승자로 평가했다.

ABC뉴스도 그가 생각하는 것을 망설임 없이 정확히 말해 환호를 받았다고 평했다. 그러나 싫어하는 여성을 돼지, 개, 속물 등으로 부른 여성 비하 발언에 대해 "(동성결혼을 한 코미디언) 로지 오도넬한테만 했다"고 맞받아 불성실한 대응으로 패자 명단에 함께 이름을 올렸다.

10명의 후보 중 가장 젊은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플로리다)도 승자로 꼽혔다. WP는 루비오 의원이 자신에게 약점일 수도 있는 이민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도 준비를 갖추고 완전히 편안한 상태로 토론에 임했다고 평했다. 경험이 부족하다는 공격에도 그는 "선거는 이력서 경쟁이 아니다"라고 맞받았다. ABC도 그가 뛰어난 웅변술로 미래의 후보자로 자신을 각인시켰다고 평했다.

거침없는 트럼프를 들었다 놔둔 것은 존 카시치 오하이오 주지사였다. 그는 트럼프가 "정치인을 매수하지 않았느냐"는 랜드 폴 의원의 지적에 대해 "당신한테도 많은 돈을 주지 않았느냐"고 폭로하자 그 사이에 끼어들어 "내게도 정치자금 기부하라"고 말했다.

WP는 카시치 주지사가 초반 1시간 동안 트럼프를 공격했다 칭찬했다 하면서 합리적이고도 남들과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고 밝혔다.

인지도가 떨어지는 신경외과 의사 출신의 벤 카슨은 자기소개를 하기도 못했다. 하지만, 토론 후반, 특히 인종 문제를 이야기하며 "나는 그가 누구인지를 결정

하는 것(뇌)을 수술한다"며 "피부색은 그가 누구인지 결정하지 않는다"고 한 마지막 발언이 눈에 띄었다고 언론들은 전했다.

반면 트럼프 옆에 선 지지율 2·3위의 Jeb Bush 전 플로리다 주지사나 스포츠 워커 위스콘신 주지사는 이목을 끌지 못했다. ABC는 부시가 이번 토론회로 대권 도전에 흥미를 내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그에 대한 뿌리깊은 회의론을 불식시키지도 못했다고 평했다. WP는 토론회 승자와 패자를 꼽은 기사에서 아예 그를 언급하지도 않았다.

WP는 발언 기회를 거의 얻지 못한 랜드 폴 상원의원(켄터키)과 좋지도 나쁘지도 않았지만 대부분을 잃는 듯했던 워커 주지사를 패자로 꼽았다. ABC는 폴 의원과 크리스티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가 국가안보국(NSA)의 통신기록 수집 문제를 놓고 벌인 설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했다.

한편, 10위 밖으로 밀려나 이 토론회에는 참석하지 못했지만 칼리 피오리나 전 휴렛패커드(HP) 최고경영자는 하위권 후보들이 참여한 '2부 리그' 토론의 승자로 꼽혔다. WP는 그가 편안한 모습을 유지하면서도 국내의 문제에 정통한 모습을 보였다고 평했다. ABC는 민주당 유력 후보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공화당 후보들과 같은 무대에 있는 것처럼 자주 언급됐다고 그를 승자에 포함시키기도 했다.

옛소련권 중앙아시아 무장단체 IS에 복속 선언

옛소련권 중앙아시아에서 활동하는 극단주의 무장단체 '우즈베키스탄 이슬람 운동'(IMU)이 수니파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에 복속을 선언했다고 자유유럽방송(RFE)이 7일 보도했다.



IMU 최고 지도자 우스만 가지는 전날 공개한 영상에서 "우리는 이제부터 IMU가 아닌 IS다"라면서 "신 앞에 우리의 동맹을 맹세했으며 IMU는 지금부터 IS의 일부"라고 강조했다.

IMU 최고 지도자 우스만 가지는 전날 공개한 영상에서 "우리는 이제부터 IMU가 아닌 IS다"라면서 "신 앞에 우리의 동맹을 맹세했으며 IMU는 지금부터 IS의 일부"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활동하는 IMU 대원들에게 테러활동을 더욱 강화할 것도 주문했다.

IMU는 앞서 IS에 대한 지지를 선언한 바 있다. 가지는 작년 10월 성명에서 "성스러운 직무를 수행 중인 모든 IMU 대원들을 대표해 IS와 함께 이슬람과 비이슬람 간의 전쟁을 계속할 것을 선언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IS는 민족주의와 애국주의로부터 자유롭다"며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 등과 영여권의 많은 이슬람 전사들이 IS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고 그는 주장했다. 따라서 IMU의 이번 복속 발표로 IS의 중앙아시아 진출이 본격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중앙아시아는 전체 주민의 70% 이상이 이슬람교도지만, 각 당국의 강력한 통제와 러시아의 군사적 지원으로 IS가 아직 세력을 넓히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됐다.

폴란드의 국제문제연구소(PISM)가 올해 6월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중앙아시아 각국은 모로코보다 거리상으로 IS와 가깝지만, IS에 가담한 전체주민(1천400명)은 모로코(1천500명)보다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현지에서는 IS 가담세력이 테러를 모의하다 당국에 체포된 사례는 있으나 지금까지 테러가 발생한 일은 없다.

IMU는 한때 테러조직 알카에다와 협력했으며 중앙아시아에서 각종 테러를 일삼아 악명을 떨치고 있다. 2001년 미군 주도의 아프가니스탄 공습 후 현재 파키스탄을 근거지로 삼으며 작년 6월 파키스탄 카라치 공항을 공격해 수십 명의 사상자를 낸 무장단체로도 지목되고 있다.

"미 긴즈버그 대법관, 정치적 행보 말라"

한국교회연맹(대표회장 양병희 목사)은 미국 소수자와 여성 인권 향상의 대모로 불리는 루스 베인더 긴즈버그 미 연방 대법관이 방한해 성소수자들과 만났는데 이어 양성태 대법원장까지 만난 것과 관련 정치적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교회연맹(대표회장 양병희 목사)은 미국 소수자와 여성 인권 향상의 대모로 불리는 루스 베인더 긴즈버그 미 연방 대법관이 방한해 성소수자들과 만났는데 이어 양성태 대법원장까지 만난 것과 관련 정치적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한교연은 5일 "미국 긴즈버그 대법관의 방한 행보에 우려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성결혼 합법화를 주장하며 소송중인 김조광조-김승환 씨를 만나고 트랜스젠더를 초청해 격려하는 등의 행보를 하고 있는 것은 한국의 법질서와 윤리가치에 혼란을 줄 수 있는 정치적 행동이므로 삼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긴즈버그 씨가 성소수자들의 인권 뿐 아니

라 이들로 인해 무너져 내리는 한국 사회의 건전한 성윤리 가치를 지키고자 애쓰는 한국기독교교회의 노력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과 존중심을 갖기를 바라며, 자신의 편향적 행동이 한 나라에 대한 내정간섭으로 비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해 줄 것을 요청하는 바"라고 밝혔다.

힐송 휴스턴 목사 "동성커플이 리더는 불가"

찬양으로 전 세계에 많이 알려진 호주 힐송교회 브라이언 휴스턴(Brian Houston) 목사가 "동성애와 동성결혼에 대한 입장에 '절대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지난 2일 뉴욕 힐송교회의 콰이어단을 이끌었던 남성 2명이 공개적으로 동성애자임을 밝혀 논란이 일자 이 같이 밝힌 것. 휴스턴 목사는 4일 오전 자신의 트위터에 이 같은 내용을 올렸고, 이는 힐송교회 공식 트위터 계정에도 리트윗됐다.

힐송교회 웹사이트에는 '브라이언 휴스턴 담임목사가 전하는 성명'이 올라왔다. 휴스턴 목사는 성명에서 "뉴욕의 힐송교회에서 2명의 동성애자가 콰이어를 이끌었다는 비난에 대해 정확한 대답을 하고 싶다"며 "동성애자와 동성결혼에 대한 힐송교회의 입장은 성경과 일치돼 있으며 달라진 적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몇 달 전, 콰이어 단장 중 한 명이 함께했던 남성 대원과의 관계를 공개적으로 밝혔고, 이는 우리 모두에게 충격을 주었다"면서 "그 이후로는 그들이 적극적으로 리더십에 참여하거나 사역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고 있으며, 그들이 우리 모두와 같이 삶의 여정 가운데 있음을 알고 있다. 교회로서 우리의 역할은 여정 가운데 은혜와 긍휼로써 그들을 돕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휴스턴 목사는 "동성애자들의 예배 참석을 환영하고, 그들이 교인으로서 교회의 일에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들이 '적극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할 수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제프리 거더(Geoffrey Grider) 목사는 지난 2일 뉴욕 힐송 블로그에 조쉬 캔필드와 리드켈리가 약혼했다고 공개했다. 조쉬 캔필드는 힐송 콰이어 자원봉사 단 단장으로 알려졌다.

사람과 교회와 선교를 세워가는 사람들의 필독서!



**바로 그 교회**  
우리 지역에 꼭 있어야 하는 교회 세우기 목회 컨설팅!  
김성진 지음 / 416면 / 15,000원

중소형 교회가 많은 한국교회의 현실에서 그 지역에 맞는 <바로 그 교회>를 세워 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 중소형 교회도 성장할 수 있다는 최상의 가이드북.

중소형 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전제로 목회자에게 목회의 타격을 명확하게 하고, 목회의 ABCDE를 강화하고, 전략적 사고가 매우 중요함을 역설한다.



**이슬람 끌어안기**  
매우 균형감 있고 현실적인 무슬림 선교의 필독서!  
조르주 후스니 지음 / 신동철 옮김 / 280면 / 12,000원

현재 미국 내 무슬림, 그 중에서도 미국으로 유학 온 이슬람권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도 사역을 수십 년째 해온 베테랑 사역자가 최근에 펴낸 첫 번째 저서이다.

대한민국으로 몰려오는 외국인 근로자 20퍼센트는 아시아의 이슬람권 출신인 현실 속에 국내 무슬림 전도 사역에 영감과 도전을 줄 특별한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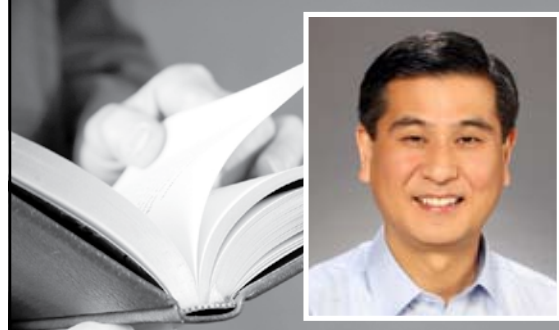


**목적을 찾아가는 삶**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이웃을 사랑하는 온유인 되게!  
안중필 지음 / 264면 / 12,500원

당신은 하나님의 목적을 만나본 적이 있는가? 목적을 찾아가려면 필수도구를 준비해야 한다. 또한 목적을 방해하는 장애물도 알고 있어야 한다.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출발선에서 머뭇거리며 고민하고 있는 이들, 그리고 한 두 번씩 일을 시작했다가 실패하여 좌절한 이들, 또한 지금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이들에게 희망을 찾아 줄 책이다.





# 교회역사를 보면 성경이 보인다 (31)

조진모 목사 (필라델비아한인연합교회)

## 1. 초대 교회 - 교부 (14) 변증 교부, 라틴학파 (1)

주님의 그 귀한 피로 값을 지불하시고 세우신 교회를 섬기는 것은, 그 어느 것보다도 비교될 수 없는 특권이다.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기 때문이라기보다, 하나님께서 인정해주시고 믿어주시다고 확신할 때에 헌신된 마음이 가능하다. 평생도록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을 받다가, 마지막에 넘겨지는 경우가 우리 주위에 자주 일어나고 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일과 연관되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이 자주 일어나지만, 교리적이고 신앙적인 면도 전혀 예외가 아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를 심히 당황하게 만든다.

질문: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을 받다가 이단으로 빠진 초대교회의 대표적 인물은 누구인가?

### 1) 교회 역사를 보면...

#### ■ 라틴 학파의 터툴리안

라틴 학파는 알렉산드리아 학파와 대조를 이뤘다. 헬라어를 사용한 알렉산드리아 학파가 헬라 철학과 신앙의 접목을 시도한 반면, 라틴 학파는 라틴어를 사용하면서 사도로부터 계승된 전통 신앙에 관심을 가지고 북아프리카

의 카르타고(현재의 튀니지)를 중심으로 발전하였다. 라틴 학파의 기초를 놓아 '라틴 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터툴리안(Tertullianus, 160-225)은 교회사에 널리 알려진 인물 중 하나이다. 그는 대부분의 신학이 헬라어로 통용되고 저술되던 시기에, 초대교회가 확장되면서 라틴어로

사용하는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이 전수되었다. 그들에게 올바른 신앙을 가르쳐주어 바른 전통을 세우는 일에 헌신하였다.

터툴리안은 총독의 관저에 소속된 군대 장교 집안에서 태어났기에, 부모로부터 철저한 교육을 받으며 성장할 수 있었다. 어려서부터 그는 모든 과목에 남다른 재능을 보였다. 무엇보다 그는 헬라어와 라틴어에 모두 능숙하였다. 이교도였던 그가 개종하게 된 동기가 무엇일까? 그는 로마 황제의 칙박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며 죽음을 선택한 순교자들의 모습에 충격을 받았다. 복음

의 진리를 받아들인 후, 복음을 수호하는 사명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평신도의 신분으로 평생도록 주님께 헌신하였다.

천재적인 언어구사 능력을 지녔던 그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 교회의 역사를 바꾸는 일에 사용되었다. 헬라어 신학 용어를 적절히 라틴어로 옮기거나 필요에 따라 신조어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 나아가서 그가 라틴어로 기록

이 책에서 그는, 범죄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도 없이 그저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 때문에 형벌을 내리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단언하였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인육을 먹고 근친상간과 영아 살해를 저지하지 않는 집단이라는 편견을 버려야 할 이유를 설명하였다. 이교도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였던 성찬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

다. "우리가 나누는 식탁 교제의 목적과 성격은 '아가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설명될 수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순수한 의미의 사랑을 가리킬 때 이 단어를 사용한다"(변증서, 39).  
나아가서 그는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에 유익을 주는 자들이라고 피력하였다. 어떤 반역하는 어떤 범죄를 짓지 않을 뿐 아니라, 도리어 국가를 위해 기도하며 충성스러운 행동을 하고 있다.  
터툴리안은 항상 순교자들의 피를 귀하게 여겼다. 죽음을 선택함으로써 자신의 신앙이 지닌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후대 교회에 명언을 남겼다. "당신들의 진인함은, 비록 그 것이 더욱 교묘해진다고 하더라도, 당신들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이 분파가 지닌 매력 가운데 하나이다. 당신들이 더욱 자주 우리를 소탕할수록 우리는 수가 더 많아질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피는 씨앗이다"(변증서, 50). 터툴리안은 순교자의 피에 교회를 살리는 생명의 씨앗이 들어있다고 믿었다. 계속되는 핍박과 환란 속에서도 교회가 생명력을 유지하는 분명한 이유를 변증한 것이다.

■ 사도의 신앙 계승  
교회는 자생된 신앙 규범을 지닐 수 있는가? 터툴리안의 다른

들이 신앙의 새싹과 교리의 씨앗들을 빌려왔으며, 지금도 매일 교회가 되기 위해 그것들을 빌려가고 있다. 이 교회들을 사도적이고, 사도적 교회의 후예라고 간주하는 것이 바로 이것 때문이다"(이 단자들에게 대한 항고, 20). 그러므로 신도들이 이단을 대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그들의 토론과 논쟁을 피하는 것이라고 믿었다.

터툴리안이 저술한 "말시온 논박"도 유명한 변증서이다. 2세기에 가장 위협적인 이단 중에 하나였던 말시온의 사상을 공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말시온의 대표적인 오류는 그의 신관에 있다. 구약의 하나님은 악을 만든 복수심에 찬 신이며, 신약의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의 신이라고 구분하여 소개하였다. 이에 대하여 터툴리안은 하나님은 한 분이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매우 강한 어조로 말시온의 이단 사상을 공격하였다. 그는 말시온은, 하나님은 "갑자기 또는 우연히 혹은 총동적으로 생겨난 것으로 간주될 수 없다. 그것은 어떤 것으로부터 생겨난 것으로 생각될 수도 없다... 말시온의 신은 '선함'을 부끄럽게 한다"고 주장하였다(말시온 논박, 3).

### ■ 이단 추종자

터툴리안은 대단한 조직신학자였다. 그는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신학자라는 사실을 널리 알려져 있다. 그는 활발한 저술 활동을 통하여 교리적 정통성을 지키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자이다.

(16면으로 계속)

## 삼위일체 처음 사용한 조직신학자 터툴리안도 마지막엔 이단에 빠져 배교는 원래 구원받지 않았거나 신앙유지 못한 경우... 결국 자기책임

한 신학서적은 향후 서방 교회의 영적 씨앗과 같은 역할을 하였다.

### ■ 변증가

터툴리안은 고난 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을 변증하는 일에 열정을 쏟았다. 그는 위대한 변증가였다. 이교도와 신앙인의 관점을 모두 섭렵하였고 법학을 전공하였기에, 그의 글과 말은 매우 논리적이었으며 설득력이 있었다. 특히 그가 초기에 저술한 "변증서"는 마치 초대 교회에서 활동했던 변증 교부들의 글이 지닌 중요한 요점을 종합하여 놓은 듯하다.

다. "우리가 나누는 식탁 교제의 목적과 성격은 '아가페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설명될 수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순수한 의미의 사랑을 가리킬 때 이 단어를 사용한다"(변증서, 39).

나아가서 그는 그리스도인들은 국가에 유익을 주는 자들이라고 피력하였다. 어떤 반역하는 어떤 범죄를 짓지 않을 뿐 아니라, 도리어 국가를 위해 기도하며 충성스러운 행동을 하고 있다.

터툴리안은 항상 순교자들의 피를 귀하게 여겼다. 죽음을 선택함으로써 자신의 신앙이 지닌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드러

업적은 이단에 대한 변증이다. 비록 이단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진리를 변형시킬 수 있다고 믿고 그렇게 행하고 있으나, 교회는 반드시 성경과 사도들로부터 계승된 신앙의 전통에 굳건히 세워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사도들은 먼저 유대 전역에 걸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증거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웠으며, 그 다음에 세계로 나아가 열방에게 동일한 신앙의 동일한 교리를 반포하였다. 똑같은 방식으로 그들은 모든 도시에 교회를 세웠으며, 이 교회들로부터 다른 교회

## 가정사역 칼럼

### 이혼과 한국인의 유교문화

김정진 사모 (FBM 디렉터)



이혼이나 별거로 고통을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한 모임을 하며 깨달은 것 중에 한 가지는, 어려움을 당한 당사자들이 자신의 문제를 드러내고 전문적인 도움을 받으려는 적극적인 자세를 갖기보다는 은닉하고 다른 일이나 봉사 등으로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당사자가 현실을 인정하고 이혼/별거가정 회복모임에 참여하기까지는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더욱이 한국인에게는 다른 종족보다 수치심과 거절감 그리고

죄책감 등이 더 많이 사로잡힌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한번은 이웃집 사람과 첫인사를 건네고 있는데 이웃이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지금 세 번째 결혼인데...' 하며 처음부터 이혼 재혼의 이야기를 스텝없이 처음 보는 나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한국 사람들과 참 다르구나'라고 생각했다. 그러면 왜 한국인에게는 이혼에 대한 수치심과 죄책감이 더욱 크게 집단 사회의식으로 자리 잡고 있을까? 그 이유에 대해 문헌을 찾

아 본 것들을 정리해 보았다.

전통적인 한국사회에서는 남성에겐 아내와 이혼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으며, 아내에게는 그런 권리가 주어지지 않았다. 그리하여 아내들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 처하면 이혼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 '시부모를 잘 공경하지 못했을 경우', '아들을 낳지 못했을 경우', '정조를 지키지 못했을 경우', '첩 등을 시가할 경우', '문둥병이나 간질 등의 유전병이 있을 경우', '너무 말 많을 경우', '도적질을 했을 경

우' 등이다.

한편, 다음의 세 가지 사항 중 어느 한 가지라도 해당될 경우에는 위의 사항들에 해당될지라도 이혼이 허락되지 않았다. '아내가 3년간 시부모의 제사를 극진히 모셨을 경우', '아내가 가계의 번영에 공헌했을 경우', '아내가 갈 곳이 없을 경우'이다.

전통사회에서는 현대와 달리 이혼율이 매우 낮았는데 그 이유로는 첫째, 구태어 이혼이라는 절차를 밟지 않아도 남편들이 쉽게 첩을 들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둘째, 조강지처를 버리는 남자들에 대한 사회적 시각이 부정적이었기 때문이다. 셋째, 딸은 출가 후에는 호적을 시집으로 옮기므로 이혼한 여자는 친정과 무관하게 되고 재혼할 수도 없었으며, 동시에 홀로 살 수 있는 경제력도 없었으므로 전통사회의 여성들은 시댁과 남편으로부터 어떤 학대를 받아도 참고 견딜

수밖에 없었다. 넷째, 이혼은 집안과 집안의 단절을 의미했기 때문에 쉽게 이혼을 할 수 없었다.

조선시대의 남성들은 아무리 많이 혼인을 해도 괜찮았으나 여성의 경우는 달랐다. 재가금지법이란 법에 의해 재혼한 여성은 마치 첩과 같이 여겨져 그녀의 자손들은 첩의 자손과 같이 과거시험을 볼 수가 없었으며 따라서 공직자가 될 수도 없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머니들은 아들들의 장래를 생각해서라도 재혼을 할 수 없었다. 조선 후기 오면서 양반층뿐 아니라 서민층 여성들까지 재가금지에 동참하였으며 사주단지만 받아도 수절을 하는 사례들이 생겨났었다.

이와 같은 전통적인 가치관 때문에 사회로부터 답답지 않은 시선을 받게 되어 이혼에 대한 수치감이 더해진 것 같다. 위에서 언급한 외국인같이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고 도움을 받으려는 것과는 달리 한국

인들은 이혼자로 하여금 깊은 죄책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하기도 하고 자연스레 자신의 상황을 숨기고 외로움 속에 지내는 것 같다. 이혼한 한국인들이 상처를 치유하는 과정을 밝기 위해 커밍아웃 coming out 하기가 어려운 것도 특유의 한국적 정서 곧 유교 500년의 문화가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상처를 치료받기 위해서는 환부를 의사에게 드러내듯 자신의 아픔을 안전한 사람과 장소에서 드러내어 치료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혼이나 별거의 아픔을 당한 분들은 전문 상담가 또는 치유 회복 모임에 참석할 수 있기를 적극 권한다.

이메일: familykum@gmail.com

**PRINTING & PROMOTION**

각종 인쇄물과 다양한 판촉물 교회 행사에 필수!!

# 프린팅 & 프로모션

BOOKS KOREANA 한국서적

BOOKS KOREANA, INC

월 - 토 : 오전 9:30 - 오후 8:00

판촉볼펜

주보/헌금봉투

교회책자

단체 T셔츠

책 만들어 드립니다.

각종 상패

머그컵

타올

교회/매장/기타단체

**전화: 718.762.1200** 29-30 Union St, Flushing, NY 11354

**상담 환영!**

교회에서 행사할 때 수련회 단체 T셔츠 한글학교 단체복 원하는 디자인으로 해드립니다.

이메일 상담과 주문 bookskorea@gmail.com



##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7)

### 기도의 능력(2)-기도는 인간의 운명도 바꿀 수 있다



**윤병이 목사**  
(부산반여제일교회 담임)

신년이 되어 구정이 오면 한 해의 운세 즉 운명이 궁금해서 토정비결이나 사주 혹은 점 보는 사람들이 많다. 요즘은 '사주카페'도 있고 컴퓨터로도 점을 본다. 이런 것이 무의미한 일인줄 알면서도 그것을 보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지요, 그것을 은근히 기대해보고 싶은 것이 솔직한 사람들의 심정이다.

나 또한 주님을 만나기 전에 길거리를 지나다가 '컴퓨터 운명감정'이란 간판을 보고 무얼 어떻게 하는 것인지도 모른 채 혹시나 하고 들어간 적이 있다. 생년월일과 이것저것 물어보고 컴퓨터에 입력하더니 그 사람이 놀라면서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무엇 하시는 분이냐고 물어보았다. 그래서 내가 생각 웃으면서 왜 그러느냐고 했더니 내 운이 두령(頭領) 운이란 다. 그런데 나는 목사라 이렇게 작은 목회를 하고 있다.

그런데 '운명'에 대한 동양 사람들의 견해와 서양 사람들의 견해가 다르다. 동양 사람들은 인간이란 정해진 운명은 바꿀 수 없고 그 운명대로 되어진다고 믿어 정해진 운명을 받아들이고 따르는 것이

동원해 보았지만 불행히도 아이를 가질 수 없었다. 한나는 불행했다. 왜냐하면 유태인의 풍습에 의하면 여자가 결혼하여 아이를 낳지 못하면 남편은 후처를 두어서라도 가문의 대를 이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것이 관습이지만 어느 시대나 사랑하는 남편에게 다른 여자를 두게 한다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 아니다. 한나의 남편 엘가나도 관례에 따라 브닌나라는 처녀를 둘째 부인으로 맞아 들어 아이를 낳게 되었다. 이때부

로 낳은 여자에게는 아무런 권리와 자격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낳은 브닌나의 권세가 높아지는 것은 당연했다. 한나는 사랑하는 남편까지도 이러한 환경을 어찌할 수 없이 받아들여야 했다. 그러나 한나는 자기의 운명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을 애써싸고 이른 운명적 환경을 거부하며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 한나는 통곡하며 기도했다. "서원하여 이르도 만군의 여호

를 얻은 것이다. 이제 한나의 아픔과 고통은 끝이 났다. 할렐루야! 한나가 낳은 그 아들이 바로 유명한 사무엘 선지자이다. 사무엘은 유대 민족의 최고 통치자였다. 요즈음으로 말하자면 사무엘은 종신 대통령이요, 한나는 아이도 못 낳은 불쌍한 여인에서 위대한 선지자의 어머니가 된 것이다.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드린 기도의 보상이었다. 한나는 기도로 자기의 운명을 바꾼 여자이다. 기도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 것이며 운명을 바꾸는 능력이요 기술이다.

#### 포로 된 운명을 바꾼 다니엘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있는 다니엘은 죽으면 죽으리라, 혹시 살려주시지 않을 지라도 하나님을 버릴 수 없다는 믿음으로 기도한 것이 풀무불 가운데서 살아나오게 되었으며, 사자굴 속에서도 살아나왔다(단3:16-18).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불행한 운명을 바꿔주실

## '운명' 뛰어넘어 사는 길은 바로 기도의 삶 기도로 대선지자 출생하고 죽음에서 승리

순리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렇게 가르친다. 반면에 서양 사람들은 정해진 운명을 믿지 않고 자신의 노력에 의해 자기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믿고 산다. 이렇게 운명에 대한 견해가 서로 다른 것은 종교적 영향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성경은 사람이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고 노력한 만큼 될 수 있다고 가르친다(갈6:6-7). 자연을 대하는 태도도 동서양이 다르다. 동양 종교에서는 자연을 신성시하고 인간에게 주어진 하나의 큰 운명으로 받아들이기에 자연에 대한 두려움과 자연숭배 사상이 아직도 남아 있다. 그러나 기독교 문화 속에 사는 서양 사람들은 자연을 정복하고 다스리려는 것이 하나님께 인간에게 주신 복이라 가르친다(창:128). 동양철학에서 흔히 말하는 '운명'을 뛰어넘어 사는 길이 있다. 그것이 바로 기도하며 사는 것이다.

####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한나라는 여자는 엘가나라고 하는 제사장에게 시집가서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살았다. 그러나 결혼하여 3년이 지나고 5년, 10년이 지나도 아이가 없었다. 남편은 사랑하는 아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해보려고 온갖 방법을 다



터 한나의 불행은 더 커지기 시작했다. 아이를 낳아준 둘째 부인 브닌나를 본처인 한나를 업신여기고 구박하며 학대했다. 그래서 한나는 분을 삭이기 쉽지 않았다. 한나는 그 마음을 물리치기 위해 매일 매일 눈물로 세월을 보냈다.

한나는 아름다운 여자였다. 남편도 여전히 한나를 사랑했다. 브닌나 입장에서는 남편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한나에게 더욱 기세를 부리며 '아이고 못 낳은 주제에 안방 차지하고 있다'는 식으로 한나가 갖고 있는 조강지처 자리를 내놓으라고 더욱 학대했었다. 그러나 그런 브닌나의 기세는 정당하게 받아들여지기도 한다. 왜냐하면 유태인의 풍습에서 아이를

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시라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이를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삼상1:11).

한나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므로 사람을 살리기도 죽이기도 하시며, 가난하게도 할 수 있고 부하게도 할 수 있는 분이심을 알고 믿었다(삼상2:6-8). 그러기에 한나는 하나님께 구하기를 "저에게 아이를 낳게 해주세요"라고 눈물로 기도했다.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의 들으시고 아이를 주셨다. 슬픔과 좌절 가운데서 자유

수 있는 분이요. 그분은 우리의 운명을 바꾸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요한복음 14:12-14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나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께서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또 요한복음 15:7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한다.

인간은 누구나 죄인으로 태어난다. 죄인은 지옥 갈 운명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옥 갈 우리의 불행한 운명을 천국 갈 운명으로 바꾸신다. 우리는 누구나 벌거벗고 태어난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운명을 부유하게 바꿀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소유하신 분이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운명을 바꿀 수 있다. 자신의 운명을 탄식하며 비판하지 말고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은 놀랍게 바뀔 것이다.

## 사·모·칼·럼



**장사라 사모**  
(텍사스 빛과소금교회)

## 믿음은 해석입니다

내가 조금 더 일찍 나를 만나는 방법을 알았다더라면, 내가 조금 더 일찍 나의 이야기를 말하는 방법을 알았다더라면, 조금 더 일찍 나의 감정을 알아주는 방법을 알았다더라면, 내가 생각과 느낌과 사실을 구분하는 법을 조금만 더 일찍 알았다더라면, 그렇게 생각의 곁에서, 감정의 노예로 살면서 힘들고 외로운 생을 살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 좀 더 가족과 성도들의 감정을 잘 만나 주었을 것이고, 그들을 좀 더 행복하게 해 주었을 것이고 말씀이 말하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었을 텐데...

살아가면서 참 운이 없다고, 나는 없는 게 참 많다고 생각해 버리는 그 생각 때문에, 저 인간 때문에... 어떻게 나에게... 라는 감옥에 갇혀 그렇게도 불행한 시간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우리네들... 그 운은 내가 움직여서 만들 수 있는 것을... 그 운은 내가 쓰는 말을 통해 들어오는 것을... 그냥 의식이 있고 말이 통하는 사람이면 존경하고, 그게 안 된다 싶으면 내 의지로 사랑해 버리면 되는 것을... 그렇게 관계의 달인으로 누구와도 잘 놀 수 있는 능수능란한 인생이 정말은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닐까.

우리는 흠을 멀리 떠나면서 잃은 것이 너무나 많은 것 같다. 어떤 목장에 가보면 늘 채소가꾸는 이야기로 풍성한데, 실제 그들이 모일 때의 먹거리들은 장난이 아니게 풍성하고 맛있다. 풀을 매주고 채소를 뜯어 씻어서 밥상에 올려 그 채소가 입에 들어갈 때의 기쁨과 감동... 그야말로 생명의 약동인 그 감동을 그들은 일찍이 알았으리라. 그래서 웬만한 바람에도 끄떡이지 않고, 웬만한 병균에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튼튼한 몸은 가슴에서부터 시작되리라.

우리는 어차피 다 늙어 가는데, 그래서 젊음이 느껴지고 눈이 흐려지고 귀가 어두워지고 말도 어눌어지고...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조금씩 퇴색되어 가는 것 때문에 우리네 가슴이 때론 우울해지곤 해도, 늙어만 만나는 깨달음이 있고, 삶의 깊이와 향기와 맛이 있기에 걸사들은 부패해 가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래서 우리 "늬움=서러움"이라는 생각의 공식을 빼 버리고, 젊음은 젊어서 좋고 늙음은 늙어서 좋다는 해석을 넣어 버리면 진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바라건대 우리 연세 드신 아버지 어머니들이, 불행하고 허약한 노인이 아닌,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신의 삶을 해석할 수 있는 믿음이 있으시면 참 좋겠다. 그래서 자식들이 서운하고 '어떻게 키웠는데...' 라는 말을 가슴에 한으로 꼭꼭 입력하고 슬프고 외롭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냥 잘 살아가는 것만도 자식들이 고맙고, 손주들이 예쁘고 자랑스럽고, 친구들이 고맙고, 자연이 고맙고, 교회가 고마워서 교회 가는 날이 설레고 기다려지는 그런 가슴 뛰는 노년을 살아내는 우리 부모님들이 되면 좋겠다.

우리 오늘도 그렇게 삶의 진수를 살고 싶어서, 가짜가 아닌 진짜로 살고 싶어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말씀 속에서 내 잘못을 찾아내어 고백과 회개로 정화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는 그런 파장이 우리 모두에게 전달되고 전달되는 하나님의 일들이 파도처럼 일어나면 좋겠다.

이번 말씀찬지를 통해 깨달은 것들을 정리해보는 지금의 느낌은 그저 미안함이다. 잘못 산 모든 것은 다 나에게 해당 되는 것들이기에.. 그렇게 나를 알고 사람을 알게 되면 얼굴이 편해지고 모두가 사랑인 것을...

그렇다. 사람은 설 수 있어서 사람인 것을, 다시 한번 몸을 세우고 마음을 세우고 뜻을 세우는 믿음의 해석들이 모두의 가정마다 일어나서 아무리 힘들고 서러운 일들 속에서도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가 일상의 말이 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이 새벽에 두 손을 모은다.

# 조성근목사 기도성회 일정

**조성근 목사 방송설교 보기**

홈페이지 <http://www.galmelsan.or.kr>  
유튜브 조성근 목사 '세상을 이기는 지혜-솔로몬'  
GoodTV 기독교복음방송 : 멘토특강 희망드림  
- YouTube에서 '멘토특강 희망드림 60회' 차 검색



**조성근 목사**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강화·LA)담임  
GST(신학생 훈련단체) 대표  
개혁주의설교학회 이사/KWMA 운영이사  
총신대학교(Th.M/Th.D.cand)/미국 ORU(D.M)



2015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1일 ~ 10일 갈멜산금식기도원 신년감사예배 갈멜산금식기도원 신년축복기도성회 갈멜산 강화금식기도원(강화) 갈멜산 강화금식기도원(강화) 평화의동산 기도원(피중진목사) 11월 13일 (합동)동인교회 남부시절 재직부흥회 과전교회(주현신목사) 18일 애복교회(소진우목사) 22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1월 1일 ~ 7일 LA 주님의 영광교회(신승훈목사) 2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9일 ~ 12일 GST 신학생훈련(34차) 15일 사랑신학교(배만석목사) 16일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 22일 신도철 철야기도회(GST) 23일 동종교회(윤성호목사) 27일 백석신학대학원 개강수련회	1월 5일 ~ 31일 예수비전교회(박창홍목사) 총신대학교 신령수련회 9일 (합동)태백시절 연합성회 16일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 23일 갈멜산 강화금식기도원(강화) 29일 신도철 철야기도회(GST)	1월 6일 ~ 8일 윤인 신세계교회(문홍구목사) 13일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 20일 안산 시민교회(이성관목사) 23일 캠퍼스대학교 대학원 재물 26일 신도철 철야기도회(GST)	2월 27일 ~ 29일 화평교회(이재욱목사)	3월 1일 ~ 14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17일 소망교회(이정현목사) 18일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 24일 ~ 27일 하늘비전교회(오영택목사) 31일 신도철 철야기도회(GST)	3월 1일 ~ 4일 갈멜산 강화금식기도원(강화) 8일 ~ 11일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 15일 ~ 17일 온양감리교회(노광현목사) 21일 예우교회(유병희목사) 22일 ~ 24일 (합동) 남수원교회 교사강습회 25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3월 6일 ~ 18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19일 침온교회(김대석목사) 20일 ~ 23일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 27일 신도철 철야기도회(GST) 29일 천마산기도원(유광석목사)	3월 9일 ~ 4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19일 침온교회(김대석목사) 20일 ~ 21일 제자교회(유종국목사) 9일 ~ 11일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 14일 ~ 17일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	3월 21일 ~ 23일 풍산교회(박경순목사) 신도철 철야기도회(GST)	3월 21일 ~ 9일 갈멜산금식기도원 신년감사예배 갈멜산금식기도원 신년축복 기도성회 평화의동산 기도원(피중진목사) 10일 천마중앙교회(김형우목사) 12일 오신리 최자실기부 금식기도원 13일 우리들교회(김호경목사) 16일 ~ 25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19일 LA 베이커스필드 정령교회(지동근목사) 26일 신학생 철야기도회(GST)	3월 3일 ~ 6일 GST 32nd 신학생 훈련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10일 ~ 13일 윤인 신세계교회(문홍구목사) 17일 ~ 19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20일 ~ 28일 LA 베이커스필드 정령교회(한재신목사) 21일 ~ 23일 LA 베이커스필드 정령교회(지동근목사)	3월 1일 ~ 8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10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13일 성일교회(원용식목사) 14일 발안 사랑교회(서기영목사) 17일 ~ 19일 동은교회(이동홍목사) 23일 신학생 철야기도회(GST)	3월 1일 ~ 8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10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13일 캠퍼스대학교 대학원 재물 17일 ~ 9일 목동감리교회(최현규목사) 14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20일 ~ 23일 신성중앙교회(김연희목사)	3월 24일 ~ 30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17일 양문교회(정영교목사) (국동방송 소망의기도 지류집회) 21일 ~ 23일 오명이어교회(김형제목사) 24일 블레스 센터교회(고영수목사) 25일 캠퍼스대학교 대학원 재물 28일 신도철 철야기도회(GST)	3월 5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1일 ~ 10일 시애틀 성회(최민하목사) 2일 ~ 4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12일 갈멜산 강화금식기도원(강화) 19일 신학생 철야기도회(GST) 25일 하늘비전교회(오영택목사)	3월 9일 ~ 11일 명수대학교(김강덕목사) 9일 주흥교회(최성은목사) 16일 ~ 19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24일 ~ 30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26일 LA 나성동신교회(한기형목사)	3월 11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1일 ~ 8일 LA 베이커스필드 정령교회(지동근목사) 2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6일 LA 주님의 영광교회(신승훈목사) (마라클 블레스 집회) 10일 ~ 13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16일 ~ 19일 영동제일교회(노태진목사) 19일 GoodTV "멘토특강 희망드림" 20일 ~ 22일 수정교회(조일래목사) 24일 ~ 26일 대성교회(홍기용목사) 27일 민족복음화 부흥사역수련회 강의 30일 신도철 철야기도회(GST)	3월 11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1일 ~ 3일 영신교회(이영무목사) 8일 ~ 11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14일 ~ 21일 GST 미션리서치(캄보디아) 28일 신학생 철야 송년의밤(GST) 31일 갈멜산금식기도원 송구신예배





목회서신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재근 목사 (주사랑선교회 담임)

성경을 깊이 읽다보면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참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 이까 하리니 그 때에 내가 저희에

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마 7:21-23), "사람의 모든 죄와 훼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훼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마 12:32, 막 3:28-30),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마 18:6)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고전 3:16-17, 6:19-20),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

라"(딤후 5:8)고 사도 바울도 말씀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신자들은 소망적인 말씀, 축복의 말씀, 칭찬과 위로의 말씀, 부담이 적은 말씀에만 익숙하여져서 소돔과 고모라의 룯의 사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거나,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소경인 것처럼, 듣지 않는다고 귀머거리인 것처럼, 말하지 않는다고 병어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고 경홀히 여기는 것 같아서 참으로 걱정됩니다.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의 말씀들 가운데 몇 가지를 소개해드렸지만 필자의 입장에서 성경에서 가장 두렵고 떨리는 말씀은 민수기 14:28, "여호와와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입니다. 속된 말로 하나님이 자기 목을 걸고 맹세하며 하신 말씀이니, 이보다 더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가데스 광야에서 가나안 정탐군

10명의 불신앙적 보고를 듣고 모세를 원망하며 혈기를 부리며,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민 14:2)이라고 지껄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대로 출애굽 시 20세 이상의 구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빌라도 총독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마 27:24)는 말에 예수를 죽이기 위하여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마 27:25)고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져 디아스포라로 세계 각처로 흩어져 유랑생활을 했고, 히틀러 나치 지배 하에서 아이히만에 의하여 600만명이 가스실에서 처형당함으로써 그 피 값을 갚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도 임과 허, 말조심에 대한 권면의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임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시 13:3)고 했고, "죽고 사는 것이 허의 권세에 달렸

나니 허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시 18:21)고 했으며, "허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니라"(약 3:8)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숫군을 세우시고 내 입술을 지키소서"(시 141:3)라고 간구했고, 야고보 사도는 말을 아끼고, 말에 실수가 없도록 "입에 자갈을 넣어라"(약 3:3)고 임조심, 말조심 할 것을 권면하셨습니다. 말세지말을 살아가고 있는 마지막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살전 2:13)는 사도 바울의 권면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거나 경시, 경홀히 여기지 말고 경건과 근신의 마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 순종하며 실천하므로 만사형통과 평탄의 축복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제7회 PPFH 환태평양 기독교영화제가 은혜한인교회에서 열렸다. 사진은 시상식에 참석한 관계자들이 시상식이 마친후 기념촬영하는 모습

베스트임팩트상에 'The War within' 제7회 환태평양 국제기독교영화제, Cicada 2개 부문 수상

제7회 환태평양 국제기독교영화제(PPFF)의 최우수 영향력 상(Best IMPACT)은 Brett Varvel 감독의 'The War within'이 차지했다. 올해로 7번째로 맞이하는 PPFF는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에서 열렸다. 켄안 선교사는 "이번영화제의 의의는 처음으로 교회에서 열렸다는 것이며 선교에 앞장서고 있는 은혜한인교회에서 하게 됐다는 것이다. 이는 PPFF가 지향하는 영상선교와 맥을 같이하는 것"이라 말했다. 안 선교사는 "특히 이번 영화제는 헐리우드 등 주류영화인들에게 많이 알려지게 됐다는 것이다. 그리고 함께 참여해 은혜를 나누고 축제

를 즐기게 됐다. 이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주신 복이라 생각한다. 영화제에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셔서 함께 감동과 은혜를 나눴으면 한다"고 말했다. 영화제 시상자로 참여한 영킹 캘리포니아 주 하원의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표현이 잘됐다. 여러 영화제가 있지만 기독교인들이 영화를 통해 메시지 전달하는 것이다. 상을 주는 이나 받는 이들이 한마음으로 하는 것 같아 좋았다. 여러 영화를 통해 보는 이들이 많이 감동 받고 변화되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6일 저녁 7시30분 영화배우 Ron Mcgehee와 Reba Tony의 사회로

열린 영화제는 Best IMPACT상, Best Feature Narrative 상 등 총 14개 부문으로 나눠 시상상을 했으며 최우수감독상은 딘 야마다 감독(Cicada), 최우수 남우주연상은 Yugo Saso(Cicada), 최우수 여우주연상은 Polycarp과 Wanted의 주연을 맡은 Eliya Hurt에게 돌아갔다. 이번 영화제는 예년에 비해 때때로 진행이 돌보였으며 해를 거듭할수록 성숙된 모습을 보인점이 돋보였다. 한편 주최 측에서는 8회 대회는 영화제를 확대시켜 명실상부한 기독교영화제로 자리매김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다음은 제7회 PPFF 수상자 명단이다.

△Best IMPACT: The War within △Best Feature Narrative: Cicada △Best Feature documentary: The love story of Leonard Knight △Best Short Narrative: Wanted △Best Short documentary: Jesus son of God? △Best Director: 딘 야마다 감독(Cicada) △Best Soundtrack: Every Boy Needs a hero △Best Editing: Polycarp △Best Cinematography: Respite at Christmas △Best Screenplay: Book ends, △Best Actor: Yugo Saso from Cicada △Best Actress: Eliya Hurt from Polycarp/Wanted (Double Nominee) △Best Theatrical: Little Boy △Honorable Mention: Evolution's Achilles' Heels. (박준호 기자)



장준하 선생 서거 40주기 추모강연회에서 강사로 나선 장호준 목사가 강연하고 있다

'해방과 분단70년 같은 시대 다른 삶' 장준하 선생 서거 40주기 추모강연회

장준하 선생 서거 40주기 추모강연회가 '해방과 분단 70년 같은 시대 다른 삶' 주제로 8일 오후 5시30분 '작가의 집'에서 열렸다. 이날 추모강연회는 고 장준하 선생의 3남인 장호준 목사(유류스도어스교회)가 강사로 나서 강연했다. 장 목사는 그의 부친인 아버지의 삶에 대하여 설명하고, 왜 아버지가

서 그런 삶을 살았는지 깊이 연구해왔다고 전제하고 "사람들의 삶에는 누구든지 '선택'이 있는데 그 중 하나는 '양심'의 선택이고, 다른 하나는 삶의 가치나 사회정의보다는 일신상의 부귀영화만을 생각하는 선택"이라고 정리하고, 그의 부친 장준하 선생은 전자의 삶을 사셨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방되기 전 광복군으로 활동하셨으며 OSS에서 활동하신 아버지가 왜 해방과 전쟁을 겪으신 후 모든 인맥을 동원해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이를 얻어서 사상계를 출판하게 됐을까? 그것은 바로 국민들이 깨어있지 못했기에 친일파 등 권력자들이 대한민국 지배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그 당시 국제정세 영향도 있었지만 세계열강의 갈등과 시공장의 장이 한반도가 돼야 했던 것을 막지 못한 것은 우리가 깨어있지 않아서다. 따라서 우리민족이 깨어나기를 바라는 염원으로 어머니의 코트를 팔아서까지 월간지 사상계를 발행하게 됐고, 그 이후에 정치권에 입문하고서도 시민투쟁에 몰두한 삶을 살다가 의문의 죽음을 당했다"고 되돌아보았다. 그는 분단이후 민족모순에 의한 기형적인 사회가 형성돼 한국사회는 친일에 뿌리를 둔 인맥들에 의해 각 요소마다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고 문제의 인맥들을 하나하나 열거하면서 바른 선택의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하고, 그런 삶을 보여드려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 이날 민족연구소에서 제공한 친일 항일 38명 케리커처와 설명을 담은 판별 전시 및 장준하 선생 유품 전시회 같이 열렸다. (박준호 기자)

인/터/뷰

영화감독 이장호 장로

"영화는 문화 통한 강력한 선교 도구"

"영화라는 장르는 현대인들에게 가장 밀접하게 다가갈 수 있는 매개체입니다. 특별히 복음을 심는 기독교영화는 선교의 도구로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번 환태평양 영화제(PPFF)를 통해 영화라는 문화를 통한 선교는 매우 강력한 도구라는 것을 더 강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난 9일에 막을 내린 제7회 환태평양기독교영화제에 참석한 한국 영화계의 전설이자 거목 이장호 감독은 영화를 통한 선교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고, 그 중심에 서있는 자신이 이러한 역할을 감당해내야 하겠다는 의지를 더욱 확고히 가지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1년 전 제6회 영화제에 처음 참석한 바 있다. 이 감독은 "당시 제가 만든 '시선'이라는 작품이 초청이 돼 상영하게 됐어요. 그때 PPFF를 이끌고 계신 켄안 선교사와 인연이 됐습니다. 안 선교사님이 PPFF의 영화제 법인이사로 참석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작년과 올해 강력하게 됐습니다. 물론 내년에도 참석할 것 이구요"라고 말했다. PPFF를 보는 그의 생각은 "매

우 새롭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바로 한국 사람이 주도해 만든 영화제에 참석자들이 한인보다 백인이 많았다는 것. "어떻게 한국 사람이 만들어놓았는데 한인의 참여도보다 백인의 참여도가 더 많을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이 생겼어요. 그리고 기독교영화제는 한국이 역사가 더 오래, 활발한 곳은 이곳이니까요. 더군다나 영화들을 봐도 대중 구색을 맞춰서 만든 작품이 단 한 작품도 없다는 것이예요."

는 핸디캡은 출품되는 작품수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해외에서의 참여도도 낮고요. 하지만 이곳은 다르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출품작을 비롯해 한인들의 작품보다 헐리우드에서 나온 작품을 비롯해 외국작품이 훨씬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이장호 감독은 한국에서 기독교영화제가 활성화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사회현상으로 바라봤다. "한국사회를 볼 때 기독교는 배척당하고 있습니다. 안티틀



이장호 장로

기독교영화제를 더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고요." 이장호 감독은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독교영화제를 준비 중에 있다고 전했다. 이미 영화 '시선'을 통해 기독교영화를 제작한 바 있는 그가 기독교영화를 제작하고자 하는 건 하나님께 서원한 것 때문이라고 밝혔다. "장로가 되면서 뭔가 주님을 위한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무엇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고민을 해봤는데, 결국 제가 잘할 수 있는 것이더군요.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 작품들이 저의 이기심으로 만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주님을 전할 수 있는 메시지가 담긴 것들을 제작해야겠다는 서원을 했습니다." 새로운 작품은 현재 시나리오 작업 중이며 내년엔 메가폰을 들 예정이라 밝힌 이 감독의 새 작품은 1912년 전남 광주에 온 미국인 여선교사이며 간호사인 엘리자베스 요안나 웨빙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라고 밝혔다.

이기심으로 만든 지난작품...이젠 주님 전하는 메시지 담아 제작 철저히 상업적인 한국영화산업 기독교영화제작에 큰 장벽...PPFF 기대

에 가장 친밀한 문화콘텐츠이자 선교로 활용할 수 있는 영화가 기독교영화로 제작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 감독은 한국 영화산업은 철저히 상업적인 논리에 의해 제작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논리 역시 기독교영화제작에 큰 장벽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요즘 한국영화계는 철저히 흥행성 보장이 우선순위로 돼있습니다. 돈의 노예가 되었다고 해야 할까요? 철저히 자본의 논리로 영화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흥행이 안될 것 같은 영화는 제작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젊은 시절엔 돈을 밝히는 건 수치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이러한 현상이

이장호 감독은 기독교문화 발전을 위해서는 재정이 필요하다고 하며, 크리스천들이 개인전도도 중요하지만 '문화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다고 결론지었다. (박준호 기자)



동부교계 게시판

동부개혁장신 개강부흥회

동부개혁장신교회(학장 장영춘 목사)가 2015년 가을학기 개강을 앞두고 9월 8일부터(화) 10일(목)까지 저녁 8시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 교회당에서 개강부흥회를 갖는다. 강사는 김경진 목사(토론토 빌라델비아교회 담임).

▲문의: (718)463-7163

뉴욕목양장로교회 입당감사예배

뉴욕목양장로교회(담임 송병기 목사)가 10월 11일(주) 화이트스톤 새 건물에서 입당감사예배를 드린다. 입당예배를 앞두고 9월(금)부터 11일(주)까지는 서임중 목사(포항중앙교회 담임)를 강사로 부흥 성회도 갖는다. 새로운 예배당 주소는 12-25 Clintonville St, Whitestone, NY, 11357.

▲문의: (917)559-8877

샬롯장로교회 설립 38주년 기념예배

샬롯장로교회(담임 나성균 목사) 설립 38주년 기념예배가 8월 23일(주) 드려진다. 동 교회는 설립기념에 맞춰 전교인 1인 전도 작전과 실천을 계획하고 있다.

▲문의: (704)529-0900

미드웨스트대, 태국 리마서 강의

미드웨스트대학교(총장 제임스 송박사)가 미국 대학교 인가기관으로부터 허락을 받아 올 가을학기부터 인도차이나지역(태국)과 남미 페루 리마에서 소집강의를 시작한다. 1986년 세인트루이스에서 개교한 본교는 현재 워싱턴DC에 본교가 있으며, 60개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동문들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상호협력하며 미래를 도전하고 있다. 이메일: usa@midwest.edu

▲문의: (636)327-4645

제1기 "아이프레이즈" 팀원 모집

도시문화사역을 위해 세워진 Comeback Ministry와 함께 찬양사역과 공연을 통한 선교사역에 동참하실 제1기 "아이프레이즈" 팀원을 모집한다. 모집분류는 △악기와 보컬: 0명 △홍보와 디자인: 0명 △공공연기: 0명. 모집마감은 8월 31일(월), 오디션은 9월 6일(주) 오후 5시30분, 합격자 모임은 9월 12일(토) 오전 10시-오후 3시 OT&세미나가 있다. 장소는 15 Wallington Ave Wallington NJ 07057. 지원방법은 jiwoos@gmail.com으로 "자신신청합니다" 이렇게 써서 이메일을 보내면 지원신청서를 받게 된다. 지원서 다운로드 http://usaamen.net/news/x/ip.pdf

▲문의: (201)694-3005 박지우 목사

광복 70주년/건국 67주년 기념행사

이승만기념사업회와 신뢰회복포럼이 주관하는 광복 70주년/건국 67주년 기념행사가 16일(주) 저녁 6시30분 필라델피아 큰믿음제일교회(담임 황준석 목사)에서 열린다. 한국의 최고 논객들의 강연회 주제는 "대한민국 이념논쟁과 통일에 대한 전망"/류근일 박사(조선일보 주필) "한미상호방위조약과 이승만"/인보길 선생(뉴데일리 대표). 이날 8.15 경축공연으로 남상규 원로가수(가미교 권사)가 출연한다. 참석자 전원에게는 부영그룹 이종근 회장의 저서 "6.25 전쟁과 1129일"이 증정된다.

▲문의: (610)352-5442

씨즌 스마트폰 강좌 13일부터

매주 목요일 3주간 초급, 중급

씨즌이 주최하는 스마트폰 강좌 초급반(40기)과 중급반(41기)가 8월 13일(목)부터 3회의 일정으로 뉴욕기독교방송국(163-07 Depot Rd. #B-2 Flushing)에서 개강한다.

초급반 강의는 스마트폰 완전초보자, 중급반은 기초반 수료자로서 스마트폰으로 업무 또는 선교에 활용하기 원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강사 문석진 목사(씨즌 대표)는 '스마트폰 쉽게 다루기!' 주제로 안드로이드폰(삼성 갤럭시폰, LG폰, 모토로라) 위주로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기, 보내기(텍스트, 카톡), 앱 다운로드받기, 설정보기, 신문/TV/라디오/유튜브 보기, 주소로 지도 찾기 등을 강의한다. 수강료는 무료이며 등록비 30달러는 뉴욕기독교방송을 선교 후원

금으로 사용된다. △40기 초급반: 8월 13일(목)-27일(목) 총 3회, 오후 2시-3시 20분 (80명) △41기 중급반: 8월 13일(목)-27일(목) 총 3회, 오후 3시 30분-4시 50분(80명) ▲문의: (347)538-1587 (기사제공: 씨즌)

유네스코 등재 한국문화 알리기 공공외교 캠페인

한국/한인 청소년, 대학생 20명 행사 주관

지난 8월 5일 '유네스코등재 한국 문화 알리기 공공외교 캠페인' 행사가 한국청소년들과 미국 한인 2세대들이 공동 참여한 가운데 유엔플라자 세미나실과 뉴욕 유엔본부 앞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유엔경제사회이사회문화위원회 국제 NGO인 밝은사회국제본부(GCS International, 조정원 총재)와 평화나눔공동체(APPA, 최상진 대표)가 주최하고 유엔회원 NGO들이 후원하는 이번 공공외교 한국문화 알리기 캠페인에는 한국에서 선발된 청소년 대표들과 대학생들 그리고 한인교포학생들 20여명의 청소년 서포터들이 행사를 주관했다.

세미나 후에는 자신들이 직접 만든 영문 홍보용 포스터와 플라야로를 가지고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한국문화를 알리는 캠페인을 유엔본부 앞에서 전개했다.

유엔플라자에서 열린 APPA/GCS 청소년유엔리더십세미나에는 루이스 게이그네 유엔 재정관리국

직원, 마테오 사소 국제기구초급전문가(JPO) 프로그램 책임자, 빌에 유엔회의담당관, 더글라스 호스테터 MCC 유엔대표, 평화나눔공동체 최상진 유엔대표, 최진경 유엔시민봉사위원회(ICSC) 담당관, 구본석 월드뱅크 컨설턴트 등이 참석했다. 한인 청소년 서포터들과 함께 한 이번 유엔리더십세미나에서 한인 서포터들은 유네스코에 등재된 한국의 대표적인 주요문화재를 구체적으로 유엔관계자들 앞에서 발표했다.

평화나눔공동체 최상진 대표는 "이번 유엔직원들과 함께 하는 세미나를 통해 한인청소년들의 탁월한 발표를 통해 참여한 유엔직원들이 극찬을 하고 박수를 아끼지 않았다"며, 청소년들에게 이런 리더십 기회는 대학진로는 물론 미래 국제기구진출에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사제공: 평화나눔공동체)

"하나님 기뻐하시는 복음전파에 최선"

뉴욕 선한목자교회 담임목사 위임식 및 임직식

뉴욕 선한목자교회가 지난 9월 저녁 5시 박준열 담임목사 위임식 및 안수집사, 권사 임직감사예배를 드렸다. 박준열 목사는 전임 환영진목사가 지난해 12월 엘살바도르 선교사로 파송되기 전부터 선한목자교회에서 동역하다가 이번에 RCA 교단에 가입하면서 위임식을 가졌다.

박준열 목사는 담사에서 참석자들과 교단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 다음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막12:30)는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주하시고 자신의 뜻을 확실하게 알게 하시고 제게 주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고 말했다.

박 목사는 "2001년 뉴욕에 이민 와서 처음 살았던 곳이 선한목자교회 건넌편이었는데 그때는 주이신데였다. 매일 창가에 서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도하면서 저 센터가 교회가 되어달라고 기도했는데 새천년교회를 거쳐 우리 선한목자교회가 됐다"며 감격했다.

또 박 목사는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당을 찾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환영진 목사님을 만나게 하시고 선한목자교회 성도들이 저를 담임목사로 불러주셨다. 하나님은 제게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다고 하셨다. 교회가 그동안 어려웠지만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한결해주셔서 해결하게 됐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 앞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드린다"고 말하고, 자신을 받아준 RCA 교단에도 감사를 표했다.

박준열 목사는 장로회대전신학교, 장로회신학대학원, 플로리다대학원 목회학박사과정을 졸업하고 대전평안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했으며 서울 영랑교회, 광진교회, 뉴욕 퀸즈한인교회, 뉴욕장로교회 부목사를 역임하고 예수소망교회를 담임했다.

박준열 담임목사 위임예배는 한재홍 목사 인도로 기도 조태형 목사, 성경봉독 임지윤 목사, 말씀 Linden Debie 퀸즈교회장(은 세상 모든 족속에게 가서 복음 전하라), 막16:14-15, 헌금기도 송홍용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찬양은 동교회와 퀸즈한인교회 찬양대가 함께 불렀다.

위임식은 Linden Debie 목사 사회로 청빙확인 정태관 장로, 서약 Marianne Lin, 권면 Neil Marfettson, Dwayne L. Jackson, 선포, 취임패 증정 한재홍 목사, 스태프증정 나영애 목사, 축사 송병기 목사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동역은 류승례 목사와 임지윤 목사가 담당했다.

임직식은 박준열 목사 인도로 임직사 소개(김병기 장로)에 이어 안수집사 서약 신성능 목사, 안수기도, 집사취임 선언 이재봉 목사, 권사서약 김기호 목사, 권사취임 선언 김중덕 목사, 권면 이종삼 목사, 강주호 목사, 축사 김중국 목사, 환영진 목사에 이어 취임패 증정, 축가(한문섭 집사), 광고(서도성 장로)가 있었으며 박준열 목사 축도로 마쳤다. 식사기도는 안창희 목사가 했다.

이날 임직자는 다음과 같다. △안수집사: 김종민, 윤영, 최연호 △시무권사: 박경희, 서영혜, 손나영, 조미자, 한복영, 한애순. (유원정 기자)



참가자들이 유엔본부 앞에서 한국문화알리기 캠페인을 마치고 단체사진을 찍었다.



'이스터 실즈'에서 공연을 마치고 장애인어린이들과 기념 촬영 했다.

이노비, '이스터 실즈' 장애인위한 음악회 개최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들에게 찾아가 무료 음악회를 열어주는 비영리단체 이노비(EnoB, 대표 강태욱)가 8월 4일 아름다운재단과 공동으로 미국 비영리단체 '이스터 실즈(Easter Seals)'의 장애인어린이를 위한 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노비는 브롱스에 위치한 이스터 실즈의 '차일드 디벨롭먼트센터'(Easter Seals Child Development Center)를 찾아 150여명의 특수 교육 아동을 위해 오전 10시부터 2회에 걸쳐 다양한 악기가 포함된 뮤지컬 "라이온킹"을 선보이며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이스터 실즈는 90년의 역사를 가지고 미 전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단체로, 장애인과 특수교육이 필요한 이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ment Center)를 찾아 150여명의 특수 교육 아동을 위해 오전 10시부터 2회에 걸쳐 다양한 악기가 포함된 뮤지컬 "라이온킹"을 선보이며 아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이스터 실즈는 90년의 역사를 가지고 미 전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단체로, 장애인과 특수교육이 필요한 이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Worldwide Church Directory: A grid of church listings for various regions including New York, New Jersey, Florida, and Hawaii. Each listing includes the church name, pastor's name, address, and contact information. The header for the directory is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교회'.





유니온교회 광복절 기념 '코리안의 노래' 제창 및 하얀무궁화 기념식수행 행사를 가졌다. 사진은 기념식수를 심고있는 이정근 원로목사(사선 오른쪽)와 김신일 담임목사의 모습

### “도시의 기쁨이 되는 교회” 주제 충현선교교회 설립30주년 기념부흥회, 강사 손봉호 교수

충현선교교회(담임 민종기 목사)는 교회설립 30주년 기념 부흥회를 ‘도시의 기쁨이 되는 교회’라는 주제로 6일부터 9일까지 개최했다.

민종기 목사의 사회와 SOL 찬양팀의 찬양인도로 시작된 둘째 날 집회에서 강사로 나선 손봉호 교수(고신대 석좌교수)는 ‘그리스도인의 윤리’(벤전2:9-12)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손 교수는 “한국교회는 전도 없이 하는 교회, 봉사 많이 하는 교회 선교 많이 하는 교회이며 인구내 교인수로 보면 세계에서 선교를 가장 많이 하는 교회다. 이는 감사한 일이며 자랑스러운 것”이라 말했다.

그는 “한국기독교는 사회에 공헌을 많이 했다. 개신교가 한국에 전해지지 않았더라면 아마도 한국은 발전되지 않았을 것이고 야만적이고 원시적인 나라가 되었을 것”이라 말했다.

그는 “한국의 개신교는 정치경제 발전에 기여했다. 또한 전 세계 174개국에 한인교회가 있을 정도로 기독교의 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걱정거리로 전락했으며 너무 실망스럽게 됐다. 2003년 기윤실에서 발표에 의하면

한국개신교의 신뢰도는 19.3%로 전주교 36.7%와 불교 35.1%보다 현저히 낮다.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의 설명자가 아닌 증인들이다. 증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증인은 정직해야 한다. 그러나 개신교의 타락은 정직해야 할 증인인 그리스도인들이 정직하지 못해 믿음을 잃어버리게 됐다”고 지적했다.

손 교수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복잡하지 않다. 우선 정직해야 하며 거짓말로 인해 누군가 피해를 가는 것은 삼가야 한다. 그리고 공정해야 한다. 공정성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일에 있어서는 친척이라도 공정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한국교회는 정직성과 공정성에서 실패했다. 이민교회도 예외가 될 수 없다. 정직과 공정성을 지켜 아름다운 평판을 얻는 교회가 되는 것은 하나님에 기뻐하시는 것”이라 말했다.

한편 첫날 집회는 ‘그리스도인의 가정’(담전5:8), 셋째 날 집회는 ‘고통과 위로’(고후1:1-7), 그리고 주일예배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렘5:1-2)라는 제목으로 손봉호 교수가 말씀을 전했다.

(박준호 기자)

### 유니온교회 광복 70주년 감사예배 ‘코리안의 노래’ 제창 및 하얀 무궁화 기념식수

유니온교회(담임 김신일 목사)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지난 9일 광복절감사예배를 가진 후 ‘코리안의 노래’를 전 성도가 함께 부르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코리안의 노래’ 가사에 담긴 ‘하얀 무궁화’를 식수기로 하

고, 김신일 담임목사, 이정근 원로 목사 및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식수행사를 진행했다. 특별히 이날은 해방둥이(1945년생) 성도들이 공동식수를 섬겨 그 의미를 더 했다.

(기사제공: 유니온교회)



KFAM이 주최한 한인 위탁 아동들을 돕기 위해 사랑의 책가방 전달식이 6일(목) 오전 11시 LA 인근 웨스트 코비나 시에 위치한 DCFS 아동보호국 아시아인 유닛에서 열렸다. 이날 333개에 달하는 사랑의 책가방이 전달됐다.

### 한인위탁아동 위한 사랑의 책가방 전달식 KFAM, 총 333개... 선물도 전달

한인가정상담소(KFAM, 소장 카니정조)는 한인 위탁 아동들을 돕기 위해 ‘사랑의 책가방’을 전달했다. KFAM은 6일 오전 11시 LA 인근 웨스트 코비나 시에 위치한 DCFS 아동보호국 아시아인 유닛에 333개에 달하는 사랑의 책가방을 전달했다.

하게 되기를 바라며, 그들이 사회에 이바지하는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랑의 책가방 전달식은 지난 7월 한달간 KFAM에서 실시한 모금운동을 통해 모아진 금액으로 진행했다. 개인후원자는 물론 BBCN뱅크, 글로벌어린이재단, 오픈펀드, 프리즈마 패션스쿨 그리고 카리스교회 등 20여 단체와 기업에서 후원했다.

한편 앞으로 KFAM은 10월부터 11월까지 Christman Gift Drive를 실시한다. Christman Gift Drive는 위탁아동들이 50달러 이내로 해당되는 받고 싶은 물품을 적어내면 그것에 해당하는 용품을 구입해서 전달하는 행사다.

자세한 문의는 에스페 송 매니저(esong@kfamla.org, 213-235-4861)나 김아림 매니저(akim@kfamla.org, 213-235-4848)에게 하면 된다.

(박준호 기자)

DCFS 소설위커 마이클 오씨는 “작년에 처음 실시된 전달식에 이어 올해 역시 아동보호국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 책가방과 학용품 전달받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 전달받은 책가방은 아이들에게 전달될 것”이라 밝혔다.

에스페 송 KFAM 동지찾기 프로젝트 매니저는 “DCFS에 있는 3만 7천여 명의 위탁아동 중 1% 정도가 대학교육을 마치게 된다. 또한 DCFS에 있는 아이들 중 50%가 18세가 되면 고등학교를 졸업한다. 그들이 퇴소하면 홈리스로 전락하게 된다”고 밝히며, “사랑의 책가방 전달행사로 인해 학用品을 전달 받은 아이들이 학업을 열심히 참여



충현선교교회가 주최한 교회설립 30주년 기념 부흥회에서 강사로 나선 손봉호 교수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 주드킴 프로젝트 트리오 콘서트 카페아메리카노에서 켈빈박, 종민석, 김경민, 마트 등

보스톤 버클리음대 출신 크리스천 뮤지션들의 공연 주드킴 프로젝트 트리오 콘서트가 8일 오후 6시 카페아메리카노 특별무대에서 열렸다.

까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열리는 위크샵과 마스터 클래스 참석차 방문차 공연을 하게 됐다”고 말하고 “이번 공연을 통해 음악으로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어서 좋았으며 여러 뮤지션들과 만나 교류할 수 있어서 감사했다”고 말했다.

이번 콘서트를 기획한 켈빈박 씨는 “한국은 물론 타주에서 여러 뮤지션들이 공연차 방문하게 된다. 앞으로 좀 더 좋은 공연 갖고자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준호 기자)

##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 교회안내

<b>감사한인교회</b> 담임목사: 김영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어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www.thanksgivingchurch.com Tel: (714)521-0981, Fax: (714)521-4636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b>남성순복음교회</b> 담임목사: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45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어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lafgcusa@yahoo.com / www.lafgc.com Tel: (323)913-4499, Fax: (323)913-4494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b>남성영락교회</b> 담임목사: 김경진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0 영어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주일 5부예배: 오후 11: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323)227-1400 / Fax: (323)227-0718 www.youngnak.com	<b>남성제일교회</b> 담임목사: 김광삼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주일예배: 오전 6:00(토) Tel: (213)388-7101, (F) (213)388-6564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b>남침방교회</b> 담임목사: 민경엽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침양예배: 오전 5:30 영아 2부예배: 오전 6:30 EM, 대학부: 오후 11:30 주일학교: 오전 11:00 Tel: (562)691-0691, (F) (562)691-0698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 www.nachimban.org		
<b>남가주든든교회</b> 담임목사: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주일 4부예배: 오후 7: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토) Tel: (213)380-2779 / Fax: (213)481-3761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Lksolidrock@gmail.com	<b>열매교회</b> 담임목사: 김요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 목요 예배: 오후 7:00 새 책 예배: 오전 6:00(화-토) Tel: (213)380-2202, Fax: (213)215-8523 3850 Wilshire Blvd., #505, Los Angeles, CA 90010	<b>남가주사망교회</b> 담임목사: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20 집 들 이 예배: 오전 1:20 영어예배 (영소-KOC, 캠프드림센터) 1부: 오전 9:20 2부: 오전 11:20 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b>대중장로교회</b> 담임목사: 권영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주일 5부예배: 오전 11: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예배: 오후 7:30 Tel: (310)719-2244, Fax: (310)719-2229 15411 S. Figueroa St., Gaena, CA 90248 www.djpc.org	<b>동원교회</b> 담임목사: 김상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45 Tel: (213)483-8625, Fax: (213)483-8675 1901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www.ygkpc.org	<b>디아스포라선교회</b> 대표: 전영자 목사 “세계를 향해 뻗어가는 교회의 동력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목요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후 4:00 Tel: (213)559-7728 (24시간 경음), 사택: (213)210-8890 1213 Gabriel Garcia Marquez St., #B L.A., CA 90033	<b>드림교회</b> 담임목사: 정영희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아 1부예배: 오전 9:30 영아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새벽 5:30(월-토) Tel: (626)793-0880, 0280 Fax: (626)793-6412 1305 E. Colorado Rd., Pasadena, CA 91106
<b>미주양곡교회</b> 담임목사: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매일)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b>미주평안교회</b> 담임목사: 임승진 주일 1부: 오전 8:30 주일 2부: 오전 9:45 주일 3부: 오전 11:00 (청년회/사택: 오전 11:45) 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213)381-2202, Fax: (213)381-2535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b>빛과 소금의 교회</b> 담임목사: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 책 기도회: 오전 5:45(월-토) 새 책 예배: 오전 6:00(토) Tel: (310)749-0577 3521 Lomita Bl., #202-A Torrance, CA 90505	<b>베델한인교회</b> 담임목사: 김한요 주일 1부예배: 오전 7:15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성일찬양예배: 오전 11:00 대학원예배: 오전 1:00 영아예배: 오후 7:30 Tel: (949)854-4010 / E-mail: bethel@bk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www.bkc.org	<b>복음성로교회</b> 담임목사: 김상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7:00(대학부) 목요예배: 오후 7:30 Tel: (562)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	<b>세계소망교회</b> 담임목사: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Tel: (213)745-9191(CH), 사택: (818)893-8607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b>요셉선교회</b> 담임목사: 정상호 주일 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7:30 금요 예배: 저녁 7: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새벽 5:30 Tel: (213)245-4090 Fax: (213)365-1670 301 S. Kingsley Dr., #2-B L.A., CA 90020
<b>얼반인침례교회</b> 담임목사: 박경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수요성일찬양예배: 오후 7:00 www.irvinechurch.com Tel: (949)857-9425 / Fax: (949)857-9472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b>윌셔크리스천교회</b> 담임목사: 엄규서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전통) 주일 4부예배: 오후 7:00(대중교회)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토) 주일 학교: 오전 11:00 토요일인양예배: 오후 6:00 Tel: (213)384-7274, Fax: (213)384-8638 3435 Wilshire Blvd., #101 L.A., CA 90010	<b>은혜한인교회</b> 담임목사: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금요성일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은혜개척기도회: 365일 24시간 모든 www.gracemc.com Tel: (714)446-6200, Fax: (714)446-6207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b>주님의영광교회</b> 담임목사: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Tel: (213)749-4500, Fax: (213)749-6700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www.gjcc.org	<b>종은마을교회</b> 담임목사: 신원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아)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목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www.socalsamsungchurch.org Tel: (714)646-9259 Fax: (714)646-9264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	<b>코너스톤 교회</b> 담임목사: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 목, 예배: 오후 7:30 주일학교: 오후 5:30(화-토) 목요예배: 오후 8:00 수요예배: 오후 8:00 www.cornestonew.com / e-mail: pastor@cornestonew.com Tel: (310)530-4040(CH), Fax: (310)530-8400 2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b>토렌스조은교회</b> 담임목사: 김바울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아)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영아) 주일 5부예배: 오후 3:00(청년) 장례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www.torrencecc.org Tel: 310-370-5500, Fax: 310-370-2009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 “통일을 주소서” ...기도의 불 지폈다

### 광복 70년 한국교회평화통일기도회

한국교회 주요 교단과 연합기관 등이 주최한 '광복 70년 한국교회 평화통일기도회'가 9일 오후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 등에서 열렸다. 2010년 8·15 대성회 이래 교계 연합행사로는 최대 규모다.

미스바에 모였던 이스라엘 민족(삼상7:5-6)처럼 대한민국 심장부인 서울광장에서 울려 퍼진 기도의 함성은 3200여년 전 블레셋 침입이라는 민족적 위기 앞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라며 이스라엘 민족이 외쳤던 절규를 연상케 했다.

### 70개 교단 연합...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민족처럼 서울광장 메워

‘광복 70년 한국교회평화통일기도회’에 참석한 30만명(주최측 추산)의 성도들은 이날 32도가 넘는 피약벌 아래에서도 서울광장을 가득 채우고 세종대로 사거리와 송레몬 사거리 등까지 자리 잡았다. 한국교회가 1974년 엑스플로 74대회와 84년 한국기독교100주년 선교대회, 2007년 한국교회대부흥100주년기념대회 때 보여준 기도의 야성(野性)을 다시금 보여준 것이다.

오후 4시가 되자 무대 위에 설치된 5개의 대형 북에 시선이 모아졌다. 한국교회 지도자들과 어린이, 탈북민, 다문화가정 대표들은 감사 회개 사랑 생명 평화 통일 희망을 위해 7차례 북을 치며 기도회의 시작을 알렸다.

기도회는 총 4부로 진행됐다. 개막식 개념의 ‘감사와 회개’, 감사에 배인 ‘사랑과 생명’, 통일메시지가 선포된 ‘평화와 통일’, 합심기도회인 ‘희망과 전진’에서 참석자들은 무더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조국을 위해 눈물을 흘렸던 예레미야의 심정으로 간절히 기도했다.

김삼환 대표대회장은 “한국교회는 평화로운 남북통일을 위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야 한

다”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한국교회는 물론 대한민국도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남북이 함께 사는 한반도 통일을 이뤄주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김중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대독한 축하 메시지를 통해 “독일 라이프치히 니콜라이 교회에서 시작된 작은 기도모임이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린 통일 독일의 출발점이 되었다”며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받아 대한민국의 힘찬게 재도약하고, 우리 민족 모두가 자유와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예배 사회를 인도한 오정현 사랑의교회 목사는 “광화문에서 남대문까지 모인 예배자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높일 때 통일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며 “측량하지 못할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자”고 말했다.

메시지를 전한 이영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과 장종현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 총회장은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실 것”이라며 “탐욕과 불신, 분

열을 절제히 회개하고 눈물로 영적 대각성을 이루자”고 독려했다. 소강석 새에덴교회 목사와 김상현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중부연회 감독도 “한국교회가 남북통일을 위한 평화의 메신저, 교량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야마 레이지(한일전선선교협력회장) 목사는 “일본과 일본교회가 한국교회에 우상숭배를 강요한 것을 회개한다”면서 “한국의 여러 분에게 용서의 마음을 구한다”며 “일본 정부에 식민 통치에 대한 사죄를 촉구할 것이다. 일본이, 일본교회가 저지른 죄를 부디 용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혜훈 유관순열사기념사업회 회장은 “마음 깊이 우러난 일본교회의 사죄를 받아들인다”며 “일본이 우리의 재산과 생명을 침탈했던 일제 강점 36년간의 어두운 과거를 벗어나고 미래로 나아가길 원한다”며 일본정부의 반성을 촉구했다.

참석자들은 평화적 통일, 탈북민과 북한동포의 복음화, 나라와 민족·지구촌 평화, 동성결혼 합법화 반대, 이슬람 문화의 확산 저지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 참석자

들은 “남과 북 사이의 미움과 분단을 부추겨온 거짓 이데올로기의 우상을 변별하는 지혜와 그것을 깨뜨리는 용기를 달라”고 간구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부를 때는 자료집에 인쇄된 태극기를 일제히 펼치는 장관을 연출했다.

기도회에는 양병희(한국교회연합) 황수원(한국장로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용재 기감 감독회장, 정영택(예장통합) 유동선(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장, 박무용(예장합동) 부총회장, 손인웅(덕수교회 원로) 이정희(신촌성결교회) 최이우(종교교회) 정성진(거룩한빛광성교회) 목사 등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대거 등단해 한국교회 전체가 참여하는 행사임을 확인했다.

지난 1월 1일 임진각에서 열린 한국교회평화통일기도회에서 출발한 이날 기도회는 C채널 CTS CBS gTV로 생중계됐다. 2시간가량 진행된 기도회는 전 감독회장의 축도로 마무리됐다.

이날 국내 45개 지역에서 평화통일기도회가 잇따랐다. 경남 창원 진주 등 경남 지역 18개 시·군 교회들은 마산실내체육관에 모여 평화통일을 위해 함께 기도했다. 전북 전주 익산 등 전북 지역 14개 시·군 교회들도 전주실내체육관에서 평화통일기도회를 열었다.

해외 48개 지역에서도 기도회가 열렸다. 미국 뉴욕성결교회, 시카고호반교회, 영국 런던행복교회, 독일 드레스덴한인교회, 그리스 아테네한인교회 등 북·남미와 유럽, 아시아 등 주요 국가에서도 기도의 불꽃이 모아졌다. 주최 측은 “국내의 140개 도시에서 이날 중에 ‘통일기도회’라는 명칭으로 70주년 기념 기도행사에 동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리아를 공연했다. 하랑은 새터민을 중심으로 구성된 연주단으로 북한 해금·대금·양금, 한국 해금·대금 등 남과 북의 전통악기로 무대를 꾸몄다. 성결교회 뮤지컬팀 공연도 이어졌다. 아프리카 원주민 복장을 한 청년 수시명이 무대 위로 올라서서 객석에서 함성이 터져 나왔다. 한 청년이 무대 중앙에서 타악기를 두드리며 웅장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청년들은 원주민들이 의식을 치르는 듯한 퍼포먼스를 펼치더니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을 형상화했다. 뮤지컬팀의 공연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처음 제작된 ‘우모자(umoja)’

다. 우모자는 남아공 토속어로 ‘함께 하는 정신’이란 뜻이다. 70년 분단을 청산하고 통일 열망을 공연에 담은 것이다. 영국 일간 인디펜던트는 이 뮤지컬에 대해 “악마와 검은 댄스, 천사의 노래”라고 평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뮤지티스트 권병호 씨가 무대에 올랐다. 권씨는 눈을 감고 하모니카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를 연주했다. 이어 악기를 대금으로 바꾸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연주하는 것으로 문화공연은 마무리를 맺었다.

이를 위해 한국교회의 역량을 총 결집했다. 무엇보다 기도로 준비하는 행사였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 1월 1일 임진각에서 열린 신년 통일기도회를 시작으로 매주 월요일마다 통일기도회로 행사를 준비해왔다고 주최 측은 설명했다. 또 3·1절 통일기도회에 이어 지난달 말 개최한 통일기도회 전진대회를 통해 한국교회의 관심과 동참을 독려했다. 8·9선언문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탄생한 평화통일을 향한 한국교회의 고백이자 다짐이다.

◇평화통일운동, 이렇게 실천하자=기도회 말미에는 ‘평화통일을 위한 한국교회 실천강령’(표 참조)이 선포됐다. 한국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한반도 통일을 위해 세부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지침이다. 기도운동과 북한주민돕기 활동, 통일기금 조성, 평화통일에 대한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마음을 모아 기도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면서 “한국교회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고,

회는 한반도의 압제를 없애고 희년의 세계를 만들고자 하시는 성령의 활동에 모든 힘을 다해 동참하겠다”고 선포했다.

끝으로 선언문은 ‘한국교회는 선교 초기부터 민족을 사랑했고 애국과 개화의 요람이었으며, 민족의 빛이었다’고 상기하면서 ‘우리는 민족을 살리는 일이 하나님의 명령임을 깨닫고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가겠다’고 다짐했다.

◇기도회와 8·9선언문이 탄생하기까지=1907년 평양대부흥운동 ‘1974년 엑스플로 74대회’ ‘1984년 한국기독교100주년선교대회’ ‘2010년 한국교회 8·15대성회’. 이번 평화통일기도회는 그동안 한국교회가 펼쳐왔던 기념비적인 연합 행사들의 연장선상에 있다.

기도회 준비위원회 관계자는 9일 “기도회는 한국교회와 대한민국 국민에게 한반도 평화통일에 대한 비전을 함께 공유하고 마음을 모아 기도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면서 “한국교회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고,

선될 수 있겠느냐고 하더라”며 “선거법을 개정해 돈을 쓸 필요가 없는 깨끗한 선거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두 후보는 불법 대출브로커와 연루돼 논란이 되고 있는 총회연금액단 문제도 짚고 넘어갔다. 이 목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며 “법과 진실에 따라 해결해 모든 사람에게 신뢰받는 연금재단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문 목사도 연금재단 개혁을 가장 시급한 정책과제 중 하나로 꼽으며 “30·40대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재단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연금 납

## 문화행사 축제 한마당...기도 열기 가중

‘광복 70년 한국교회평화통일기도회’가 열린 서울광장은 다양한 문화행사로 열기를 더했다. 주최측 관계자들과 어린이, 탈북민, 다문화가정 대표들은 감사 회개 사랑 생명 평화 통일 희망을 위해 7차례 북을 울리며 기도회의 막을 열었다.

문화행사의 오프닝은 청년예원 문화연대 리오(RIO·한복소리로 응원하는 사람들)가 장식했다. 태극문양을 상징하듯 빨간색 상의에 파란색 청바지를 입은 청년들이 나와 CCM ‘주의 길’에 맞춰 태극기를 힘

차게 흔들었다.

첫 번째 공연이 끝나자 청년 수시여명이 무대 위로 올라왔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들 (종락) 우리 사랑해요 두 팔 벌린 이만큼(컴백선밴드 ‘사랑하기 때문에)’

통일을 염원하는 듯한 가사를 배경음악으로 이들이 경쾌하게 춤을 추자 수많은 성도들은 폭염 속에서도 박수를 치며 화답했다. 청년들은 통일 이후 하나 된 한반도를 상상한 듯 밝은 표정이었다.

이어 원코리아 하랑이 ‘원더풀 코

## 한국교회 8·9 평화통일선언문 무엇을 담았나

9일 열린 한국교회평화통일기도회에서는 광복 70주년을 기념하는 ‘평화통일기도회 선언문(8·9선언문)’이 발표됐다. 한국교회와 대한민국, 나아가 한반도를 향한 기도회 참가자들의 염원을 담은 12개의 다짐과 각오가 들어 있다. 선언문에는 이번 기도회의 키워드인 감사 회개 사랑 생명 평화 통일 희망의 메시지가 두루 담겨 있다.

◇“한반도의 ‘바벨론 포로기’를 속히 끝내자”=8·9선언문은 ‘한국교회가 하나 되어 상한 심정으로 철저히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여실 것으로 믿는다’고 선포하면서 ‘지난 70년 동안 이어져 온 이 민족의 바벨론 포로기를 종식하자’고 강조하고 있다. 선언문은 ‘가난하고 처참했던 이 민족을 살리고 오늘의 번영된 민주 대한민국을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며 ‘감사의 메시지로 서두를 장식했다.

선언문은 ‘한국교회는 분단의 죄악을 극복하지 못했다’고 회개하면서 ‘민족의 평화통일을 교회의 핵심과제로 삼고 분단 극복을 위해 힘써 기도하며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오늘의 화해와

내일의 평화통일을 이루는 첨검은 서로 정죄하는데 있지 않고 지금 있는 그대로의 상대방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데 있다’는 용서와 화해의 메시지도 담았다.

선언문은 ‘우리는 동독 니콜라이 교회의 월요기도회가 베를린 장벽을 허물고 독일을 통일시킨 역사를 기억한다’면서 ‘기도의 힘이 분단의 사슬을 끊고 민족의 역사를 바꿀 것’이라고 기도 운동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선언문은 ‘한국교회는 곤경 속에 처한 북한의 형제자매들을 살리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며 대북 인도적 지원 활동의 당위성을 밝혔다.

이 ‘우리는 흥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명예의 줄을 끌러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 기도하며 일할 것’이라며 ‘한국교

### 불법대출 논란 연금재단 개혁 한목소리

#### 예장통합 부총회장 후보 소견발표회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장 정영택 목사) 100회기 부총회장 후보들의 서울·수도권 지역 소견발표회가 6일 서울 종로구 대학로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열렸다.

이 목사(기호 1번)는 본질로 돌아가는 총회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동성애차별 금지법안을 언급하며 “이 법안이 통

과되면 타종교 차별금지도 이어져 ‘예수 믿어야 구원 받는다’란 말도 못하게 된다”며 “기독교 진리가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목사(기호 2번)는 ‘선거법 개정’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는 “부총회장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하니 가난한 교회의 목사가 당

## 동성결혼 합법화 논리의 실체를 말한다(하)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면 그 파장은 단순히 동성 부부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부모자녀 등 가족관계의 혼란은 물론 ‘근친혼(近親婚)’ 및 중혼(重婚) 금지’라는 가족과 가정을 보호하기 위한 마지막 울타리까지 허물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에이즈 확산을 조장해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도 문제다.

### 근친혼·중혼까지 ‘도미노 합법화’ 요구할 수도

#### 동성결혼이 몰고 올 사회적 파장

◇동성애자들, 동성결혼이 가져올 사회적 파장 너무 쉽게 생각=동성결혼이 법적으로 인정되면 엄격하게 제한해 오던 결혼의 범위가 확장된다. 여러 비정상적 행태까지도 결혼으로 인정해 달라는 요구가 빗발칠 것이고 동성결혼 허용으로 무너지 사법체계로는 이를 막아내기 힘들다. 결국 가정과 가족의 안정성이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고 자녀들도 불안정한 환경에서 자라게 될 우려가 높다.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면 일시적으로 동거하는 커플들도 부부에 준하는 권리를 달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일부다처, 다부다처 등 일부일처제에 반하는 행태의 합법화도 시도할 수 있다.

실제로 미국에선 일부일처제라는 결혼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소송이 진행 중이다. 2명의 아내를 둔 네이션 폴리머시는 지난 6월 미국 연방대법원의 동성결혼 합법화 발표 후 ‘일부다처제도 인정해 달라’며 미 몬테나주 법원에 요청서를 제출했다. 폴리머시 부부 3명은 “미국 대법원이 동성결혼을 인정한 것처럼 일부다처제에도 똑같은 결혼의 권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김조광수(50)씨는 19세 연하남과 결혼신고를 수리해 달라며 서울서부지법에 제출한 가족관계등록 비송 사건 신청서에서 “동성 부부에게 법률혼이 가능해진다고 하더라도 기존 결혼제도의 법적 틀은 변하지 않는

다”고 주장했다. 이는 동성결혼 합법화가 가정과 가족에 미칠 영향을 의문한 무책임한 주장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동성결혼, 동성에 조장해 에이즈 감염률 높일 위험성 있어=동성결혼을 합법화하면 동성애에 대한 우리 사회 최후의 저지선을 무너트려 동성에 확산에 기름을 부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결국 동성애가 주 요인인 에이즈의 감염률 상승으로 이어져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한다.

김씨는 이를 의식한 듯 신청서에서 “한때 에이즈가 동성애자들만의 질병이라는 오해가 널리 퍼져 있었다”면서 “에이즈 감염인 중 동성애자 비율이 높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은 국민일보 보도를 통해 여러 차례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공식 문건에는 ‘남성 동성애자 간 성접촉이 에이즈의 주요 전파 경로’라고 명시돼 있고,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보고서에 “한국 에이즈 감염인 중 다수는 남성 동성애자”라고 나와 있다.

이태희 미국변호사(법무법인 산지)는 “동성애자들은 자신들의 성적 쾌락과 만족을 위해 합법적인 부부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하며 전통적 결혼제도를 붕괴시키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성평등조례 문제조항 대전시 “삭제하겠다”

### “모법인 양성평등법 위배” 여기부 시정 공문에 ‘백기’

여성가족부가 동성애자를 포함한 성소수자 보호·지원을 명시하고 있는 성평등기본조례의 개정을 대전시에 강력히 요구했다. 대전시는 “해당 문구를 삭제하겠다”고 밝혔지만 대전지역 교계는 문제의 조항이 완전히 삭제될 때까지 경계를 늦추지 않기로 했다.

◇여가부 “양성평등기본법 취지에 안 맞아 대전시에 시정 요구”=여가부 관계자는 6일 “성소수자와 관련된 대전시 조례가 상위법인 양성평등기본법의 취지와 맞지 않기 때문에 대전시에 조례 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4일 발송했다”면서 “관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해 달라는 요청을 5일 재차 전달했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대전시에 보낸 ‘성평등기본조례에 대한 시정요청’ 공문에서 “양성평등기본법은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권리와 책임, 참여 기회를 보장해 남녀가 함께 만드는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법”이라며 “따라서 성소수자와 관련된 개념이나 정책을 포함하거나 이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전시 성평등기본조례가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위법한 사항을 시행한다면 성소수자 관련 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입법취지를 벗어난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시는 그동안 ‘동성애자도 한

남성이자 한 여성이다. 그들의 인권도 보호해줘야 한다”며 인권논리를 앞세워 조례 내용이 정당하다고 주장해왔다.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거세지는데도 대전시는 조례 개정과 관련해 전향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

◇대전시 “조례의 문제 조항 100% 삭제”…교계 “끝까지 지켜볼 것”=그러나 여가부에서 공문으로 시정을 요구하자 대전시는 문제의 조항을 완전히 삭제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대전시 여성가족청소년과 관계자는 “조례가 양성평등기본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여가부 의견에 따라 성소수자와 관련된 조항을 100% 삭제할 것”이라며 “법제심사,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 시의회 심의·확정 등을 거쳐 내년 1월쯤 개정된 조례의 공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전지역 교계는 조례가 완벽하게 개정될 때까지 지켜보기로 했다. 김양홍 대전시기독교연합회장은 “대전시는 문제의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물론 ‘성 평등’을 ‘남녀 간의 양성평등’으로 분명하게 박아야 한다”면서 “대전지역 교계는 이성 간의 결합만 결혼으로 인정하는 대한민국 헌법과 건전한 전통문화를 지키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재복 대전총리클럽 대표회장도 “국민일보 보도를 통해 대전시 성평등기본조례가 얼마나 터무니 없는 것인지 드러나 여가부의 시정 공문까지 내려왔다”면서 “지역 시민단체와 힘을 합쳐 문제의 조항을 반드시 폐지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전지역 교계는 7일 대전 새로남교회에서 ‘대전 기독교 동성애대책 특별금식기도회’를 갖고 동성애자를 포함해 성소수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해 성평등기본조례를 만든 대전시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했다.

며 “지역별 특성에 맞는 교재를 사용돼 효과를 높이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문 목사는 연령대에 맞는 교회 성장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중·고교생의 경우 미션스쿨 교목의 활동을 방해하는 제도적 제약을 풀고, 대학생의 경우 기독교 동아리 활동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며 “평신도 교육사 제도를 잘 활용해 교회학교 부흥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예장통합은 제100회 정기총회 첫날인 오는 9월 14일 선거를 실시한다.



# ISIS는 이슬람이 아닌가?: 이슬람과 ISIS 관계 연구(4)



전호진 박사  
(미안마개혁신학교신학교, 이슬람 선교 전문가)

### 4. 이슬람 확장: 위로부터의 종교

최근 일부 종교연구소들은 2030년이 되면 무슬림 인구가 30억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였다. 무슬림 인구증가의 중요한 요인은 다산에 있다. 그래서 최근 미얀마 정부는 무슬림이 많은 라카인 주에 무슬림 인구의 증가를 막기 위하여 한 가정에 5명 이상 못 낳게 하는 법안을 결정하였다. (참고로 우리는 종교인구 통계를 너무 민감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유는 종교인구가 다 자기 종교에 확신을 가진 실제적 종교인구가 아니라 종교문화권의 사람들을 무

복할 것을 명령하였다. 그 명령대로 칼리프들은 무력으로 중동 국가들을 정복하였다. 기독교 탄생지와 기독교 국가들이 무력으로 이슬람 국가로 바뀌고 말았다.

### 5. 이슬람 분열: 종파분쟁의 역사

이슬람 테러나 종파 전쟁은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랜 역사와 전통이 있다. 일본의 이슬람 전문가 오즈카 아와라쿠오 교수는 이슬람은 시작하면서부터 이슬람의 이름으로 대외적 전투와 내부전쟁, 혁명을 겪었다고 하였다. 따라서 현재의 급진

10억 이상으로 추산한다. 일부 수니파는 시아파를 혁신자로, 알라의 유일사상의 타협자로 간주한다.

시아파는 약 1억 명으로, 이라크와 이라크, 시리아나 동남아 일부 국가에 분산되어 있다. 이들의 이론은 무함마드의 후계자는 그의 친척이나 혈통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친척들은 지금도 어떤 신적 혹은 영적 권위가 있다고 믿는다. 따라서 지도자를 우상화 할 위험이 존재한다. 호메이니가 신격화된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시아파는 메시아 신앙이 수니파보다 더 강하다. (메시아 신앙: 열두 이맘 중 마지막 이맘이

은 약 3백만명인데, 아사드를 둘러싸고 철저히 지지한다. 시리아 내전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수니파들은 이 종파를 아주 적대시 하여 1983년 아버지 아사드 대통령 때는 흡즈의 수니파가 대거 반대 데모를 하자 무차별 살육하였다. 당시 공군장교였던 시리아 장모에 의하면 탱크와 비행기로 그 도시를 폭격하였다고 한다. 알 아사드는 기독교 신자들에게는 아주 관용적이었다.

“이라크는 피바다가 될 것이다”

과격과 테러는 반드시 비무슬림 세계를 향한 것이 아니라 종파간의 테러도 아주 무섭게 일어

## 이슬람은 통치자로부터 확산되고 무력 통해 확장돼 시아파와 수니파 외 수많은 종파 간 투쟁은 끝없어

조건 자기 종교인구로 계산하기 때문이다. 이슬람, 힌두교, 불교는 막스 베버가 말한 대로 출생 종교에 불과하다. 이슬람 부모에게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무슬림이다. 힌두교, 불교도 동일하다.

아시아에서 이슬람은 더욱 위에서의 종교이다. 즉 한 개인이 이슬람을 받아들여 점차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확산된 것이라기보다, 왕이나 주정부가 종교를 받아들여 모든 국민들이 자신의 종교를 다 믿도록 하였다. 이슬람은 국가통합과 사회통합의 가장 좋은 수단이 되고 충성심을 유발하기 때문에 지도자들이 이슬람을 자기 나라나 부족의 종교로 선택한다. 이슬람은 알라에 대한 복종과 알라가 권위를 부여한 자들에게 백성들이 복종하는 것을 절대 미덕으로 생각한다. 이슬람 국가는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할 때 국가를 위한 전쟁이라기보다 알라를 위한 전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전투정신이 강할 수밖에 없다.

이슬람은 칼을 통하여 확장된 역사이다. 무함마드는 일찍이 비잔틴 제국과 동쪽의 나라들을 정

적 이슬람 운동은 역사의 유산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이슬람도 많은 종파로 분열되었는데, 중요한 분파는 수니파와 시아파인데, 이 두 종파는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다. 그렇다고 모든 수니파 무슬림과 시아파 무슬림이 서로 원수가 되어 싸우는 것은 아니다.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자들도 많으나 IS는 시아파에 대한 전쟁을 중요한 전략으로 생각한다. 두 종파의 차이는 일부 학자들은 기독교의 로마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의 차이로 비교하기도 한다. 즉 수니파는 조직이나 성직자(이슬람은 안수받은 성직자는 없음)는 없으나 조직적으로 좀 느슨한 반면, 시아파는 성직자는 철저한 훈련을 받아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함마드의 후계자는 무함마드 혈통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반면 수니파는 지도자 그들이 민주적 방식으로 선출하면 된다는 것이다.

수니파는 무함마드의 언행, 행실, 실천(순나)을 따르는 신앙. 본문과 법 해석 강조. 수니파는

곧 나타날 것으로 믿는 신앙. 수니파에 의한 억압과 테러 공격에 원한을 가진)

강경 시아파는, 수니파는 무슬림 역사를 왜곡시키고 성지를 파괴하는 자들로 간주한다. 그러나 이슬람 종교는 이들 두 종파 외에 이 종파에서 파생한 많은 종파들이 있다.

주요 종파를 열거하면, 살라피스트와 와하비로서 최소 1천 7백만이나 되는 것으로 추산한다. 이들은 무슬림의 초기 세대를 모방하며 후기 코란 해석을 불신한다. 이 두 종파가 이슬람 과격주의의 원조가 된다.

다음 이스마일파로, 약 1천5백만명으로 추산한다. 알레비파가 있는데, 약 1천만 명이다. 이들은 형식적인 무슬림의 의식을 무시하고 남녀동등을 강조한다. 이들 터키에 많이 있는데, 터키 수니파들은 이들을 이단시한다.

동남아에서 가장 박해받는 이슬람 그룹은 아흐마디아파로서, 약 4백만 명인데, 주로 인도와 인도네시아에 거주한다. 알 아사드 대통령은 시아파에서 분리된 알라위 종파 사람이다. 이들

나고 있다. 이라크에서 자주 발생하는 테러는 양파의 과격파들이 반대파를 향한 것이다. 중동의 그리스도교는 두 종파의 전쟁은 해묵은 역사로 절대로 화해할 수 없다고 본다. 심지어 상대방을 짐승으로 취급한다. 이라크에서 실제로 수니파 무슬림은 시아파 무슬림이 불에 빠져죽는 것을 보면서 짐승은 살려도 수니파 무슬림은 구조하지 않겠다고 말하였다.

미군이 이라크를 떠나면 이라크는 피바다가 될 것이라는 것이 중동 그리스도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였다. 심지어 한국을 방문한 시리아 한 지식인 무슬림도 솔직하게 필자가 “미군이 철수하면 이라크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질문에 서슴치 않고 “sea of blood”라고 답하였다. 이것은 잘못된 예언이 아니라 하는 것을 현실은 증명하고 있다.

(계속)

이메일: hjjun01@hanmail.net



### 헝가리 부다페스트

Dear, 기도와 사랑, 또는 물질로 후원해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무엇보다 건강하며, 평안하신지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시18:1). 주여!

기도와 사랑, 또는 물질로 후원해주셔서, 큰 힘이 되었으며 깊이 감사드립니다. "주의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마24:45)이 되어, 그 책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버지여...!

지난 한 달간 소식, 감사와 기도제목을 나누고 싶습니다.

1. '집시 어린이 2차 캠프'를 감사히 잘 마쳤고, '3차 캠프'는 8월 첫 금요일부터 있게 됩니다. 특히 함께 참여한 20대의 두 어머니에게 자녀를 향한 비전을 심어줄 수 있어서 감사하였습니다. 3차 캠프에는 14명이 참여하게 되는데, 그들 평생에 아름다운 추억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어린이 주일학교'를 성실히 나오는 아이들에게 다 한번씩 캠프의 혜택을 주는 것이 저희 계획입니다.

2. 방문객들이 있습니다. 외국인 예비 선교사들이 타문화 적응 훈련 등으로...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빛진 자라"(롬1:14).

예배 선교사(미국인, 독일인, 불가리아인)들이 저희 교회에서 관찰하고 경험한 것이, 향후 그들의 선교헌신에 위로와 격려가 되게 하소서! 또 세 명의 성악을 전공한 청년들이 방문하여 섬겼습니다.

8월에는, 제자 가족 등 세 팀이 방문하게 됩니다. 오래간만에 만나



는 그들을 통해 서로 기쁘게 하소서!

3. 저희 '쇼 & 빌라고샤그(소금과 빛) 교회'가 구원의 방주되게 하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복음 전파하며, 주님 사랑 나누는 교회되게 하소서! 비록 가난하고 소외된 그들이지만, 재할하고 변화하여 새벽이슬 같은 주의 종들이 많이 나오게 하소서! 특히 "주일학교"를 통해, 집시어린이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착하고 올바르게 성장하게 하옵소서! 동역자와 섬김이들을 축복하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피에르 전도사, 임레& 일디꼬 부부, 노베르트, 클라라, 주잔나, 안드라쉬& 벨라카 부부, 디네쉬, 크리스티나와 에스테르 가족...)

4. "거리의 교회"로 영육간의 양식을 나누는, 허타르 거리와 남부역에 모이는 자들도 축복하옵소서! 일주일에 3일을 금식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양식에 갈급한 자들이 되어, 거듭나게 하옵소서!

5. 저희의 미션: 집시 슬럼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평범하면서도 성실히 살아가도록 돕는 것...! "킨 거리"는 철거에 들어가기 전에 봉쇄되므로 사역을 접게 되었습니다. "회쉬 거리"도 언젠가는 철거가 될 것입니다. 그 전에 복음으로 그들이 구원받고 변화되게 하옵소서!

"살라쉬 거리" 사람들은 가난하지만, 주정부에서 임대해준 아파트에 합법적으로 주거하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조그만 방 하나에 남녀노소 아랑곳없이 11명이 함께 자는 등 교육환경이 너무나 불행합니다. 그러다보니 성경말씀과 인륜에 어긋나는 일들이 당연히 받아들여지고, 그 삶에서 헤어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평범하면서도 행복하게 성실히 살아가도록 돕는 것이 저희 미션입니다.

감사드리며, God bless you!  
헝가리 흥부선교사, 김홍근& 서명희 드림.  
이메일: mylovehungary@hanmail.net

**DYNAMICS** 다이내믹스  
태권도 겸도 무술장비 전문업체  
교회 티셔츠, 교회 티셔츠, 프린팅 및 자수, 광고매너, 교회매너 제작  
www.dynamicsworld.com  
T. 516.354.8484 F.516.354.8383  
245-14 JERICHO TPKE, FLORAL PARK, NY 11001

**LA GUEST HOUSE**  
LA 호텔식 하숙  
965 Fedora St, Los Angeles, CA 90006 (올림픽 길스 전기앞)  
Tel, 213,487,5446 Cell, 213,663,9181 Email, laguesthouse@live.com

세계로 뻗어가는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  
기사제보와 문서선교 후원을 받습니다.  
L.A. :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E-mail: la@chpress.net  
N.Y. :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사랑과 행복을 드리는  
**‘한나 꽃집’**  
Hanna Flower Shop  
각종 선물포장, 꽃/과일바구니  
결혼 꽃 / 파티 꽃, 축하 꽃다발 / 장례 꽃  
한국 꽃배달 / 타운내 무료배달  
주소: 4034 W. Olympic Blvd, LA, CA 90019  
전화: (323)936-1077 / (213)254-7003

**회비무료, 점심제공**  
**하나님의 구원계획 세미나**  
1. 일시: 2015년 7월 14일(화) 오전 10:00~ 오후 4:00  
장소: 조지아 서라벌 레스토랑 (770)497-1155  
3040 Steve Reynolds Blvd, Duluth GA 30096  
2. 일시: 2015년 8월 4일(화) 오후 2:30~ 오후 8:00  
장소: 달라스 수라레스토랑 (972)243-5656  
2240 Royal Ln. #106 Dallas, TX 75229  
3. 일시: 2015년 8월 6일(목) 오전 11:00~ 오후 5:00  
장소: 휴스톤 서울가든 레스토랑 (713)935-9696  
9446 Long Point Rd, Huston, TX 77055  
강사: 라흥채 목사 (뉴욕제자들교회)  
구약, 신약과 예언서인 다니엘서 계시록을 통하여 창조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한눈에 알아볼수있는 "하나님의 구원계획" 성경세미나  
**도서주론**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터 GPS Center  
도서주론 연락처 (917)588-2934, (917)968-1024 / 주소: P.O.Box 610178 Bayside, NY 11361  
Email: Gpscenter2014@gmail.com / 미주크리스천신문 718-886-4400(NY), 323-665-0009(LA)(판매)





# 하나님의 구원계획 (2)



**라훅채 목사**  
(뉴욕제자교회 담임)

### ② 출애굽기

애굽으로 이주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간 거주 하면서 속박을 받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박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다. 바로왕이 모든 히브리인의 어린 남자 아이를 죽이라는 명령을 내린 시기에 모세가 태어났다. 모세는 바로의공주의 양 아들로 애굽 궁전에서 교육을 받으며 자라났다. 모세는 애굽인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피하여 40년간을 지냈다.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세상(=애굽)에서 나와야(출애굽)만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암재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출1:1-22) 출애굽 시키기 위해 모세를 부르시고, 소명을 갖게 하시고(출3:1-22) 하나님께로부터 능력을 받아(출4:1-31)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지 않는 애굽왕 바로 앞에(출5:1-23) 나가 열 가지 재앙들을 쏟고(출7:1, 13-16) 이것을 통해 애굽 바로왕은 출애굽을 모세에게 허락한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하기 위해 꼭 한 가지 해야 할 사상이 있다.

열 가지 재앙 중 마지막 장자 죽음의 재앙은(출11:4-12:28) 이스라엘 백성이나 그 어느 누구나 이 재앙을 준비할 때 출애굽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각 가족대로 흠 없고 일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 피로 집문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을 때(출12:7) 장자 죽음의 재앙이 통고된다는 사실이다. 이 유월절 행사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도 꼭 준비되어야 할 때는 이렇게 하여야 한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흥해를 건너 광야에 이르러 시내산 앞에서 장막을 쳤다(출19:2).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출20:1-24:8) 성전 건축법과

출26:1-31:11) 성전에 드릴 예물(출25:1-40) 등등 모든 율법 교육을 받게 하셨다.

### ③ 레위기

율법 수업이 끝나고, 또 성막 건축 수업이 끝나고 후, 하나님이 성막에서 드리게 될 제사와 절기에 대해 말씀하셨다. 12지와 중 레위지파는 제사장을 수종드는 지파이며, 레위인은 성막 안에서 봉사하고 제사장은 모든 제사를 주관한다.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 나오는 길을 반듯이 5가지 제사(하나님께 나아가는 법)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게 그 길을 열어주셨다.

첫째 나가는 길은 번제를 통해(레1:1-17) 두 번째 나가는 길은 소제물(레2:1-16) 통해, 세 번째 화목제물(레3:1-17), 네 번째 속죄제물(레4:1-5:13), 다섯 번째 속건제(레5:14-6:30)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하셨다. 이 말씀들

되었다. 민수기에는 두 번의 인구조사(민1장, 26장)가 기록되었다. 첫 번째 인구조사가 있는 후에 시내산에서 율법과 5가지 제사법과 7가지 절기와 성막 짓는 법을 알려 주셨다.

첫 번째 인구조사 결과 20세 이상 남자만 계수하였는데 603,550명이 되었다(민1:46). 전체인구는 200만명이 넘는 것이다 인구조사 이후에는 시내산에서 가데스바네(민13:26; 32:8)에 이른다.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떠난지 430년 후 다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 각 지파에 한사람씩 총12명을 뽑아 가나안을 40일간 정탐한 결과 여호와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 긍정적인 보고 하였으나 10명은 부정적인 정탐 보고로 인하여 백성들은 원망과 징계(민14:1-45)와 백성의 불평(민11:1-35)을 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들에게 율법을 가르친다. 모세가 첫 번째 율법을 모르는 자들에게 가르친 것이 두 번째 율법이다. 모세가 첫 번째 율법을 모르는 2세대들에게 세 번째로 설교한 것이 두 번째 율법 신명기이다.

첫째,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일(신1:1-4:43) 모압 평지에 도착한 출애굽 2세대들은 심계명 언약을 모르므로 첫 번째 언약을 갱신하게 된다.

신명기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 거할 새 세대들이 하나님과의 언약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 필요로 했던 시내산 언약의 갱신을 강조한다. 갱신된 언약은 단순한 수정 보완이 아니라 인간 측의 언약 당사자가 바뀔로 인해 필연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조이었다.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간의 언약관계를 지속하기위한 것이었다.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의 우

모세는 성안에 거하는 백성을 모으고, 그들로 듣고 배우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산에서 죽어 네 조상에게로 돌아갈지니(신32:50)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하며(신33:1-29) 여호와와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으리라(신34:5-6).

그 다음 여호수아는 군대장관(수5:13-15)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400년간을, 또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비어있던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때 여호수아는 법규와 제사장들을 앞세우고 그 뒤를 따를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수3:15-17), 여러고성은 함락되고, 가나안 북부와 남부를 점령한 후 여호수아는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게 된다.

율법서의 결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길을 떠난 이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먼저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인 여자의 후손을 통해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다.

창세기는 어린아이 같이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일과 내가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로 알게 시키는 일이 끝난 후에, 어린아이가 성장하여 유치원부터 대학원까지 공부하는 시기가 출애굽기로부터 신명기까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교육을 받은 시기가 신명기에서 끝난다. 그 다음 직장과 사업을 통해 돈을 벌며 가족이 형성되고, 사회의 일원으로 사는 과정이 여호수아서로부터 시작이 된다.

▲이메일: Gpscenter@gmail.com  
(다음호에 계속)

## 출애굽의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주님 만나는 것 예표 하나님께 나오는 5가지 제사법은 예수 통해 구원 받는 길 예시 신명기는 언약갱신·하나님의 유일성·자녀 영적교육 가르쳐

은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는 길이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일곱 절기(레1:1-27; 35-38; 신16:1-22), 그 절기(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오순절), 나팔절(신년절), 속죄일, 초막절(장막절, 수장절)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였다.

### ④ 민수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시내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2년2개월 후에(민1:1) 인구조사를 하게

을 광야에서 방황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구조사 후 시내산 광야를 출발하여 바란 광야로 이동(민1-30)하였으나, 출애굽한 1세대들은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 모세만 살았고 다시 인구조사를 하게 되었다.

가데스바네에서 12명의 가나안 정탐이 있던 후, 40년 광야 생활 후에 두 번째로 인구조사가 모압 평지에서 이루어졌는데 그때 계수한 인구의 수는 601,730명이 되었다(민26:51).

⑤ 신명기  
모세는 평지에서 출애굽 2세대

율성을 말씀하셨다. 신명기의 주요 사상은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유일하신 여호와라는 것이다(단4:35).

세 번째는, 신명기는 부모가 하나님께 대한 증인으로서 자녀들의 영적 양육에 힘써야 할 것을 강조한다(신4:9; 6:7; 11:19). 그 신앙 교육 방법으로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신6:8; 11:20), 길은 네 귀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술을 때달라(신22:12), 경건한 종교의식에 참여하게 하는(신29:11,12) 일이었다.

## 십자말 • Cross Word (93)

### 김기호 장로(본지 교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가로 푸는 열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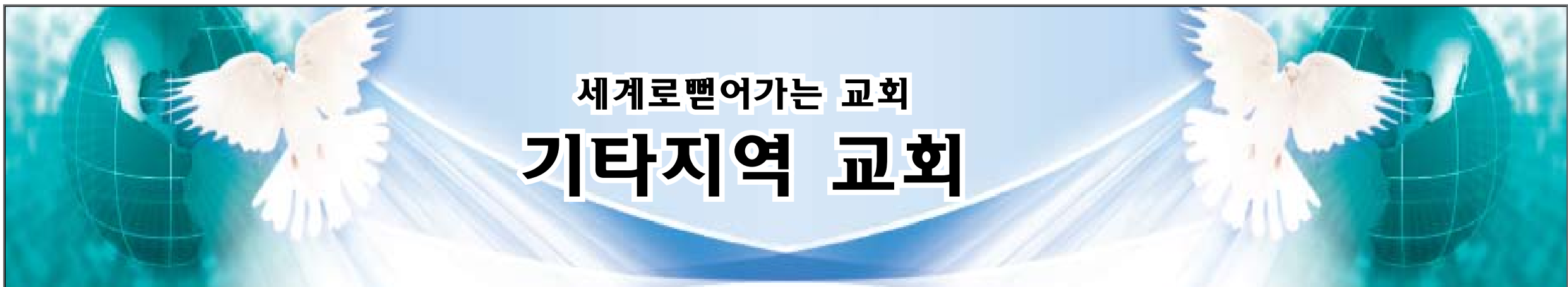
1. 예수님 십자가에 달린 곳(해설찬송 150장).
3. 봉헌식에 바치는 예물(민7:11).
6. 새나 물고기를 잡는 기구(잠1:17).
7. 각종의 희생제사 중의 하나로서 포도주를 붓는 의식(빌2:17).
8. 떠나가는 손님을 잠시 나가 작별하여 보냄(명).
9. 고장 나가나 허름한 데를 손보아 고치는 사람(국).
10. 아덴에서 바울과 정론한 철학자(행17:18).
13. 아론과 어린아(창43:33).
15. 무엇에 끼우기 위해 만든 둥근 물건(출29:31).
16. 전체속의 한 쪽(고전13:9).
19. 돌라의 아들이며 족장(대상7:2).
21. 남자와 여자와 늙은이와 젊은이의 총칭(출10:9).
23. 일을 시킴을 당하는 자(히1:7).
25. 마아가의 아들이며 다윗의 용사(대상11:43).
27. 좋지 못한(상상25:17).
28. 아셀 지파 헬렘의 아들(대상7:35).
29. 6일 동안 매일 한 번씩 들고 제7일에는 나팔 불며 고향을 지르니 무너졌다(수6:26).
30. 예루살렘 공회위원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죄인으로 판정한 자(행4:6).

### <세로 푸는 열쇠>

1. 수리아 동편 수도요 유브라데 강 동안에 있는 도시(사10:9).
2. 보배로운 물건(마6:21).
3. 이민 와서 여인네들이 이곳에서 많은 옷을 만들었다.
4. 겸손한 마음으로 경배하는 일(요4:20).
5. 높보다 작게 물이 권 곳(사30:14).
7. 관직에 있는 사람(삼상8:15).
9. 무슨 일을 하는데 애쓰고 힘을 들임(딤후2:6).
11. 남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딤후2:1).
12. 세레마의 아들(렘37:13).
14. 남편이 있는 여인(신22:22).
17. 분하여 몹시 화를 냄(욘5:2).
18. 몹시 지치고 기운이 풀리고 몸이 나른하여(시69:3).
20. 하는 일마다 되지 않음(고사성어).
21. 첫 사람 아담의 성별.
22. 바울의 동역자(롬16:21).
24. 어떤 일을 하여 낼 수 있는 힘(스2:69).
26. 전쟁이나 분쟁으로 세상이 어지러워 백성이 뿔뿔이 흩어지는 사태(막13:7).
28. 그곳에서 생산되는 온갖 물건(레23:39).

### 십자말 정답

요	안	타	브	이	르	니	판
르	단		니	히		빠	히
히		우	르	으		르	
요	빠	주	로		니	사	단
	엔	요			르	타	
빠		구	단		안	빠	빠
빠		도	빠	빠		판	
단	이	히	빠		빠	요	
도	트	이		으	요	빠	빠



<b>갈보리장로교회</b> 담임목사: 조용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후 7:30 (월-금) 오전 6:00(토) Tel: (702)579-7576, Fax: (7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b>덴버에덴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세환 주일예배: 오전 11:30 영어예배: 오전 10:45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Tel: (303) 364-1621 389 Quentin St., Aurora, CO 80011 www.kopscchurch.org	<b>몽고메리교회</b> 담임목사: 최혜근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610)222-0691, 267-471-7777 Fax: (610)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b>벅스카운티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종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 어 배 회: 오전 10: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Tel: (410)461-1235, Fax: (410)461-6823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b>벤델교회</b> 주일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부흥예배(한): 오후 1:45 EM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907)344-6446, Fax: (907)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b>보스턴장로교회</b> 담임목사: 전덕영 주일한국어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대학원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전 11:00 주일부흥예배: 오전 11:00 주일부흥예배: 오후 7:00 주일부흥예배: 오전 11:00 주일부흥예배: 오후 7:00 Tel: (508)425-4579, Fax: (508)435-5467 2 Main St., Hingham, MA 01944	<b>샬롯장로교회</b>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새벽기도: 새벽 6:00 주일아침예배: 오전 10:45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주일영국예배: 오전 11:00 중, 고등부예배: 오전 11:00 Tel: (704)529-0900 / 0998(팩스겸용) 701 Scalesyark Road, Charlotte, NC 28209
<b>새시온침례교회</b> 담임목사: 정용교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어)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Tel: (360)456-0191 6007 Pacific Ave., SE P.O. BOX 8358 Lacey, WA 98509	<b>시애틀평강장로교회</b>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영어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토요일: 오전 6:30 Tel: (206)527-0981, Fax: (206)524-1746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www.kopscchurch.org	<b>안디옥교회</b> 담임목사: 강중수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702)749-9929, Fax: (702)748-3825 3825 Melody Ln., Las Vegas, NV 89108 www.onychurch.org	<b>알칸사 제자교회</b>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 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 오후예배: 오후 4: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 (501)920-9049, 사택: (501)425-5178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www.ijacs.com	<b>앵커리지델린문교회</b> 담임목사: 유제일 주일 1부예배: 오전 10: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주일부흥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Tel: (907)344-6446, Fax: (907)344-3182 8200 Briarwood St., Anch., AK 99518	<b>엘파스델린문교회</b> 담임목사: 하태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00(영어)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Tel: 교회: (915)755-1490, 사택: (915)751-4365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	<b>영생장로교회</b> 담임목사: 이용걸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2:00 주일4부예배: 오후 2:3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Tel: (215)542-0288, Fax: (215)542-9037 706 Witmer Rd., Horsham, PA 19044
<b>킬린온누리교회</b> 담임목사: 김성환 주일예배 1부: 오전 9:00 주일예배 2부: 오전 10:5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금요부흥예배: 오후 8:00 Tel: (254)634-8705(H), (254)531-1842(C) 1000 E. Valetrens Memorial Blvd. Killeen, TX 76541	<b>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b>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EM)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www.mpcow.org Tel: (703)941-4447, Fax: (703)941-4448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b>주예수교회</b> 담임목사: 배현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수요찬양: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토) www.ikc.org Tel: (804)560-7500, Fax: (804)560-7514 10201 Robious Rd., Richmond, VA 23225	<b>타코마 한인장로교회</b> 담임목사: 박장호 주일 1부 예배: 오전 8시 30분 주일 2부 예배: 오전 11시 주일 찬양예배: 오후 1시 수 요 예 배 회: 오후 7시 새 생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 (화-토) Tel: (253)536-8675, (253)888-9249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www.taconacrc.com	<b>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b> 담임목사: 조진모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청년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 (215)927-0630, Fax: (215)927-0643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www.kucp.org	<b>하트포트제일장로교회</b> 담임목사: 김선만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2:00 수요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토) 오전 6:00 Tel: (860)643-4738, Fax: (860)674-0565 300 Chapel Road Manchester, CT 06040	<b>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회회를 찾습니다</b> ■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 한인 교회를 위한 기독교 교육 이야기 (91)

## 7. 한인교회 기독교교육이 가지는 미래적 과제

### 한인교회를 위한 교육적 기초(Back to Basics) (15)

우리는 지금 한인교회를 위한 교육적 기초들 중 가장 근간이 되는 성경적 기초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교육적 기초들에 이어 신약 성경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교육적 기초들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신약에 나타난 교육적 기초들 중, 복음서들에서 배울 수 있는 기초들을 이미 다루었으며, 지금은 사신서들에서 엿볼 수 있는 교육적 기초들을 상고해보고 있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2:6-16의 본문을 통해 “우리의 교육은 성령의 사역(Education as the word of the Holy Spirit)”이라는 것, 에베소서 4장의 본문을 통해, “기독교 교육의 목적은 교화와 세상을 위해 섬기도록 하나님의 백성에게 모든 준비

지 말고 완전한 데로 나아갈지니라”[개역개정] 위의 본문은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이 그리스도인이 된지 이미 오래되었다는 것과 이에 선행이 되어있어야 할 만큼 신앙적으로 성장했어야 함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땅히 선행이 되었어야 함에도 하는데 아직도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며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젓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라고 지적하며 속한 성장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적을 먹는 어린이와 단단한 것을 먹는 장성한 자의 비유로 신앙 성숙의 단계에 대해 설명을 하며, 곧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하는 자들 및

오고 있습니다. 특히 신앙 성숙도와 연령대별 지적 및 사회적 성장과의 관계성에 깊은 관심을 두고, 각 연령대에 맞는 적합한 신앙교육의 모습, 목적, 패턴, 방법 등에 대해 많은 연구들을 해왔으며, 제법 성과들을 거두어오고 있습니다. 위의 본문도 인간의 신앙이 성숙해간다는 것, 그 성숙에는 단계가 있다는 것, 교육을 통해 성숙하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성숙이 인간의 다른 성숙의 영역들과 관계가 깊다는 것 등 기본적으로는 여러 부분에서 현대의 기독교 교육자들의 연구와 같은 선상에 있다고 하겠습니니다.

그리고 기독교 교육적 관점에서 볼 때 무엇보다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정신애 박사 (사카고 트리니티크리스천칼리지 교수)

## 히5:12-6:2 “교육자 수준이해 및 그에 따른 교육실행의 필요성” 한 그룹 안에서 신앙성숙도 따라 변별력 있는 교육방법 필요

를 갖춰주는 데 있다(The purpose of Christian education is to equip the church-his people-for works of service)라는 것,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7-12절 본문을 통해, “교육에 있어서 관계의 중요성(significance of relationship/relationship building in Christian education)”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6장 2절까지의 본문을 통해 “교육자 수준 이해 및 그에 따른 교육 실행의 필요성(necessity of understanding of/practicing according to the readiness)”라는 교육의 기초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을 보겠습니다. “때가 오래 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며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젓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는 이 뜻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의 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

모든 그리스도인의 신앙 성숙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초보적인 신앙의 단계에서 벗어나 진실한 회개와 신앙, 그리고 당시 유대교의 교리적 이슈들에 매몰되지 말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성숙해 나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본문에서 우리는 교육에 관한 여러 가지 성경적 교훈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교사상에 대한 기초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령이 오래된 자들은 마땅히 교사로 섬길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교사는 신령에 맞게 그 신앙의 성숙도도 마땅히 교사로 섬길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교육하는 이들의 신앙적 성숙도를 이해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부분들이 위의 본문을 살피면서 배울 수 있는 교육적 기초가 될 것이지, 오 늘은 그 마지막 부분, 즉 교육자는 섬기는 자체들의 신앙적 수준을 이해하고 분별해야 하며, 그에 따른 적절한 교육을 실행하여 그리스도를 닮은 장성한 신앙에 이르도록, “완전한 데로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교육적 기초에 초점을 맞추어 보려고 합니다. 사실 현대의 많은 기독교 교육자들은 인간의 신앙성숙의 발달단계에 깊은 관심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과학적 연구들을 꾸준히 이어

섬기는 자체들이 신앙적으로 일관된 수준에 있지 않고 각기 다양한 수준에 있다는 것이며, 이는 심지어 같은 연령대라 할지라도 사회적 경험 치와 지성의 계발도에 따라 천차만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의 교육적 노력 이 자체들의 신앙성숙의 수준을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하며, 그에 적합한 교육을 실행해야 하며, 이를 파악할 수 있는 분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있고 자체들에 대한 진실 어린 사랑과 관심을 소유해야 한다는 교육적 기초를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위의 본문을 통해, 마치 갓난아기에 젖을 주고, 조금 큰 후에는 미음처럼 부드러운 이유식을 주고, 점점 더 단단한 음식과 여러 다른 강한 성분의 음식들도 모두 맛 볼 수 있게 되듯이, 신앙교육에도 이와 같은 원리가 적용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반적인 원리는 언제나 연령대 별로 딱 들어맞는 신앙교육의 모습, 목적, 패턴, 방법이 있다는 이야기 는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같은 연령대에 있는 자체들이라도 신앙의 성숙도는 매우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16면으로 계속)

## 매일가정예배

허윤준 목사(뉴욕새생명장로교회)

### 월 내가 여기 있나니(삼상12:1-5)

암몬 족속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이 크게 두려워했지만 성령충만한 한사람 사울로 인해 암몬족속을 모조리 물리치고 큰 승리를 거두게 됐 습니다. 사무엘은 나라를 새롭게 정비하고 사울의 왕권을 강화시키고 하나님께 감사와 화복을 하는 예배를 드림으로써 온 백성이 크게 기뻐하게 됐습니다. 이때에 바로 사무엘 선지자의 고 별설교가 시작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인 지 모릅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이 기쁨 부으신

왕이 세워진 이후에는 나라를 다스리는 일은 물려주고 뒤로 물러가서 왕과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 에 전념하고 왕과 백성들을 올바르게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하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처음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마칠 때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가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정직하게 살았음을 담대 하게 고백하며(3절) 사역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잠으로 아름답지 않습니까?

### 화 내게 대하여 증거하라(삼상12:2-5)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나이 많을 때 까지 백성들 앞에서 출입했습니다. 출입했다는 말은 “양을 치는 목자”에서 나온 말로써 양떼를 인도 하며 오고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평생 백성들을 돌보며 인도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정말 훌륭하게 모든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런 데도 이제 은퇴하는 순간에도 조금도 흐트러짐 이 없이 후시 내가 백성들 앞에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다 갚을 테니 지금 말해보라고 당당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끝까지 떳떳하게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끝날 때 보면 알고 그 사람이 떠나야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어떻게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그 답은 오직 한 가지, 항상 여호와 앞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항상 주님 만날 날을 생각하며 오늘을 삽시다.

### 수 내가 뉘 소를 취하였느냐?(삼상12:3-5)

또 한가지 오늘 본문에서 주목할 것은 성도의 삶은 특별히 사람과 물질관계가 깨끗해야 합니다. 백성들의 소와 나귀를 취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사사요 제사장이고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에게 모든 권력과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소와 나귀를 빼앗지 않았습니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역을 위해서 늘 풍성하게 채워 주시는 분이십니다. 백성의 것을 자기 것으로 취하면 반드시 끝이 좋지 않게 돼있습니다. 이

것은 지도자들이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이지 못하기 때문 입니다. 또한 남을 속이지 말아야 합니다. 속 였다는 말은 남의 것을 빼앗아 위해 사기를 치고 현혹하고 압박하는 것을 말합니다. 남의 것 을 무섭게 해서 빼앗은 것도 나쁘지만 속여서 빼앗은 것이 더 나쁩니다. 성도는 늘 물질에 깨끗해야 합니다.

### 목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삼상12:2-5)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질 수 있는 것은 자기 권한으로 사람을 속이고 협박할 수 있는 가능성이 평범한 성도보다 더 많기 때문 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한 번도 백성들에게 사기를 치거나 협박을 해서 빼앗은 것이 없었 습니다. 또한 그 누구도 잡혀가지 않았습니니다. 지도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확히 가르치되 늘 성도들을 사랑으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

리고 뇌물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잘못을 행한 사람에게 뇌물을 받으면 눈이 멀어서 그 잘못 을 눈감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도자 들이 가장 범하기 쉬운 큰 죄입니다. 눈이 멀어 서 판단이 흐려지면 올바른 사역을 할 수 없고 마지막에 반드시 후회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니다. 성도는 누구나 끝이 더 좋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 금 너의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이는 여호와시니(삼상12:6-9)

본문은 사무엘의 마지막 고별설교입니다. 핵심 메시지는 성도는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속의 은혜는 항상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무엘이 마지막으 로 백성들에게 한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 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세우 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셨다는 것입니다. 왜 반복할까요? 왜냐하면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하나님께서 사망에서 우리를 구

원해 내셨고 그 후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인도 하셨다는 이 한 가지 심자가의 은혜를 잊지 말 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잊 어야 할 것은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빨리빨리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나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 을 잊지 않을 때 우리의 신앙은 더욱 견고해지 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늘 승리하며 살아 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 토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삼상12:9-15)

하나님께서는 어제도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 회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십니다. 그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항상 신실한 지도자를 세워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사람을 세워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 는 신실한 일꾼이 많이 세워져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도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오직 여호

와를 경외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 니다. 사무엘은 지금 “아! 이 한 가지만 들어준 다면 얼마나 좋을까?”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함 으로 섬기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참으로 놀라운 축복이 넘칠 것입니다. 할렐루야!

#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

<p><b>금관교회</b> 담임목사: 김정민 www.kumnan.org Tel: (82)2-490-7000, Fax: (82)2-436-5770</p>	<p><b>든든한교회</b> 담임목사: 장향희 Tel: (031)977-8383~9, Fax: (031)977-8382</p>	<p><b>로마한인교회</b> 담임목사: 한병우 Tel: 39-06-827-3585, 39-348-339-1726</p>	<p><b>새에덴교회</b> 담임목사: 소강석 대표전화: (031)896-1000, 팩스: (031)896-6077</p>	<p><b>성문교회</b> 담임목사: 황정식 Tel: (82)2-2648-3181~3, (82)2-2646-3184</p>	<p><b>성실교회</b> 담임목사: 김영복 www.seongsil.or.kr Tel: (82)2-958-9988, Fax: 3927-1008</p>	<p><b>성일교회</b> 담임목사: 김정곤 Tel: (82)2-2643-8553~4, Fax: 2648-4662</p>
<p><b>수정교회</b> 담임목사: 조일래 Tel: (82)32-588-0191, Fax: (82)32-582-2738</p>	<p><b>승동교회</b> 담임목사: 박상훈 Tel: (82)732-2341~3, 사택: (02)389-2235</p>	<p><b>시온소교회</b> 담임목사: 김성길 Tel: (031)253-1004, Fax: (031)253-1010</p>	<p><b>신길교회</b> 담임목사: 이신웅 Tel: (82)2-842-1968, 사택: (011)82-2-842-1968</p>	<p><b>신천교회</b> 담임목사: 송용결 Tel: (02)418-0481, Fax: (02)422-0751</p>	<p><b>신촌교회</b> 담임목사: 이정익 Tel: (82)2-786-6579, 사택: (82)2-338-5671</p>	<p><b>안양 제일교회</b> 담임목사: 조 윤 Tel: (011)82-2-927-5511</p>
<p><b>양곡교회</b> 담임목사: 지용수 Tel: (055)210-5500, Fax: (055)210-5510</p>	<p><b>왕성교회</b> 담임목사: 김요나 Tel: (82)2-888-4813, 331-284-7204</p>	<p><b>장위제일교회</b> 담임목사: 김기원 Tel: (02)942-6881, Fax: (02)942-6882</p>	<p><b>주안교회</b> 담임목사: 주승중 Tel: (82)32-527-1009</p>	<p><b>창대교회</b> 담임목사: 최용도 Tel: (82)2-482-3536, Fax: (82)2-488-4508</p>	<p><b>청주주님의교회</b> 담임목사: 주서택 Tel: (043)275-9191, Fax: (043)273-8114</p>	<p><b>충신교회</b> 담임목사: 이진호 Tel: (82)2-793-7740</p>



특별기고



이기홍 목사  
(사우스베이션교회 원로, 전 남가주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

# 광복 70주년, 건국 67주년을 축하하며

8월 15일은 “광복 70주년과 건국 67주년의 날”로 함께 기쁨을 가지며 축하를 드립니다.

시편 126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에서 어려움을 당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을 얻고”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를 드리는 시입니다. 여기에 두 번 “하나님께서 대사(큰 일)를 행하셨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한국을 사랑하는 애국자들, 우방국들의 노력으로 “광복과 건국”이 이루어졌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저는 세 가지 면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생각 하면서 감사하며, 축하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36년간의 일제 속박에서 해방 받은 것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유년 시에 아버지께서 중남 온양국민학교(초등학교) 교감이셨는데 일제의 압박에 견디지 못하여 사표를 내시고 중국으로 망명하시어, 항구 도시에서 안정이 된 후에 저희 가정은 중국에서 생활하면서 항구 도시에 일본학교에 다니다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귀국하여 1년 후인 5학년 무렵에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36년간 나라의 주권은 박탈당하고, 모든 백성들의 이름은 일본어로 개명(니시하라 유키야기)을 하였고, 청년들은 전성터에 끌려가 생명을 잃었고, 젊은 여성들은 정신대에 끌려가 인권을 유린당하는 수모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세계 2차 대전 중에 미국은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탄”을 투하함으로써 일본은 1945년 8월 15일에 미 전함 미조호 호

에서 “황복문서”에 서명하여, 연합군의 승리로 일본은 항복하였고, 우리나라는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그 때의 감격을 잊을 수 없습니다. 일본의 아베 정부는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역사 앞에 회개하고 새로운 마음으로 세계 평화와 위하여 노력할 때, 한일 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둘째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로 대한민국”이 건국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역사를 보면 애국자들이 중국에 망명하여, 1919년에 “임시정부”를 수립하였지만, 정식 정부는 되지 못하였습니다. 1945년 해방 직후에는 사회주의 사상이 범람하여 온 사회가 혼란할 때, 이승만 박사께서는 “공산주의”를 비판하면서, 강력한 리더십으로 1948년 선거를 실시하여 “제헌 국회의원”을 선임하고 그 해 5월 31일에 “제헌국회”가 개최되면서 임시 의장이 되신 이 박사께서 목사인 이윤영 의원에겐 순서에 없는 기도를 부탁하여 간절한 기도 후에 개원되었습니다. 7월 17일에 대한민국 헌법이 국회에서 제정되었고 7월 20일에 이승만 박사는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것입니다.

“자유 민주주의 체제로 대한민국”이 수립한 것은 1948년 8월 15일 서울 중앙청 광장에서 “이승만 대통령 취임식과 대한민국 정부”를 공포한 날입니다. 여기에 “건국 기념일”도 함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1948년 8월 15일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성경책위에 손을 정중히 얹고, 선서를 하신 다음에 연설을 하셨습니다.

“대통령의 직책은 나 한사람의 힘으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애국 동포 여러분들의 협력만이 가능

합니다. 나는 공산당의 매국주의를 반대하며, 북조선 공산주의자들은 하루 속히 회심 개과하여 평화적인 남북통일을 이루어 모든 복리를 함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라고 설교하셨습니다. 이 대통령께서는 일찍이 공산주의자들의 만행을 아시고, “공산당은 호열자군과 같아서 도저히 함께 살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성공 혼란 속에서 모든 반대를 무릅쓰고 “자유민주주의의 대한민국”을 세우신 것입니다.

셋째 나라를 사랑하며, 한국을 발전시킨 “한국 기독교의 중심사상”에 축하를 드립니다.

한국은 지난 70년 동안 해방 혼란기, 6.25전쟁, 4.19혁명, 5.16군사혁명 등 어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적적으로 발전하여 세계 경제 12위 국가로 된 것은 모든 국민들의 노력도 있었지만 “자유 민주주의의 체제”로 나라가 나아갔던 일입니다.

이 “자유 민주 자본주의, 시장 경제 체제”는 “칼빈 신학자가 지적한 대로 “성경적인 사상이며, 정교도 정신”입니다. “정교도 정신”은 열심히 돈을 벌고, 자기가 번 돈은 내 것인 동시에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그 물질로 이웃, 교회, 나라를 위하여 봉사하자”는 것입니다. 여기에 한국 교회와 많은 애국 지도자들의 헌신을 기억해야 합니다.

130여 년 전 한국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기독교가 전파되어 한국인들은 영적으로, 지적으로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일제 속박 시 1919년의 3.1독립 운동도 기독교 지도자들이 중심이 되었고, 한국 교회에서 많은 애국 지도자들이 배출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라를 위하여 “자유 민주주의”를 지

키고 있습니다. 유명인들의 이름을 열거하면 “이승만 대통령, 이시영 부통령, 서재필 박사, 안창호 선생, 김구 주석, 남궁억 선생, 주기철 목사, 손양원 목사, 이승훈 장로, 이상재 장로, 조만식 장로, 김병조 목사, 김교신 선생, 김규식 박사, 신익희 선생, 윤동주 시인, 안중근 선생, 손병희 선생, 유관순 열사, 박관준 장로, 근년에 한경직 목사, 이성봉 목사, 백낙중 총장, 김활란 총장, 김옥길 총장, 강원영 목사, 김준근 목사, 지금도 살아 계시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김동길 교수, 조갑제 선생 등입니다.

조갑제 선생은 “기독교의 청·정치적 공헌 8가지”를 말했습니다.

1. 기독교는 개화의 주역이었다.
2. 기독교는 대한민국 건국의 주역이었다.
3. 기독교는 반공의 중심이었다.
4. 기독교는 호국의 주역이었다.
5. 기독교는 근대화의 생활 철학이었다.
6. 기독교는 민주화 운동의 요람이었다.
7. 기독교는 앞으로 “남북 평화 통일의 십자가 군병”이 되어야 한다(특히 지금도 북한 정치 수용소에서 고문으로 죽어가는 북한 성도들이 속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 받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8. 기독교는 “인류 국가와 인류 시민을 양성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여기에 “한국교회와 미주 한인교회”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져야 하며, 잘못되고 부족한 것은 회개하고 새로운 개혁운동에 기수가 되어 사명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15면에서 계속)

연령대가 어릴수록 보편적인 신앙의 성숙도를 보일 가능성이 높으나, 점점 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환경적으로 어떠한 신앙 경험에 얼마나 노출되어왔으며 어떠한 신앙적 기초를 교육 받았는지에 따라 신앙의 성숙도는 어떠한 매우 크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유스그룹 안에서 수련회 때 기도회 시간을 좀 더 늘려 뜨겁게 기도하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기도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해야 한다는 사실이 매우 새로운 친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기도회 시간을 늘려달라는 친구는 신앙적으로 성숙한 것이고 기도의 패턴이 미성숙한 것일까? 사실 그것은 단편적인 모습만으로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의외로 긴 시간의 기도를 요구한 친구가 성경적 지식이 부족하고 어른들에게 인사를 잘 하지 않는 등 기본예절에 미숙하며, 기도의 패턴이 생소한 친구는 복음서의 이야기들에 정통하고 그에 대해 깊은 감동을 가지고 있으며 어른들에게 인사를 잘 하고 선생님들을 잘 도와주며 기본예절이 잘 갖추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유스를 섬기는 사역자들이라면 소위 “뜨거운 기도”의 갈망 여부와 그러한 경험 유무가 청소년들이 가져야 할 성숙한 신앙의 모습의 기준이 되는지 잘 분

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청소년들이 “감정적”인 동인에 매우 민감한 시기라는 부분에 대한 선이해도 가지면서 말입니다.

이렇듯 신앙의 성숙을 분별하는 기준 자체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각각의 지체들을 섬기는 교육자의 영적인 분별력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대해서도 교육자 스스로 일관된 기준을 세우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피교육자의 신앙의 성숙 정도를 파악하고 이에 걸 맞는 신앙교육을 행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연령별 발달 수준과 부합하는지를 점검하고 조절하는 것이 교육자에게 있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사역자들은 섬기는 지체들의 신앙수준이 다르다면 반드시 그에 적합한 다른 교육을 실행해야 함을 기억하고, 한 연령 그룹 안에서 분별력 있는 신앙교육을 실행할 다양한 방법들을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 신앙의 발달 모습이 한쪽으로 치우친 것인지 균형 잡힌 것인지 분별하고 또한 그것이 그 연령대에 비추어 과한 것인지 부족한 것인지를 분별하여 교육적 실행을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위의 본문을 통해 생 각해볼 수 있었던 교육적 기초입니다.

▶이메일: sinaichung@yahoo.com (계속)

(7면에서 계속)

그러한 그도 치명적인 오점을 남겼다. 207년부터 이단이었던 몬타누스주의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이다. 몬타누스주의란 몬타누스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2세기 중엽에 소위 성령운동을 강조하며 시작된 이단적 분파이다. 몬타누스는 그와 함께 하던 두 여제자들이 성령의 대변자라고 믿었으며, 교회의 조직과 직분을 극렬하게 반대하였다. 한 마디로, 터툴리안이 성령의 권위를 거부하는 성령은사주의에 빠지게 된 것이다. 무슨 이유로 이단을 공격하던 그가 이단을 수용하는 모순의 중심에 서게 되었는지 알려진 바가 없다. 분명한 것은 초대 교회가 매우 훌륭한 교부가 크게 넘어지는 것을 분명하게 목격하였다.

2) 성경이 보인다 - 히브리서 6:4-6; 고전 10:12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특정한 노력을 하여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오로지 하나님만 아신다. 하나님의 일을 안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것은 잘못

된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쓰임을 받은 자들이 배교를 하고 이단이나 타종교 또는 무신론으로 빠질 수 있는가? 우리 주위에서 신앙의 길을 걷다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 길을 벗어나는 자들을 어떻게 이해하여야 하는가?

교단이 추구하는 신학적 소신에 따라 그 답에 차이가 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뉘질 수 있다. 하나는,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에, 배교한 자는 원래부터 구원을 받지 못했던 것이다. 단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적인 맛을 보았을 뿐이다. 다른 하나는, 구원을 받은 자들이 자신의 신앙을 지키지 못하면 결국 배교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전적으로 하나님이나 본인의 책임이다. 필자는 전자의 해석을 받아들인다. 글의 말미에 이렇다 할 설명도 없이 중요한 신학적 이슈를 던지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 단지 누구든지 쓰임을 받다가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에 공감하고, 혹시 넘어질까 삼가 자신을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하자는 간절한 마음을 나누고 싶다.

이메일:covenantcho@yahoo.com



미주 및 전세계의 한인교회, 목회자, 교우간 교류가 가능해 집니다. 매년마다 한인교회 주소록이 만들어 지고 있습니다.

## 2016년 해외 한인 교회 주소록 발간 안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 그리고 사업체 위에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본사에서 2016년을 맞이하면서 보다 나은 주소록을 발행코저 하오니 지금까지도 많이 협조해 주셨사오나 정확한 주소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속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배전의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1) 미국(전미주)을 중심으로 해외(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오세아니아)에 있는 교회(교단명)와 기독교 기관을 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정확하게 수록한다.
- (2) 각 지역별로 목차(교회명, 기관명, 기관장<인명>)를 수록한다.
- (3) 수주된 광고는 반드시 광고주의 디자인 확인 후 해당 리스팅 난에 게재한다.
- (4) 한국은 광고를 원하는 교회와 기관 또는 사업체에 한하여 별도로 리스팅한다.
- (5) 리스팅 접수마감 2015년 9월 30일  
광고 접수마감 2015년 9월 30일

발행 : 미주크리스천 신문사

유 료 광 고 안 내	돌출(표지)	3.5cm × 4.5cm	\$600.00	
	전면칼라	17cm × 24.5cm	표지내면(2면, 3면)	\$3,000.00
			Back 면	\$3,500.00
			Back 내 내면	\$2,500.00
			Inside	\$2,200.00
*전면칼라일 경우 Inside에 흑백을 넣어줌				
전면흑백	15.5cm × 23.5cm	\$1,000.00		
전면 1/2	15.5cm × 5.8cm	\$600.00		
전면 1/4	15.5cm × 5.8cm	\$350.00		
	7.7cm × 11.7cm			
	15.5 × 2.8cm	\$250.00		
전면 1/8	7.7cm × 5.8cm			
	7.7cm × 5.8cm			
돌출 Listing	Listing size	\$100.00		
축하광고(사진삽입)	3.7cm × 7.5cm	\$200.00		

무 료 리 스 팅 신 청 서	① 교회(기관)이름	한글 : 영문 :
	② 교회(기관)주소	
	③ 교회전화 & 팩스	Tel.( ) Fax.( )
	④ 목사, 전도사, 기관장	한글 : 영문 :
	⑤ 사택주소	
	⑥ 사택전화 & 팩스	Tel.( ) Fax.( )
	⑦ E-mail Add.	
	⑧ Web Add.	
	⑨ 소속교단(정확하게)	

\*위의내용을 편지나 팩스 또는 E-mail : dir@chpress.net 로 보내주세요.

###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 ny@chpress.net

### 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46  
Email : la@chpress.net